




홍성의 산하 용봉산편 1

조원찬·김정현

 홍성문화원

홍성의 산하

용봉산편 ❶

조원찬·김정현

홍성의 산하 용봉산편을 펴내며



우리고장 홍성군은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로서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가야 하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충청도청소재지 문화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청이 홍성군으로 옮겨온 이후, 홍성문화원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기관으로서 산적인 일들이 많기만 합니다.

홍성문화원에서 중점적으로 펼쳐온 사업은 오랜 세월 선조들이 남기고 간 발자취들을 찾아내고 보존하는 향토 발굴 책자 편찬 작업입니다. 고장의 향토 발굴 사업 일환으로 홍성군의 주요 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백월산 상·하편을 펼쳐내었으며, 올해는 용봉산 편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고장 홍성군의 북쪽에는 해발 381m 용봉산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용봉산은 충청남도청소재지가 자리잡은 홍북읍 내포신도시를 감싸면서 홍성군과 예산군 덕산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봉산은 수많은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용봉산 곳곳에는 옛 불교문화의 흔적들이 많아 불교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립니다. 그야말로 용봉산은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많은 유적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명산입니다.

특히 용봉산은 홍북읍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서기 전부터 군내는 물론이고 외지의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용봉산의 역사와 문화와 민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용봉산과 관련한 단편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옛 자료들을 근거로 하는 심층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 선생님의 노력으로 용봉산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유구한 역사와 민속과 문화유적들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봉산 관련 옛 자료들을 바탕 삼아 역사와 문화를 정리해 주신 조원찬 선생님과, 현장을 직접 찾아서 발로 뛰며 민속자료를 정리해 주신 김정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홍성문화원장 유 환 동

I. 역사지리적 고찰	1
1. 금북정맥(錦北正脈)과 용봉산(龍鳳山)	3
2. 용봉산 연혁	8
가. 용봉산과 팔봉산	8
나. 용봉산과 북산(北山)	24
3. 용봉산과 시(詩)	28
가. 이서와 용봉사	28
나. 이수광과 용봉산	32
다. 정약용과 용봉산	40
II. 용봉산과 불교문화유산	43
1. 용봉사(龍鳳寺)	45
가. 연혁	45
나. 용봉사지	64
다. 용봉사와 불교문화유산	67
2. 상하리사지	98
가. 개요	98
나. 가람 배치	100
다. 출토 유물: 기와류	117
라. 출토 유물: 금동보살입상	119
마.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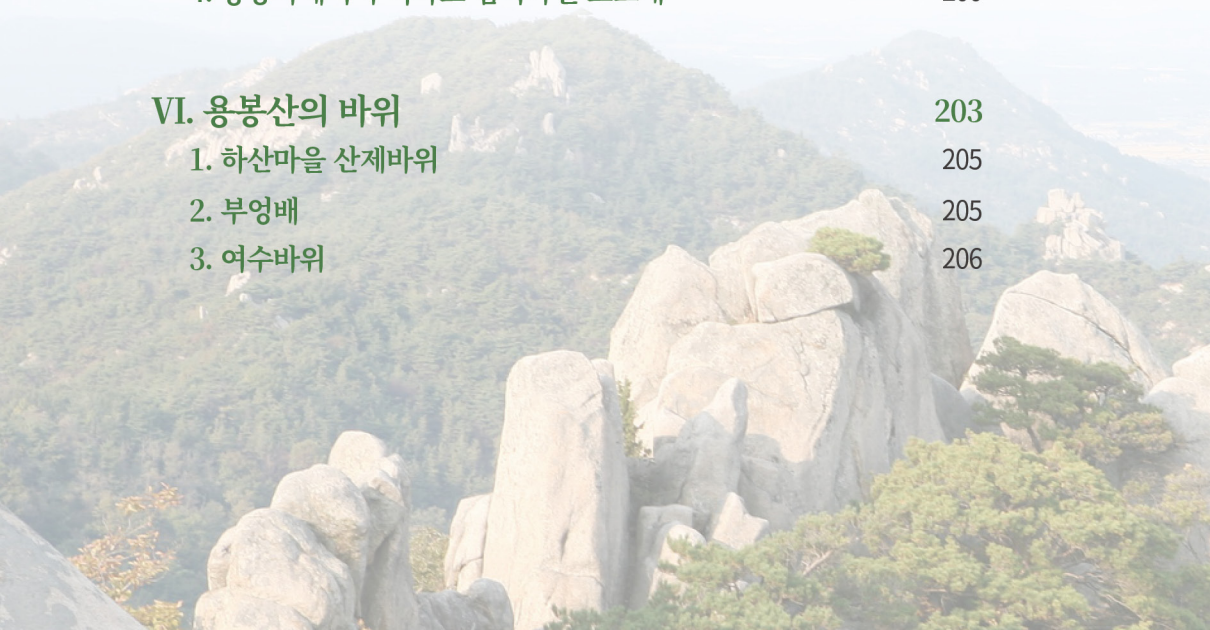


III. 용봉산의 민속	129
1. 민속의 의미	131
2. 용봉산의 지역적인 특색	131
3. 용봉산에 전해오는 마을공동체신앙	132
가. 마을공동체신앙의 역할과 의미	132
나. 용봉산 산신제의 실제	133
다. 사진으로 보는 용봉산 산신제	139
라. 상하리 산신제	144
4. 용봉산에 전해오는 설화(說話)	146
가. 용봉산 전설	146
나. 용봉산 주변의 민담(民譚)	162
IV. 용봉산 골짜기에 남아있는 절터와 유적들	173
1. 절골과 주변 유적들	175
가. 용봉사	175
나. 보물 제1262호 영산회 괘불탱	177
다. 신경리 마애여래 입상	178
라.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179
마. 용봉사 약수터	179
바. 옛사람의 시에 등장하는 용봉사	180
2. 빈절골(빈대절골)과 주변 유적	182
가. 빈절골 절터	182
나. 빈절골 절터에서 발굴된 금동불입상	183
다. 빈절골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184
라. 고려시대 역사의 현장으로 추정되는 용봉산 석굴	184

3. 가마밭골과 주변 유적	186
가.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옮겨진 가마밭골 목없는 여래입상	186
4. 용봉치기 절터와 주변 유적	188
가. 절터와 초석	188
나. 용봉치기 절터 입구에 놓여있던 미륵불	189
5. 미륵골과 주변 유적	190
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상하리 미륵불	190
나. 철거된 용도사 대웅전	191
다. 미륵골에 자리잡은 청송사	191
6. 천승골과 주변 유적	192
가. 천승골 절터	192

V. 용봉산의 고개	195
1. 옛시절 보부상들이 넘나들었던 모래고개	197
2. 말무덤고개	198
3. 옛시절 나무꾼들이 넘나들던 뒤편이 고개	199
4. 용봉사에서 수덕사로 넘어가던 소고개	200

VI. 용봉산의 바위	203
1. 하산마을 산제바위	205
2. 부엉배	205
3. 여수바위	206



VII. 용봉산의 등산로	209
1. 바위포탄을 던지며 사랑을 쟁취하던 봉우리(제1코스)	211
- 상하리 미륵골과 투석봉으로 오르는 길 -	
2. 신랑각시바위 결혼식을 구경하는 길(제2코스)	223
- 병풍바위로 오르는 길 -	
3. 최영 장군과 애마의 전설이 서려있는 바위길(제3코스)	228
- 최영 장군 활터로 올라가는 길 -	
4. 염불하며 소원성취를 갈구하는 길	235
- 염불골로 오르는 길 -	
5. 용봉산 능선을 따라 조성된 내포 사색길	238
- 사색하며 걷는 힐링의 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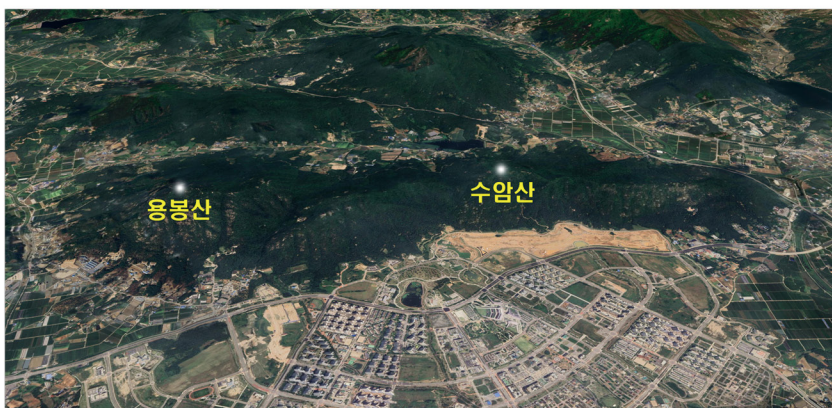


I

역사지리적
고찰

1. 금북정맥(錦北正脈)과 용봉산(龍鳳山)

용봉산은 금강산(金剛山)을 옮겨 놓은 듯 기암괴석이 신비롭고,¹⁾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비롯한 불교 문화유산이 많은 불교의 성지(聖地)이다. 홍성읍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4.8km 떨어져 있으며, 높이는 해발 381m이다. 홍북읍 상하리 신경리 중계리와 예산군 덕산면 둔리·삽교읍 묵리에 걸쳐 있는 용봉산은 독립된 산줄기처럼 남북으로 길게 솟아 있으며, 북쪽으로 수암산이 이어진다. 하늘에서 보면 용봉산과 수암산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연결된 하나의 산줄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홍성의 용봉산과 예산의 수암산이 기록되지 않고, 홍주목과 덕산현 모두 ‘팔봉산(八峯山)’이라고 기록했다.²⁾



[그림 1] 용봉산 전경(북쪽→, 구글어스 활용 편집)

용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흐름은 오서산(烏棲山)으로부터 왔는데,

1) 실학자 유형원이 1656년에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인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誌』에 의하면, “八峯山.在州北八里.一名龍鳳山.山上石峯列立如鉅,世稱小金剛.팔봉산, 주 북쪽 8리에 있다. 일명 용봉산이라고 한다. 산 위로 석봉이 마치 툇니처럼 나란히 솟아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소금강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2) 팔봉산(八峯山) 주 북쪽 8리에 있으니, 곧 덕산현(德山縣)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홍주목) 팔봉산(八峯山) 현 남쪽 5리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덕산현) 八峯山 自德山伽倻修德等山來橫亘於洪州德山兩邑界(『여지도서』 홍주목) 八峯山 在縣南五里 自洪州 烏棲山來(『여지도서』 덕산현)

산경표(山經表)에 따르면 금북정맥(錦北正脈)에 속한다. 금강 북쪽으로 이어진 산줄기를 의미하는 금북정맥은 조선 영조 때 신경준이 산경표³⁾에서 한반도의 산줄기를 대간과 정간, 정맥으로 분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줄기는 백두대간과 장백정간을 중심으로 13개의 정맥(正脈)을 이루고 있는데, 백월산을 비롯한 홍성지역의 산줄기는 모두 금북정맥에 속한다.



[그림 2] 대동여지도를 통해 본 금북정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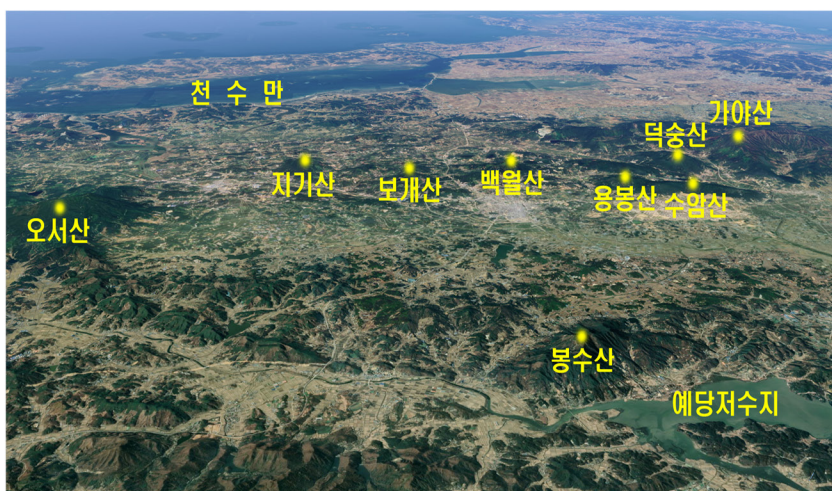
[그림 3] 금북정맥 관련 산줄기(카카오맵 활용 편집)

금북정맥은 백두대간의 하나인 속리산(俗離山, 1,508m) 천왕봉(天王峯)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이 충북 북부지역 통과하며 경기도 안성의 칠장산(七長山, 492m)까지 이어지다가 갈라진 산줄기이다. 칠장산부터 충남 천안의 광덕산을 거쳐 홍성의 오서산을 지나 태안의 안흥진(安興鎭)까지

3) ‘산의 족보’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반까지 조선에서 발행된 최고의 지도와 지리지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군현 읍치와 진산의 소재지를 상대적인 거리와 방향에 의거, 압축적으로 나타난 독특한 인문지리서이다.(김우선, 2020, <「산경표」로 본 백두대간과 지명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어진다. 이 산줄기를 경계로 하여 북쪽 경사면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안성천과 삽교천이 되고, 남쪽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금강으로 흘러든다.⁴⁾

이와 관련하여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에 실린 산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속리산으로부터 오서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알아보자. 백두대간이 지나는 충북 보은의 속리산에서 한남금북정맥이 갈라지고, 이 산줄기는 경기 안성의 칠장산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이 나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북정맥은 속리산에서 칠장산을 거친 산줄기 하나가 남쪽으로 이어지면 충남 천안에서 광덕산(廣德山, 699m)이 된다. 그후 공주 유구와 청양을 거쳐 보령에 이르면 성주산(聖住山, 676.7m)이 되고, 이곳에서 산줄기 하나가 동쪽으로 꺾여 홍성 보령 청양 3군이 교차하는 광천면과 장곡면 사이에 이르면 오서산이 된다. 오서산(791m)은 홍성지역 산악의 조종산(祖宗山)으로서 충청도 서부지역의 큰 산이며, 서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오서산의 중북에는 정암사와 내원사 등의 사찰이 있다.



[그림 4] 금북정맥 중 오서산 ~ 용봉산(북쪽→, 구글어스 활용 편집)

4) 신경준은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 산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이 물이다. 우리나라의 산수는 열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8로(8도)가 된다. 8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가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태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서 가히 볼 수 있다.”(『旅庵全書』 권10, 「山水考 序文」, 박평식, <조선 후기 지도제작기술 및 형태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76집에서 재인용)

이어서 오서산부터 용봉산까지 연결된 산줄기를 알아보자.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서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홍성과 청양 사이 경계에서 안현(雁峴)을 이루고, 이곳에서 갈라진 한 산줄기가 북쪽으로 이어져 장곡면 광성리를 지나 신평리에 이르면 용요현(龍腰峴)이 된다. 이곳은 산허리에 구멍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용혈(龍穴)’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용요현에서 북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장곡면 도산리에 이르면 모산현(茅山峴)이 되고,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이어져 흥동면 흥원리와 원천리 사이에 이르면 석삼봉(石三峰)이 된다. 이곳에서 산줄기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한 줄기가 동북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운월리에 이르면 독울봉(獨兀峰)이 된다. 다른 한 줄기는 북쪽으로 이어져 흥주면 학계리에서 서남쪽으로 꺾어져 철도선을 넘어 구항면 마온리 화현(花峴, 꽃조개, 꽃조개)⁵⁾에 이르러 협곡을 만들고, 다시 이어져 흥주면 남장리에서 남산(南山)을 이룬다. 이곳에서 다시 산줄기가 두 곳으로 나뉜다. 한 줄기가 구불구불 서북쪽으로 이어져 구항면 오봉리와 흥주면 월산리 사이에 솟아올라 월산이 된다. 흥주면 남장리에 있는 남산은 1906년(광무 10) 민중식의 병오홍주의병이 병사를 일으킨 곳이다. 이곳에서 갈라진 다른 한 줄기는 서쪽으로 나뉘어 구항면 황곡리로 들어가 보개산(寶蓋山)이 되고, 이로부터 여러 번 굽이굽이 이어져 남쪽으로 광천면 벽계리, 구항면 신곡리, 은하면 경계 지점에서 벽제산(碧霽山)으로 솟아오른다.

더불어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에 실린 용봉산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봉산은 일면 팔봉산이다. 이 산은 읍의 북쪽으로 약 1리 반 거리이다. 흥북면 중계리 상하리 신경리 등지에 걸쳐 있으며, 예산군 삽교면 덕산면과 본 군 흥북면의 경계이다. 산허리에는 용봉사가 있고, 남쪽 산록에는 고려시대 석불(상하리)이 있다. 모든 산이 기암(奇巖) 층석(層石)이 높이 우뚝 솟아있어 마치 금강산과 같아 호사자들이 홍주의 소금강산이라고 부른다. 용봉산이 이어져 다시 솟으면 흥동산(紅東山)이 되는데 이 산 역시 중계리에 있다. 이 마을에는 전의 이찬세 집안이 누대로 이어져 온 집단부락이다.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면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에서 솟아올라 수덕산(修德山)이 된다.

5) 조원찬의 『홍성의 옛길』(2022)에 따르면, 화현, 꽃조개, 꽃조개 등으로 불리는 고개는 『여지도서』 홍주목에 의하면 ‘고조현(高鳥峴)’에 해당한다. 날아 가는 새도 넘기 힘든 높은 고개, 즉 고조현인데 어느덧 한자 발음이 사투리로 변하면서 고조고개, 고조개, 꽃조개, 꽃조개 등으로 불린 것으로 짐작된다. (“南將臺路 自官門二里 自將臺路 至高鳥峴 十里 自高鳥峴 至湘洲 十五里 自湘洲 至結城 廣川界 十里 大路”(『여지도서』 충청도 홍주목 도로)

수덕산 산록에는 수덕사(修德寺)가 있다. 산 꼭대기에는 정혜사(定慧寺) 금선대(金仙臺) 등의 사찰이 있다. 당진평야와 안면도, 외해 및 인천 방면이 멀리 보인다. 수목(樹木)은 깊고 그윽하며, 수석(水石)은 예스럽고 단아하다. 새벽 안개 자욱하고 지는 노을 모두 기이한 경관이다. 이곳으로부터 한 줄기가 곧장 북으로 이어지면 가야산이 되며, 다른 한 줄기는 서산군 고북면 서쪽을 지나 본 군의 고도면 가곡리 북쪽에서 한쪽 끝이 낮은 골짜기에 걸렸다가 다시 정기가 하나로 합치며 우뚝 솟아 삼준산이 된다.



[그림 5] 용봉산 주변 자연환경(북쪽 ↑, 카카오맵 활용 편집)

지금까지 살펴본 금북정맥 속의 용봉산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용봉산의 범주**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산, 하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쪽은 가깝게 홍북읍 신경리와 상하리가 있고, 멀리 홍북읍 내덕리 용산리 석택리가 있으며, 삽교천을 경계로 홍성군 금마면이 있다. 서쪽은 홍북읍 중계리가 있으며, 홍동산을 경계로 예산군 덕산면이 있다. 남쪽은 홍북읍 상하리와 용봉천이 있다. 북쪽은 용봉산에서 수암산이 이어지며, 북동쪽에는 예산군 삽교읍 목리와 신리가 있고, 북서쪽에는 예산군 덕산면 둔리가 있다.

2. 용봉산 연혁

가. 용봉산과 팔봉산

▣ 사료를 통해 본 용봉산과 팔봉산

하늘에서 보면 용봉산과 수암산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하나의 산줄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홍성의 용봉산과 예산의 수암산이 기록되지 않고, 홍주목과 덕산현 모두 ‘팔봉산(八峯山)’이라고 기록했다. 용봉산과 팔봉산, 어떤 지명이 먼저 이고, 용봉산은 언제부터, 어떻게 불린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용봉산의 연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69년에 간행된 『홍양사(洪陽史)』,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洪城郡誌)』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지리서와 읍지류를 바탕으로 용봉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홍양사(洪陽史)』(1969): 1925년 간행 『홍성군지(洪城郡誌)』의 내용과 같다.
- ② [산악] 용봉산, 일명 팔봉산이다. 이 산은 읍치의 북쪽으로 약 1리 반의 거리에 있다. 홍북면·중계리·상하리·신경리 등지에 걸쳐 있으며, 예산군 삼교면 덕산면 및 본 군의 홍북면과 경계이다. 산허리에는 용봉사가 있고, 남쪽 끝 산록에는 고려시대 석불(상하리)이 있다. 모든 산이 기암 총석으로 높이 우뚝 솟아 있어 마치 금강산과 같아 호사자(好事者)들이 홍주의 소금강이라고 부른다.(1925년 간행 『홍성군지』 권1 산악)⁶⁾
- ③ [산천] 팔봉산, 읍치의 왼쪽 청룡 자리이며, 북쪽으로 20리 거리이다. [범위] 용봉사 홍천면 팔봉산에 있고, 북쪽으로 10리 거리이다. (1906년~1910년에 등사하여 편찬한 『충청남도읍지』 중 『홍주군지』)⁷⁾
- ④ [산천] 팔봉산, 현의 남쪽 5리에 있고, 홍주 오서산으로부터 왔다. [사찰] 수암(水菴), 현 남쪽 5리 팔봉산 아래에 있다.(1906년~1910년에 등사하여 편찬한

6) [山岳] 龍鳳山 一名八峯山 是山自邑北距約一里半 盤據洪北面中溪里上下里新耕里等地 爲禮山郡插橋面德山面及本郡洪北面界 山腰有龍鳳寺 南端山麓有高麗時代石佛(上下里) 全山奇巖層石峭峻矗立 略似金剛故好事者稱以洪州小金剛…(1925년 간행 『洪城郡誌』 권1 산악)

7) [山川] 八峯山 邑之左龍北距二十里. [梵字] 龍鳳寺 在洪天面八峯面(山?)北距十里. (1906년~1910년에 등사하여 편찬한 『忠淸南道邑誌』 중 『洪州郡誌』)

『충청남도읍지』 중 『덕산지』)⁸⁾

⑤ [산천] 팔봉산, 읍치의 왼쪽 청룡 자리이며, 북쪽으로 20리 거리이다. [범우] 용봉사, 홍천면 팔봉산에 있고, 북쪽으로 10리 거리이다.(1899년에 편찬한 『충청남도읍지』 중 『홍주군읍지』)⁹⁾

⑥ [산천] 팔봉산, 군 남쪽 5리에 있고, 홍주 오서산으로부터 왔다. [사찰] 수암(修菴), 군의 남쪽 10리 팔봉산 아래에 있다.(1899년에 편찬한 『충청남도읍지』 중 『덕산군읍지』)¹⁰⁾

앞의 자료 가운데 ①과 ②를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팔봉산(八峯山)’보다는 ‘용봉산(龍鳳山)’이 주된 지명으로 등장하고, 팔봉산은 용봉산을 설명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지명으로 등장한다. 그렇지만 1906년(고종, 광무 10) 이후 편찬된 『충청남도읍지』 중 『홍주군지(洪州郡誌)』에 나타난 ③과 『덕산지(德山誌)』에 기록된 ④의 내용, 1899년(고종, 광무 3)에 편찬한 『충청남도읍지』 중 『洪州郡邑誌』의 ⑤와 『德山郡邑誌』 ⑥의 내용을 보면 팔봉산이 주된 명칭이고 용봉산은 보이지 않는다. ①과 ②, ③~⑥의 내용만 보면, 대한제국 시기는 팔봉산이 공식적인 지명으로 사용되었고, 용봉산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줄곧 사용된 공식 지명으로 보인다. 왜 갑자기 팔봉산 대신 용봉산이 대표 지명으로 사용되었을까? 어쩌면 일제가 일부러 하나의 줄기인 팔봉산을 홍성군에서는 용봉산으로, 예산군에서는 수암산으로 부르도록 한 것은 아닐까? 본래 팔봉산은 홍성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예산군에 살던 사람들 모두 조선시대 이후 팔봉산으로 불렀던 곳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자 홍성지역이나 예산지역에서 각각 지엽적으로 불리던 용봉산과 수암산이 주된 지명이 되고, 팔봉산은 ‘일명(一名)’이란 표현을 빌며 부연 설명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의 이름, 하나의 생각이었던 팔봉산이 홍성지역에서는 용봉산, 예산지역에서는 수암산으로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따로따로 두 개의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의 팔봉산임에도 불구하고,

8) [山川] 八峯山 在縣南五里自洪州烏棲山來. [寺刹] 水菴 在縣南五里八峯山下. (『忠清南道邑誌』, 『德山誌』)

9) [山川] 八峯山 邑之左龍北距二十里. [梵宇] 龍鳳寺 在洪天面八峯山北距十里 (『忠清南道邑誌』, 『洪州郡邑誌』)

10) [山川] 八峯山 在縣南五里自洪州烏棲山來. [寺刹] 修菴 在郡南十里八峯山下. (『忠清南道邑誌』, 『德山郡邑誌』)

홍성지역에서는 용봉산만, 예산지역에서는 수암산만 따로따로 떼어서 각각의 보존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하나의 산줄기이지만, 홍성지역에서는 수암산을 생각밖에 두고, 예산지역에서는 용봉산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용봉산과 수암산의 미래는 하나의 산줄기로서 ‘팔봉산’의 의미를 모두 함께 중시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면 팔봉산 말고, 용봉산은 언제부터 불려왔던 것일까? 다음의 자료를 주목해 보자.

- ⑦ [산천] 팔봉산, 읍의 왼쪽 청룡 자리이고, 북쪽으로 20리 거리이다. [방리] …홍천면, 관문에서 15리 거리이다. [불우] 용봉사, 홍천면 팔봉산에 있다.(『1871년 편찬한『호서읍지』 중 『홍주목읍지』¹¹⁾
- ⑧ [산천] 팔봉산, 현 남쪽 5리에 있고, 홍주 오서산으로부터 왔다. [사찰] 수암(修菴), 현 남쪽 10리 팔봉산 아래에 있다.(『1871년 편찬한『호서읍지』 중 『덕산군 덕산진』¹²⁾
- ⑨ 호서록, 갑신년 가을, 홍주목사를 제수받았다. 「이진사와 용봉산을 유람할 때 송락암 시를 받고 화답하여 그에 부침」(1764년 홍주목사를 지낸 이계홍양호(1724~1802)의 글을 모은『이계집』 권3 「호서록」)¹³⁾
- ⑩ [산천] 팔봉산, 덕산 가야·수덕 등의 산으로부터 와서 홍주·덕산 두 고을의 경계에서 횡단한다. [사찰] 용봉사, 팔봉산에 있다.
(1757년 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만든『여지도서』 중 『홍주목』)¹⁴⁾
- ⑪ [산천] 팔봉산, 현 남쪽 5리에 있고, 홍주 오서산으로부터 왔다. [사찰] 수암(修菴), 현 남쪽 10리 팔봉산 아래에 있다.
(1757년 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만든『여지도서』 중 『덕산현』)¹⁵⁾

11) [山川] 八峰山 邑之左龍北距二十里. [坊里]…洪天面 距官門十五里. [佛宇] 龍鳳寺 在洪天面八峯山(『湖西邑誌』, 『洪州牧邑誌』)

12) [山川] 八峯山 在縣南五里 自洪州烏栖山來. [寺刹] 修菴 在縣南十里 八峯山下(『湖西邑誌』, 『德山郡 德山鎮』)

13) 湖西錄 甲申秋 除洪州牧使 李上舍遊龍鳳山 投示松落菴詩 和而寄之.(『耳溪集』 권3 「湖西錄」)

14) [山川] 八峯山 自德山伽倻修德等山來橫亘於洪州德山兩邑界 [寺刹] 龍鳳寺 在八峯山(『輿地圖書』, 『洪州牧』)

15) [山川] 八峯山 在縣南五里 自洪州烏栖山來. [寺刹] 修菴 在縣南十里 八峯山下(『輿地圖書』, 『德山縣』)

⑫ [산천] 팔봉산, 북쪽에 있다. [사찰] 용봉사, 치사면에 있고, 북쪽으로 10리 거리이다. 송락암, 용봉사 남쪽에 있다.(1744년 이후 편찬한 『홍주읍지』)¹⁶⁾

⑬ [산천] 팔봉산, 홍주 북쪽 8리에 있다. 일명 용봉산이라 한다. 산 위로 석봉(石峯)이 마치 톱니처럼 나란히 솟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소금강(小金剛)이라고 일컫는다. 또 장군석(將軍石)이 있는데, 고려 최영(崔瑩)이 일찍이 노닐고 쉬던 곳이므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사찰] 용봉사 팔봉산에 있다. 산의 형세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양인데, 절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림 6] 『동국여지지』 홍주목 「강도록」용봉산

(1656년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 제3권 충청도 우도 홍주진 홍주목)¹⁷⁾

⑭ [산천] 팔봉산 현 남쪽 8리에 있다.

(1656년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 제3권 충청도 우도 홍주진 덕산현)¹⁸⁾

⑮ [학윤(學允) 스님(上人)에게 바침]

강화도에서 승려를 만나 홍주를 추억하니,
용봉산의 경치 수목화로 그려지네. 구슬프네 10년 남과 북에서, 허영계
센 머리(白頭)로 다시 만났으나 팔봉산은 없네. 스승 홍주인 용봉사에서 거주한다.
(1607년 홍주목사, 1618년 무렵 강화부사를 지낸 이안눌의 『동악집』 권12 「강도록」)¹⁹⁾

⑯ 팔봉산(《지지(地志》²⁰⁾)에 팔봉산은 기암괴석이 많으니, 세간의 이른바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는 곳이다.) 여덟 개 산봉우리 하늘에 꽃힌 듯하니,

16) [山川] 八峯山 在北. [寺刹] 龍鳳寺 在雉寺面北距十里 松落菴 在龍鳳寺南邊.(『洪州邑誌』)

17) [山川] 八峯山 在州北八里 一名 龍鳳山 山上石峯列立如鉅 世稱小金剛 又有將軍石 高麗崔瑩嘗遊憩 故名. [寺刹] 龍鳳寺. 在八峯山. 山勢控抱, 寺據中麓. 本朝 李舒詩 三面奇峯繞梵宮, 千尋峭壁入雲空, 前山開豁孤村迥, 絕磴縈迴一徑通, 權相曾遊遺舊跡, 行公何處想高風, 坐來松吹清人耳, 世慮不干方寸中.(『東國輿地誌』 제3권 忠淸道 右道 洪州鎮 洪州牧)

18) [山川] 八峯山 在縣南八里.(『東國輿地誌』 제3권 忠淸道 右道 洪州鎮 德山縣)

19) [贈學允上人. 用滄洲車金正韻] 逢僧江國憶洪都, 龍鳳山光水墨圖, 惆悵十年南又北, 白頭重對八峯無. 師 洪州人 住龍鳳寺(『東岳先生集』 卷之十二 『江都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 활용)

20) 『홍주읍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과아²¹⁾가 하나하나 공들여 다듬었다오. 기이한 경관은 많은 것이 꼭 낫지는 않으니, 금강산 만이천봉을 말하지 말지어다.(『홍양록』 홍양은 홍주의 별칭이다. 무신년(1608, 선조 41) 1월부터 기유년(1609, 광해군 1) 4월까지 홍주목사로 있었던 이수광 시이다.)²²⁾

- ⑬ [용봉사의 옛 유람을 추억하며] 가장 좋다 손꼽히는 용봉산이니 푸르른 바위 봉우리 몇 층이던고 저물녘 종소리에 절이 있음 알았건만 텅 빈 트랙이라 승려가 없나 싶었다오 부처의 자리는 황금의 땅이요 선승의 창에는 백일의 등이로다 지금도 이내 몸 한밤중 꿈속에 달빛 타고 등장으로 내를 건넌다오.²³⁾

앞에서 살펴본 ⑦ ~ ⑬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고전종합DB,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검색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⑨, ⑬, ⑮, ⑰에 제시된 용봉산 관련 내용이다. ⑨는 1764년 홍주목사를 지낸 홍양호의 시 가운데 ‘용봉산’을 유람하는 내용, ⑬은 1656년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홍주목 산천조에 보이는 ‘용봉산’, ⑮는 1607년에 홍주목사를 지낸 동악 이안눌의 시에 표현된 내용, ⑰는 지봉 이수광이 용봉사의 옛 유람을 추억하며 쓴 시이다. 즉, 1764년, 1656년, 1607년에 ‘팔봉산’ 지명 외에 ‘용봉산’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⑬과 ⑰을 보면 1607년 겨울에 홍주목사로 부임한 이수광의 시에 보면, ‘팔봉산’과 ‘용봉산’이 모두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통해 짐작하면, 조선시대 팔봉산으로 불린 산은 17세기 무렵부터 용봉산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형원의 표현처럼 팔봉산이 주된 지명이고, 용봉산은 해당 지역에서 불렸던 지역적인 지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21)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설화에 나오는 전설상의 대력신(大力神)으로, ‘과아(夸娥)’라고도 한다. 옛날 북산(北山)의 우공(愚公)이 자자손손 자기 집 앞을 가리고 있는 산을 옮기려 하자, 천제(天帝)가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과아씨(夸娥氏)의 두 아들에게 명해서 산을 옮겨 놓게 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列子 湯問》(한국고전종합DB 자료 활용)

22) [八峯山](『地志』曰八峯山多奇石, 世所謂小金剛山云) 八箇峯巒勢插天, 夸娥一費雕鏤, 奇觀不必多爲勝, 休道金剛萬二千.(『芝峯集』 제13권, 『洪陽錄』 洪陽洪州別名 起戊申正月止己酉四月. 한국고전종합DB 자료 활용)

23) [憶龍鳳舊遊] 第一山龍鳳 巖巒翠幾層 暮鍾知有寺 空院訝無僧 佛坐黃金地 禪窓白日燈 只今中夜夢 和月度溪藤(『芝峯集』 제13권 한국고전종합DB 자료 활용)

▣ 용봉산 전설

한편, 용봉산의 지명 유래와 관련된 사례로서 용봉산 꼭대기 대나무 숲에 봉황새가 살았고, 용봉산 아래 연못에는 커다란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는 ‘용못’ 전설을 소개해 본다.

용봉산에는 원래 산꼭대기 대나무 숲에 봉황새가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용봉산 아래 연못에는 커다란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느님은 봉황에게 육지를 다스리도록 했다. 그리고 용에게는 물속을 다스리도록 했다. 어느 해부터 갑자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산천초목이 말라붙고 연못까지도 물이 없어서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육지에 사는 동물들도,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용봉산 아래 연못에 사는 용이 용기를 내었다. 연못을 뛰쳐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그 뒤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비는 몇 달이 되도록 그칠 줄 없었다. 가뭄 때문에 고생하던 육지의 들짐승과 날짐승들은 또다시 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아무리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었다. 태평가를 부르며 물속을 헤엄쳐 다녔다. 육지에 사는 짐승들은 물고기들이 껴쬐하기 짝이 없었다. 짐승들의 불만은 용봉산 꼭대기의 봉황에게도 전해졌다. “에이, 꽤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을테다.” 봉황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봉황은 힘이 세고 부리가 날카로운 새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오도록 했다. 육지의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간다는 소식은 곧바로 연못 속의 용에게 전해졌다. 서로 감정이 상한 봉황과 용은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용봉산 꼭대기와 용봉산 아래를 오르내리며 그칠 줄을 몰랐다. 그 바람에 푸르고 아름답던 산은 포탄을 맞은 것처럼 변해갔다. 뾰족뾰족한 돌들만이 앙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산 위에서 흘러내린 흙더미로 인해 깊고 넓던 연못도 점점 문허가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하느님은 봉황과 용이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가 난 하느님은 당장 봉황과 용을 이곳에서 내쫓고 말았다. 그 뒤로 봉황이 살았다는 용봉산은 대숲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또한 용봉산 하산 마을에는 용이 살았다는 ‘용못’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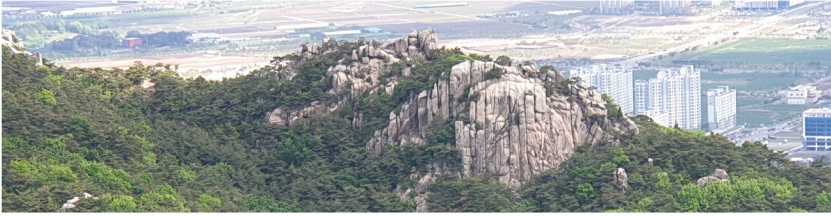
24) 김정현, 2003, 『용봉산의 민속』, 최운식 김정현, 1999, 『홍성의 마을공동체신앙』, 홍성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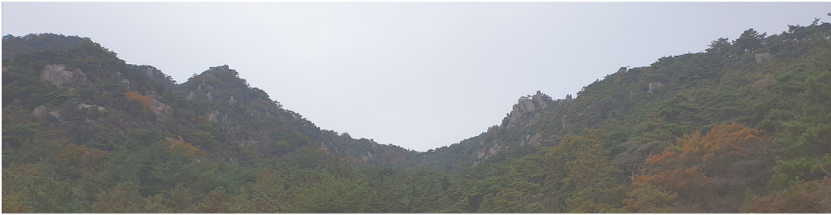
[그림 7] 용바위



[그림 8] 자라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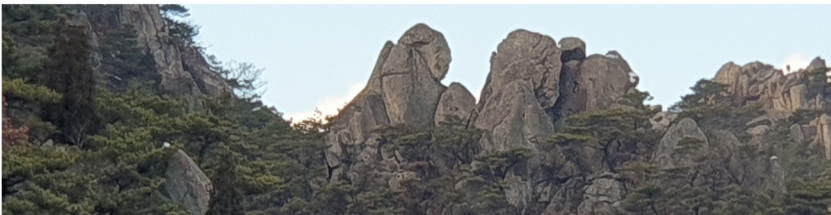
[그림 9] 용봉산 병풍바위와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왼쪽 아래)



[그림 10] 최영 장군 바위(왼쪽)와 노적봉(오른쪽) 사이에 보이는 기암괴석



[그림 11] 용봉산 악귀봉(왼쪽) · 노적봉(오른쪽)에 보이는 기암괴석



[그림 12] 노적봉 ~ 사자바위 능선 상의 기암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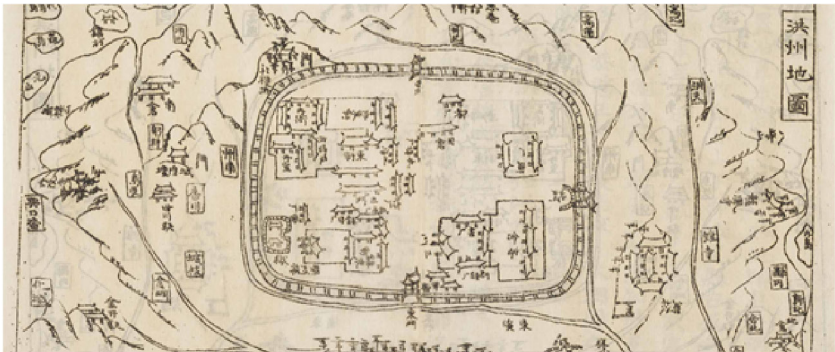
□ 고지도를 통해 본 팔봉산과 용봉산

고지도 자료에 나타난 용봉산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료와 함께 고지도에 나타난 용봉산 관련 표기 내용을 교차 검증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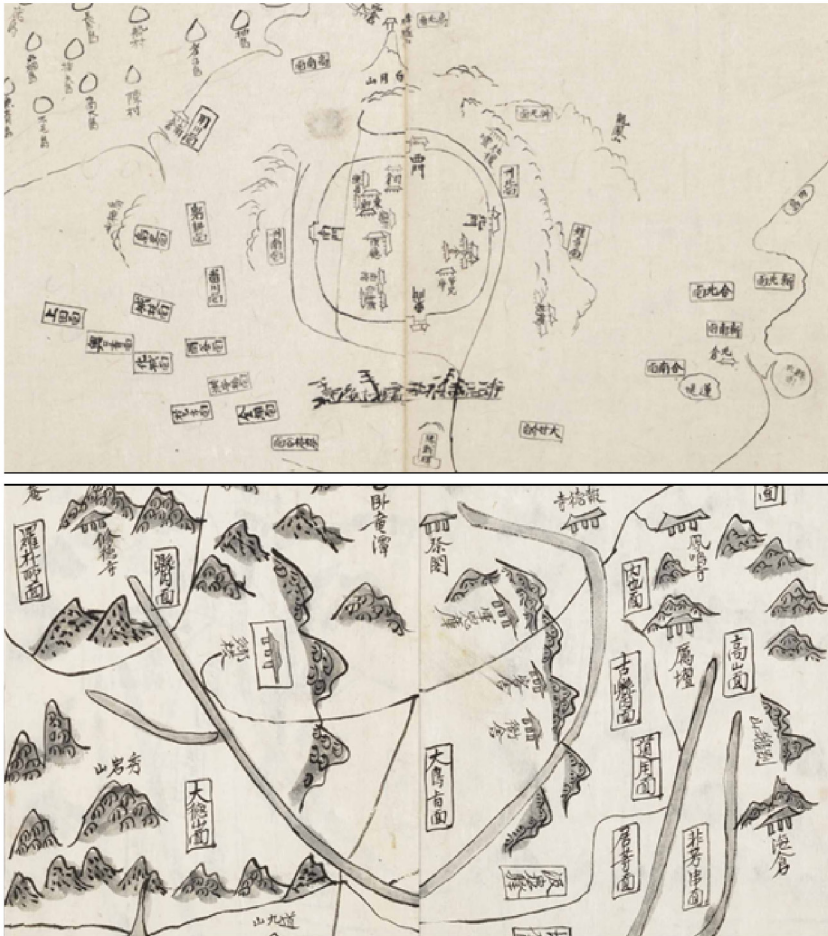
1915년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실측하여 1916년에 펴낸 1/5만 지도 홍성편에 용봉산이 표기되어 있고, 수암산과 팔봉산의 표시는 없다.

[그림 13] 1915년 실측, 1916년 제판 1/5만 홍성 지도
(국토정보플랫폼 자료 활용)



[그림 14] 1906년 충청남도지 중 홍주지도와 덕산지도 (규장각 자료 활용)

충청남도지는 1906년~1910년에 등사하여 편찬한 책이다. 충청남도 소속 36개 군의 37개 읍지와 1개 진지(鎭誌)를 등사하여 9책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홍주지도에는 팔봉산(八峯山), 덕산지도에는 수암산(秀巖山)이 표기되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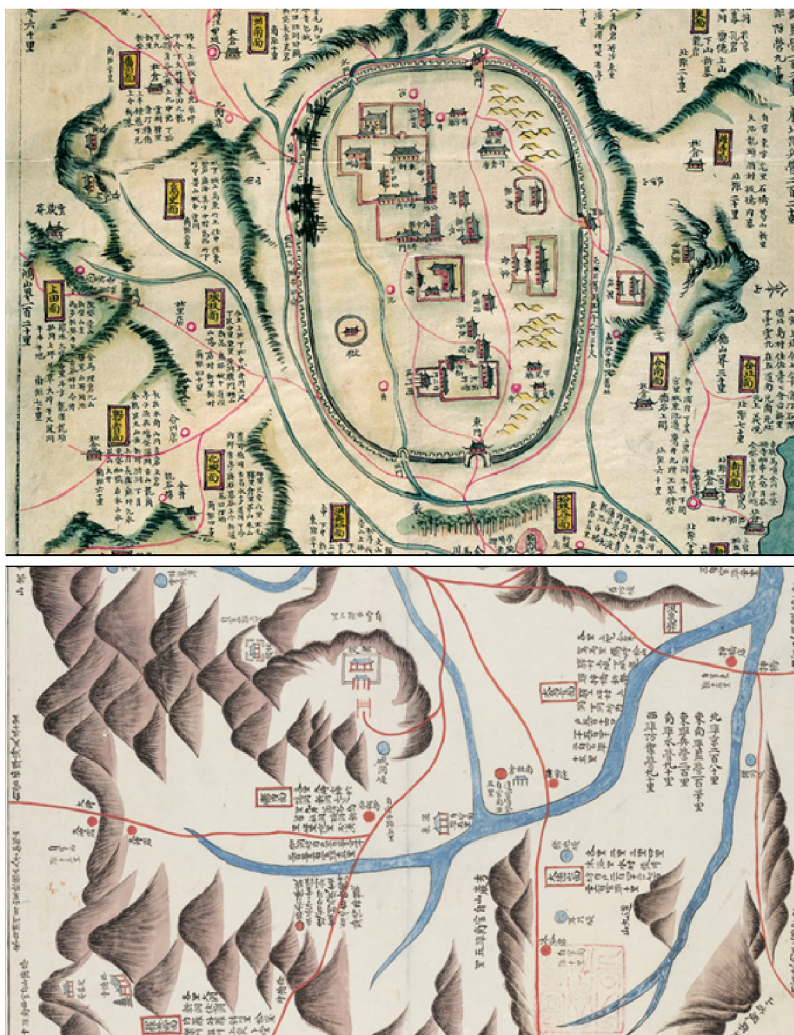


[그림 15] 1899년(광무3)에 편찬된 충청남도 도지(道誌) 중 홍주군과 덕산군 지도(규장각 자료 활용)

1899년 당시 충청남도는 1896년의 13도제 시행에 의해 도 관찰부가 공주에 있었고, 예하에 37개 군이 소속되었다. 새로 정해진 군의 등급은 공주가 1등, 홍주가 2등,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시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읍지 편찬의 최후의

25) 김선경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에서 설명한 내용을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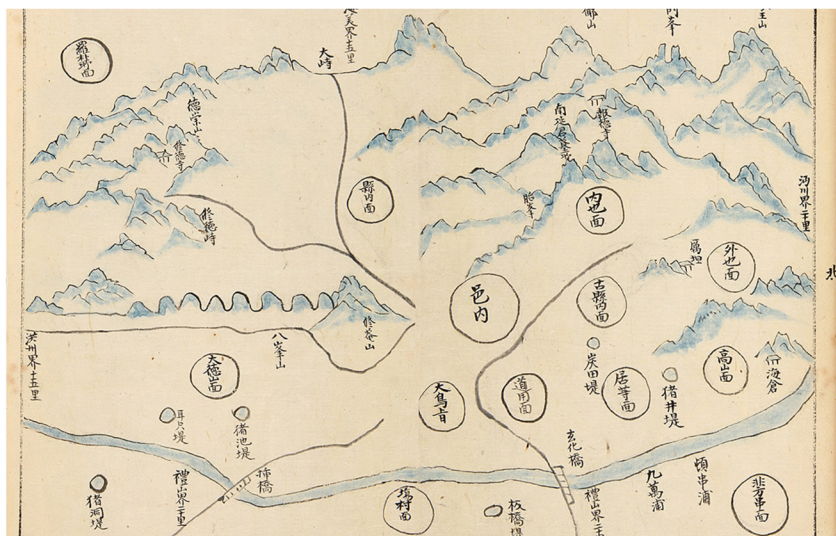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²⁶⁾ 홍주목의 북쪽에 팔봉산이 표기되고, 덕산현의 남쪽에는 수암산(秀巖山)이 표기되었다.



[그림 16] 1906년 충청남도지 중 홍주지도와 덕산지도(규장각 자료 활용)

홍주지도와 덕산군지도는 1871년(고종 8) 열읍지도등상령 (列邑地圖騰上令)에 따라 1872년 충청도 각 부, 군, 현에서 만들어 올린 채색지도 중 홍주목과 덕산군 지역의 지도이다. 홍주목에는 팔봉산, 덕산군에는 수암산(秀巖山)이 표기되었다.

26) 김선경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에서 설명한 내용을 인용함.



[그림 17] 1871년 편찬된 『호서읍지』(규 12176) 8책에 수록된 덕산군 읍지 지도(규장각 자료 활용)

규장각 소장 『호서읍지』(규 12176) 8권에 수록된 충청도 덕산현의 그림식 지도다. 팔봉산을 여덟 개의 봉우리 표현하였고, 그 끝에 수암산(修菴山)이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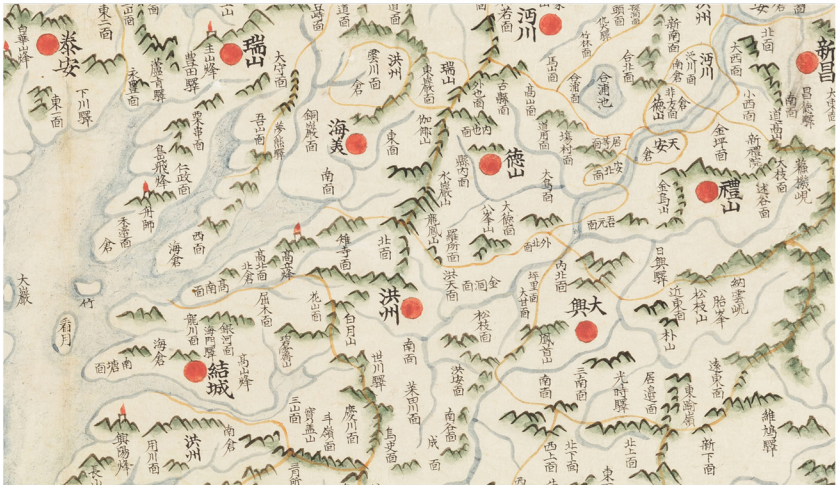
[그림 18] 1861년 김정호가 간행한 대동여지도 중 홍주목과 덕산현 부분 (규장각 자료 활용)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청구도 내용을 보충하여 1861년(철종 12) 사용에 편리하도록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만든 우리나라 전국 지도이다. 홍주와 덕산 사이에 팔봉산과 용봉사가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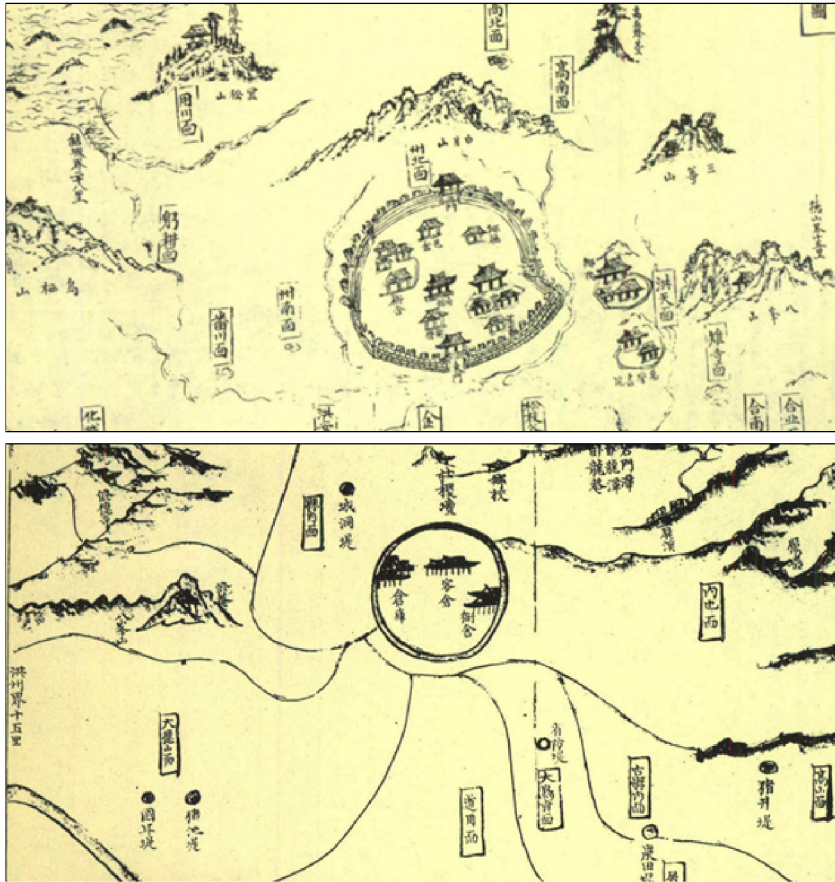
[그림 19] 19世紀 前半에 간행된 동역도(東域圖) 중 홍주목과 덕산현 부분(규장각 자료 활용)

19세기 전반 순조 연간(1800-1834)에 간행된 동역도 가운데 홍주목과 덕산현 사이에 팔봉(八峯)과 용봉(龍鳳)이 표기되었다. 용봉(龍鳳)의 경우 산의 이름인지, 사찰 이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20] 1776~1834년(정조~순조)에 제작된 조선팔도지도 중 홍주목과 덕산현 지도(규장각 자료 활용)

1776 ~ 1834(정조 ~ 순조)에 제작된 조선팔도지도 가운데 홍주목과 덕산현 사이에 팔봉산이 표기된 것과 함께 위치를 서쪽으로 옮겨 용봉산과 수암산(水巖山)이 표기되었다.



[그림 21] 1757년~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을 만든 『여지도서』 중 홍주목과 덕산현 부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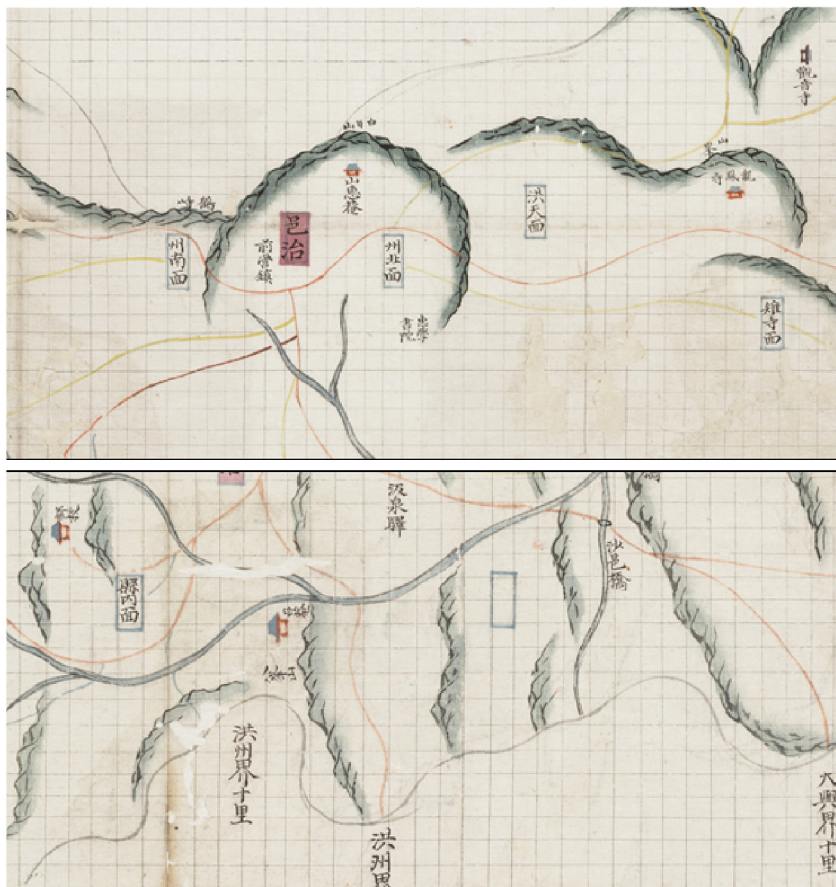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 1765(영조 41)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을 만든 전국 지방지. 대부분 읍지의 호구조의 기준 연도가 1759년(己卯帳籍)인 점으로 볼 때, 1760년 이후에 수집된 읍지들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홍주목 지도에는 북쪽에 팔봉산이 표기되었고, 덕산현 지도에는 남쪽에 여덟 개의 봉우리를 표현한 팔봉산과 수암(修巖)이 표기되었다.



[그림 22] 1750년대 초 제작된 『해동지도』 중 홍주목과 덕산현 부분 (규장각 자료 활용)

『해동지도』는 비변사에서 제작한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된 것으로 1750년대 초 전국의 군현을 회화식으로 그린 지도집으로 알려졌다.²⁷⁾ 홍주목의 오른쪽 북쪽으로 팔봉산이 표기되었고, 덕산현의 아래 남쪽에도 팔봉산이 표기되었다.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23] 1750년 전후에 편찬된 『비변사인방안지도』중 『호서지도』의 홍주목과 덕산현 부분 (규장각 자료 활용)

비변사인방안지도 중 호서지도는 ‘비변사(備邊司)’의 인장이 찍혀 있는 대축척 고을 지도첩과 함께 1750년 안팎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읍치 북쪽으로 산봉(山峯)과 용봉사가 표기되었는데, 산봉은 팔봉산의 잘못된 표기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덕산현의 아래 남쪽으로는 팔봉산과 소암(召菴)이 표기되었는데, 소암은 수암(修菴, 또는 水菴)의 잘못된 표기로 짐작된다.



[그림 24] 18세기 무렵에 간행된 『광여도』의 홍주목과 덕산현 부분(규장각 자료 활용)

광여도는 18세기 무렵인 1737년(영조 13) ~ 1776년(영조 52), 늦어도 1800년(순조 즉위)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²⁸⁾ 홍주목의 오른쪽 북쪽으로 팔봉산이 있고, 덕산현의 아래 남쪽으로 팔봉산이 없이 수암산(修菴山)만 표기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 가운데 1764년 홍주목사를 지낸 홍양호의 시 가운데 ‘용봉산’을 유람하는 내용 ⑨, 1656년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홍주목 산천조에 보이는 ‘용봉산’ 내용 ⑬, 1607년에 홍주목사를 지낸 동악 이안눌의 시에 수록화로 표현된 ‘용봉산’ 내용 ⑮, 1607년 겨울에 홍주목사로 부임한 이수광의 시 제목 ‘팔봉산’ ⑯ 등의 사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17세기 ~ 18세기 무렵에는 ‘팔봉산’ 지명 외에 ‘용봉산’이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유형원의 표현처럼 팔봉산이 주된 지명이고, 용봉산은 해당 지역에서 불렸던 지엽적인 지명으로 보인다.

28) 규장각 원문서비스

이와 함께 고지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팔봉산, 용봉산, 수암산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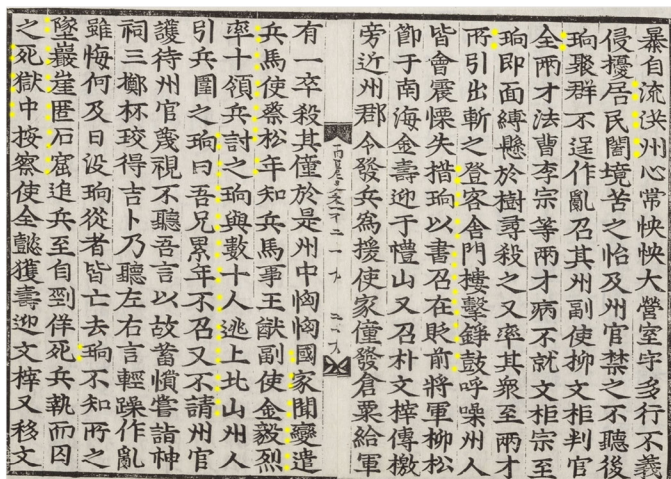
<표 1> 고지도를 통해 살펴본 팔봉산, 용봉산, 수암산

제작시기	지도명		산명
1915~1916	1/5만 지도 '홍성'		용봉산(龍鳳山)
1906~1910	충청남도지	홍주지도	팔봉산
		덕산지도	수암산(秀巖山)
1899	충청남도지	홍주목	팔봉산
			수암산(秀巖山)
1872	규장각본 지방지도	홍주지도	팔봉산
		덕산군지도	수암산(秀巖山)
1871	호서읍지	덕산군읍지	팔봉산, 수암산(修菴山)
1861	대동여지도		팔봉산
1800~1834	동역도		팔봉(八峯)
1776~1834	조선팔도지도		팔봉산, 용봉산, 수암산(水巖山)
1757 1765	여지도서	홍주목	팔봉산
		덕산현	팔봉산, 수암(修巖)
1750년대	해동지도	홍주목	팔봉산
		덕산현	팔봉산
1750년	비변사인방안지도 호서지도	홍주목	봉산(峯山)
		덕산현	팔봉산
18세기	광여도	홍주목	팔봉산
		덕산현	수암산(修菴山)

요컨대 용봉산은 조선시대 사료에서는 17세기~18세기 무렵이면 ‘팔봉산’ 지명 외에 지엽적인 지명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지도 자료에서도 18세기 무렵이면 팔봉산뿐만 아니라, 용봉산과 수암산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조선시대에는 ‘팔봉산’이 공식적이며, 주된 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용봉산’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공식적인 지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용봉산과 북산(北山)

고려시대에 용봉산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산(北山)’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두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최충헌의 아들인 최우와 최향의 다툼을 기록한 내용인데, 『고려사』 열전 반역(叛逆) 최충헌 - 최이 편에서 ‘최이가 최충헌의 사망 후에 권력을 장악하다’라는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5] 『고려사』 열전 번역 최이(규장각 자료 활용)

최향은 최충헌의 아들로서 최이(최우)의 동생이다. 최충헌이 죽은 뒤 형인 최이와 다투다가 밀리면서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홍주로 옮겼다. 홍주에서 최향은 “용맹했지만 의심이 많고 사나워서 홍주로 유배된 뒤에 항상 불만을 품고서 큰 집을 짓고 불의한 행동을 많이 하고 백성들을 침해하였으니 그 고을 일대가 고초를 겪었다. 최이와 홍주의 관리가 금지하였지만 (최향은)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 장악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은 『고려사』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 후 최향이 무리배들을 모아서 난을 일으키고, 홍주의 부사 유문거(柳文柜), 판관 전양재(全兩才), 법조(法曹) 이종(李宗)을 소환하였다. 전양재는 병이 났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 유문거와 이종이 가자, 최향은 두 사람을 바로 결박하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조금 뒤에 그들을 죽였다. 또 무리를 이끌고 전양재의 집으로 가서 그를 끌어내고 참수하였다. 객사의 문루에 올라가 쟁과 북을 치며 고함을 지르니, 주인(州人)들이 모두 모여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최향은 편지를 써서 유배지에 있는 장군 유송절(柳松節)을 남해에서, 김수영(金壽迎)을 예산에서 불러들였다. 또 박문재(朴文棨)를 불러 인근 주군에 격문을 돌려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돕도록 하였다. 가동(家僮)을 시켜 창고의 쌀을 꺼내 군인들에게 주었는데, 어떤 한 병사가 그 가동을 죽이니 고을의 인심이 흉흉하였다. 나라에서 이 변란의 소식을 듣고, 병마사 채송년(蔡松年), 지병마사 왕유(王猷), 부사 김의렬(金毅烈)을 파견하고 10영(領)의 군사를 인솔하여 토벌하도록

하였다. 최향과 수십 명이 달아나다 **북산(北山)**에 오르니, 주(州)의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포위하였다. 최향이 말하기를, 우리 형은 여러 해가 되어도 나를 부르지도 않고, 또 주관(州官)들에게 나를 잘 보호하고 접대하라고 부탁하지 않으니, 주관(州官)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 말도 듣지도 않아서 내가 울분이 쌓였다. 마침 神祠신사에 가서 세 번이나 杯琖배교를 던져 길하다는 점괘를 얻었기에 左右좌우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난을 일으켰다. 뉘우친들 어찌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날이 저물자 최향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니, 최향은 갈 곳을 몰라 하다가 바위 벼랑에서 떨어져 동굴 속에 숨었다. 추격하던 군사들이 오자, 최향은 제 목을 찌르고 죽은 체하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그를 잡아서 가두니, 최향은 감옥에서 죽었다.”²⁹⁾

그렇다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보이는 ‘북산(北山)’은 어느 곳일까? 이곳은 최향이 수십 명의 무리와 더불어 달아난 곳이며, 무리와 떨어져 헤메다가 바위 벼랑에서 떨어져 숨어 들어간 ‘동굴’이 있는 곳이다. 현재 북산은 방향으로 보았을 때, 홍주목이 있었던 홍성읍에서 북쪽에 위치한 ‘용봉산’이 가장 유력한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산과 관련된 지명을 찾아보면, ‘동·서·남·북’ 방향과 관련된 지명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향이 떨어져 들어갔다는 동굴로 추정되는 곳도 용봉산 정상에서 동쪽 아래, 빈절골사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가 많다.

요컨대 용봉산은 조선시대에는 ‘팔봉산’, 고려시대에는 ‘북산’으로 불렸는데, 용뿔 전설과 함께 다양한 사료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7세기 무렵이면 홍주목 쪽은 ‘용봉산’, 덕산현 쪽은 ‘수암산’이라 불렀던 것으로 짐작된다.

29) 『고려사』 열전 권42 반역 최충헌 최이, 최이가 최충헌의 사망 후에 권력을 장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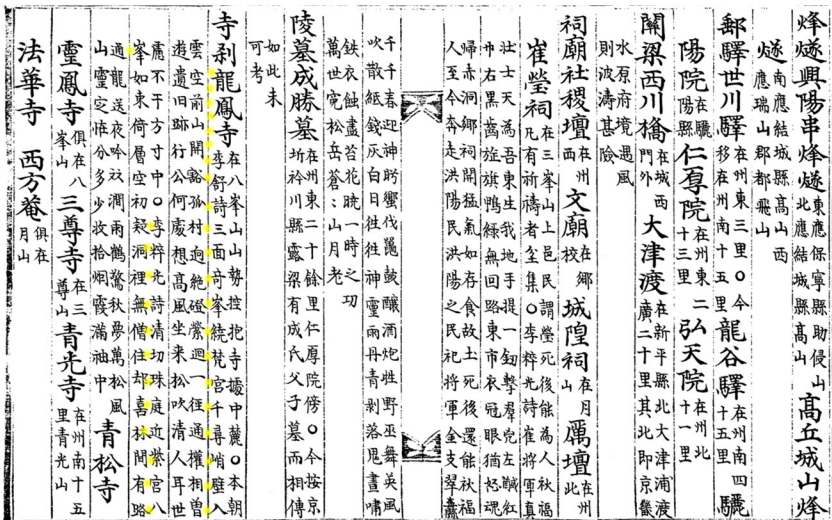
[그림 26] 용봉산 정상 아래 '최항'이 숨어들어간 동굴

3. 용봉산과 시(詩)

가. 이서와 용봉사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제3권 충청도 우도(右道) 홍주진(洪州鎭) 홍주목(洪州牧) 사찰(寺刹)에 “용봉사(龍鳳寺)는 팔봉산(八峯山)에 있다. 산의 형세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양인데, 절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서(李舒)의 시(詩)를 소개하였다.³⁰⁾

삼면에 기이한 봉우리가 절을 둘러싸고 / 三面奇峯繞梵宮
 천 길 험한 절벽은 구름 속에 들어갔네 / 千尋峭壁入雲空
 앞산은 틈 틈여 외로운 마을 저 멀리 있고 / 前山開豁孤村迥
 가파른 비탈에 빙빙 돌아 길 하나 나 있네 / 絕磴縈迴一徑通
 권상이 일찍이 노닐고 흔적을 남겼으니 / 權相曾遊遺舊跡
 공무 보다가 어디에서 고상한 풍경을 꿈꾸셨나 / 行公何處想高風
 자리에 붙어오는 솔바람 소리 청량하니 / 坐來松吹清人耳
 세상의 근심들 마음속에 근접 못 하네 / 世慮不干方寸中



[그림 27] 『동국여지지』 홍주목 사찰조 이서의 시

30)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이서(李舒, 1332~1410)는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그리고 『동국여지지』는 1656년 유형원 개인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지리지이다. 유형원이 홍주목 팔봉산과 용봉사를 소개하면서 이서의 시를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서가 쓴 시에 표현된 “삼면에 기이한 봉우리가 절을 둘러싸고(三面奇峯繞梵宮)” 내용 가운데 ‘범궁(梵宮)’은 곧 용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용봉사가 고려 말 ~ 조선 초기에 존재했었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용봉사가 있는 산은 고려 때 불린 ‘북산’과 조선 때 불린 ‘팔봉산’ 외에 ‘용봉산’이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가능하다면, **‘용봉산’ 지명은 앞의 용봉산 연혁에서 살펴본 17세기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즉 고려말 ~ 조선 초기에도 지엽적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제시된 사진은 이서의 시구(詩句)와 잘 어울린다. “삼면에 기이한 봉우리가 절을 둘러싸고, 천 길 험한 절벽은 구름 속에 들어갔네. 앞산은 툭 튀어 외로운 마을 저 멀리 있고, 가파른 비탈에 빙빙 돌아 길 하나 나 있네”



[그림 28] 용봉사와 옛 용봉사 터

[홍주이씨 이서]

한편 이서는 고려 충숙왕 복위 1년에 태어나 조선 태종 10년에 죽었다. 본관은 홍주(洪州). 자는 양백(陽伯) 또는 맹양(孟陽), 호는 당옹(堂翁)·송강(松岡). 고려 고종 때 시중(侍中)을 지낸 연수(延壽)의 6세손이며, 연경궁제학(延慶宮提學) 기종(起宗)의 아들이다. 홍주를 관향으로 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부터이다. 홍주이씨(洪州李氏)의 시조 이유성(李維城)은 고려시대 대장군(大將軍)을 지낸 이간(李幹)의 아들이다. 그는 고려 의종 명종 신종 희종 대에 걸쳐 활동하였는데, 서경부유수(西京副留守)와 정당문학(政當文學)을 거쳐 찬성사(贊成事)에 올랐다. 이유성의 4대손인 이연수(李延壽)는 고려 고종 3년 요(遼)의 침입 때 도지병마사(都知兵馬事)가 되어 이를 격퇴하였다. 또한 문하시랑(門下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文下平章事)와 판리부사(判吏部事)를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까지 올랐다. 그러나 시조부터 8세조 이영분(李永芬)까지의 계보는 알 수 없다. 그의 9세손인 이기종(李起宗)이 내시연경궁제학(內侍延慶宮提學)을 지내고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봉해졌는데, 이러한 연유로 후손들은 본관을 홍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관직 생활]

1357년(공민왕 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군부좌랑(軍簿佐郎)에 이르렀으나,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문란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생활을 하였다.

1376년(우왕 2) 우헌납에 임명되었으나 노부모의 봉양을 이유로 거절하고, 친상(親喪) 때에는 6년간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다.

1388년 내부소윤(內府少尹)에 임명되었으나 상(喪)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국가에서는 그의 효행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정문을 세워 주었다. 이해 겨울 이성계(李成桂)가 실권을 장악하자, 유일인사(遺逸人士)로서 그를 선발하여 내서사인(內書舍人)에 제수하였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右司議)에서 좌천되어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임명되었다.

1392년(태조 1) 이성계 추대에 참여하여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안평군(安平君)에 봉해지고 형조전서(刑曹典書)에 임명되었다.

1394년 사헌부 대사헌이 되고, 1396년 신덕왕후(神德王后)가 죽자 3년간 정릉(貞陵)을 수묘(守墓)하였다.

1398년에 참찬문하부사에 오르고, 1400년 태종이 즉위하자

문하시랑찬성사에 이어 우정승으로 부원군(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이해 고명사(誥命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이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1402년(태종 2)사임하고, 앞서 1398년 왕자의 난 때 상심하여 함흥에 가 있던 태조를 중 설오(雪悟)와 함께 안주(安州)에 나가 맞아 귀경하였다.³¹⁾

1404년 다시 우정승이 되었다.

1405년 75세의 고령으로 치사(致仕)하였다가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기로소에 들어간 뒤 만년을 향리에서 보내다가 죽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함흥차사(咸興差使)]

태상왕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향한 것은 1402년(태종 2) 11월 1일이었다. 11월 3일에 차사로 갔다가 11월 5일에 돌아온 김완의 보고에 의하면 태상왕이 동북면으로 향한 이유가 선조(先祖)의 능들을 참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서가 태상왕의 행재소에 갔던 상황이다. 11월 15일, 안평부원군 이서는 승려 익륜(益倫)·설오(雪悟)와 함께 태상왕의 행재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들은 모두 태상왕께서 평소에 공경하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월 24일, 이들은 철령까지 갔다가 길이 막혀서 태상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11월 27일, 조사의의 반란군이 크게 무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같은 날, 내관 노희봉(盧希鳳)이 태상왕의 행재소에 가서 문안하였고, 11월 28일에는 안평부원군 이서와 승려 설오가 궁온(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려 주는 술)을 가지고 태상왕의 행재소에 가서 문안하였다. 그리고 이서와 태상왕의 만남은 조사의의 난이 결정적으로 패퇴한 상황에서 태상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같은 날, 연산부사 우박(禹博)이 태종에게 태상왕의 회가(回駕)를 보고하였고, 12월 2일, 태상왕의 어가가 평양부로 옮겨진 후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태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동북면에 있을 때, 전 정승 이서와 대선사 익륜·설오가 문안하러 왔을 때, 모두 내가 믿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라고 하였다. 12월 7일, 조사의가 체포되어 압송된 후 다음 날 태상왕이 한양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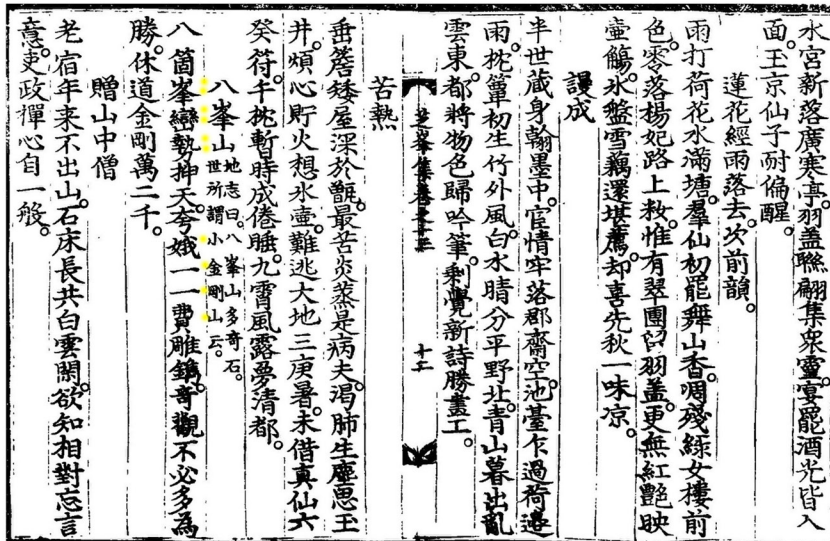
31) ① 『태종실록』 2년 11월 28일 (정미) 이서와 승려 설오를 태상왕의 행재소에 보내다.

② 『태종실록』 10년 9월 9일(계유) 안평부원군 이서의 줄기

나. 이수광과 용봉산

▣ 팔봉산(八峯山)

이수광(李睟光)의 ‘팔봉산(八峯山)’ 시는 『지봉집(芝峯集)』 제13권,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제3권 충청도 우도(右道) 홍주진(洪州鎭) 홍주목(洪州牧) 산천(山川)에 기록되었다. 『동국여지지』에 따르면, “팔봉산(八峯山)은 주 북쪽 8리에 있다. 일명 용봉산(龍鳳山)이라고 한다. 산 위로 석봉(石峯)이 마치 툇니처럼 나란히 솟아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소금강(小金剛)이라고 일컫는다. 또 장군석(將軍石)이 있는데, 고려 최영(崔瑩)이 일찍이 노닐고 쉬던 곳이므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지봉집』에는 “팔봉산은 기암괴석이 많으니, 세간의 이른바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는 곳이다.”라고 하였다.³²⁾



[그림 29] 『지봉집』에 기록된 이수광의 시 ‘팔봉산’

여덟 개 산봉우리 기세가 하늘 찌르니 / 八箇峯巒勢插天
 과아가 하나하나 공들여 다듬었겠지 / 夸娥一一費雕鐫
 기이한 경관 굳이 많을 것 뭐 있나 / 奇觀不必多爲勝
 금강산 일만 이천 봉 말하지 말게나 / 休道金剛萬二千

32)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과아(夸娥) :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설화에 나오는 전설상의 대력신(大力神)으로, 과아(夸娥)라고도 한다. 옛날 북산(北山)의 우공(愚公)이 자자손손 자기 집 앞을 가리고 있는 산을 옮기려하자, 천제(天帝)가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과아씨(夸娥氏)의 두 아들에게 명해서 산을 옮겨 놓게 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列子 湯問》



[그림 30] 이수광의 팔봉산 시구(詩句)를 볼 수 있는 용봉산 능선

이수광(李睟光, 1563 명종 18 ~ 1628 인조 6)³³⁾은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芝峯)이다. 아버지는 병조판서 이희검(李希儉)이며,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이다. 조선시대 공조참판, 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세 차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인조반정 후 고위직을 지내며 시무책 12조를 올렸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광해군 재위기의 정치적 갈등 같은 어려운 정국에도 당쟁에 휩쓸리지 않았다. 1614년(광해군 6)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을 편찬하면서 서양문물과 『천주실의』 등 천주교 교리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조선후기 실학파의 선구적 인물로, 사상사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직 생활]

1578년(선조 11) 초시에 합격하고, 1582년 진사가 되었다. 1585년(선조 18) 승문원부정자가 되었으며, 1589년 성균관전직을 거쳐 이듬해 호조좌랑 병조좌랑을 지냈고,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방어사 조경(趙敞)의 종사관이 되어 종군하였으나, 아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 의주로 돌아가 북도선유어사(北道宣諭御史)가 되어 함경도 지방의 선무 활동에 공을 세웠다.

1597년 성균관대사성이 되었으며,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명나라 서울에서 중극전(中極殿)과 건극전(建極殿) 등 궁전이 불타게 되자 진위사(陳慰使)로서 명나라를 다녀왔다. 이때 명나라 서울에서 안남(安南: 베트남)의 사신을 만나 화답하면서 교유했다. 1601년 부제학이 되어 『고경주역(古經周易)』을 교정했고, 이듬해 『주역언해(周易諺解)』를 교정했으며, 1603년 『사기(史記)』를 교정하였다.

1605년 조정 관료들과 뜻이 맞지 않아 안변부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으며, **1607년 겨울 홍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1609년(광해군 1) 돌아왔다.** 1611년 왕세자의 관복(冠服)을 주청하는 사절의 부사로 다시 명나라를 다녀왔다. 이때 유구(琉球) 사신과 섬라(暹羅: 타이) 사신을 만나 그들의 풍속을 듣고 기록하였다.

1616년 정국이 혼란해지자 순천부사가 되어 지방관으로 나가 지방행정에 전념하였다. 1619년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수원에 살면서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도승지 겸 홍문관제학으로 임명되고, 대사간·이조참판·공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625년(인조 3) 대사헌으로서 왕의 구언(求言)에 응해 열 두 조목에 걸친 「조진무실차자(條陳懋實箚子)」를 올려 시무를 논하여 당시 가장 뛰어난 소장(疏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628년 7월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그 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 산중의 승려에게 주다〔贈山中僧〕³⁴⁾

노숙이 연래에 산을 나서지 않으니 / 老宿年來不出山
석상에서 언제나 백운과 한가하구려 / 石床長共白雲閑
마주하여 말을 잊은 의미를 알고프면 / 欲知相對忘言意
이정이나 선심이나 본래 같아서라오 / 吏政禪心自一般

34)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노숙(老宿): 나이가 많고 덕행이 높은 승려

*마주하여 …… 같아서라오 : 서로 마주하여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정사를 하는 지붕이나 참선하는 승려나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원문의 ‘망언(忘言)’은 뜻을 깨달으면 언어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자(莊子)》〈외물(外物)〉에 “말이란 그 목적이 뜻에 있는 것이니, 뜻을 얻으면 말을 잊는다.[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용봉사(龍鳳寺)³⁵⁾

나그네가 오래된 절에 찾아오니 / 客來僧殿古
이끼가 텅 빈 마당을 덮었구나 / 苔沒佛庭空
새 발자국 천서는 괴상도 하고 / 鳥跡天書怪
달팽이 침 벽화는 솜씨도 좋다 / 蝸涎壁畫工
봉우리는 높이 해를 가리고 / 石峯高障日
나무는 서늘하게 바람에 운다 / 山木冷吟風
하여 사미에게 말을 하노니 / 爲向沙彌道
나도 여기에서 늙어가려한다고 / 吾將老此中

*새 … 하고 : 사찰 마당에 어지럽게 찍힌 새 발자국을 두고 한 말.

새 발자국을 글자에 비유한 것은 황제(黃帝) 때의 사관(史官)인 창힐(蒼頡)이 일찍이 새 발자국을 보고 최초로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천서(天書)’는 하늘에서 내려온 글로,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나 어렵고 정신없는 글을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새 발자국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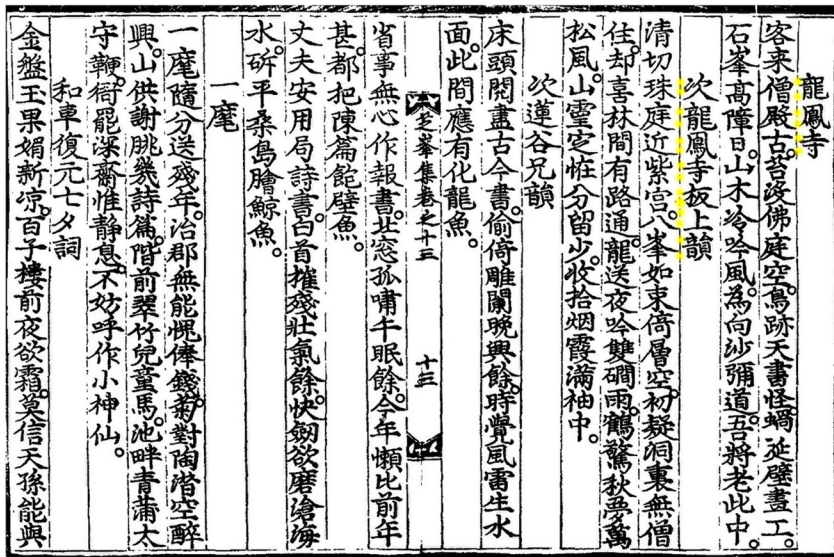
*달팽이 … 좋다 : 사찰 벽에 얼룩덜룩 자국이 난 달팽이 흔적을 두고 한 말. 원문의 ‘와연(蝸涎)’은 달팽이가 지나가며 흘린 점액을 가리킨다.

▣ 용봉사에 걸린 편액의 시에 차운하다[次龍鳳寺板上韻]³⁶⁾

말디많은 옥 같은 사원 자궁에 가까운데 / 清切珠庭近紫宮
묵은 듯한 여덟 봉우리 허공에 기대었구나 / 八峯如束倚層空
굴짜 속에 사는 승려가 없는가 싶었더니 / 初疑洞裏無僧住
숲 사이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기뻐다오 / 却喜林間有路通
용이 밤중에 우니 양 계곡에 비 내리고 / 龍送夜吟雙澗雨
학이 가을에 놀라니 만 숲에 바람 부누나 / 鶴驚秋夢萬松風
산령이 분명 의혹하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 山靈定怪分留少
소매 가득 연하를 죄다 거두어 갔다고 / 收拾煙霞滿袖中

35)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36)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그림 31] 『지봉집』에 기록된 이수광의 시 '용봉사' '용봉사 편액의 시에 차운하다'

*맑디맑은 … 가까운데 : 풍광이 빼어난 용봉사를 선인(仙人)의 거처에 빗대어 한 말이다. 원문의 ‘주정(珠庭)’은 옥으로 된 정원으로, 신선의 궁정(宮庭)이나 선경(仙境)을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용봉사를 두고 한 말이다. ‘자궁(紫宮)’은 성좌(星座) 이름으로 자미궁(紫微宮) 자미원(紫薇垣)이라고도 하는데, 전설상의 천제(天帝)가 사는 궁전을 가리킨다.

*용이 … 내리고 : 예부터 용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불러온다고 하는바, 밤중에 용봉사 양 계곡에 비가 내리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학이 … 부누나 :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잠자던 학이 놀라 깨어난다는 말, 학은 사물의 변화에 민감하여 가을이 되면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진(晉)나라 주처(周處)의 《풍토기(風土記)》에 “학은 성품이 조심스러워 팔월에 이슬이 내려 풀잎 끝에 흐르며 방울방울 소리를 내면 즉시 소리 높이 울어 서로 경계하며 머물던 곳을 옮기니, 이는 사물의 변화에 해를 당할까 염려해서이다.〔此鳥性警，至八月白露降，流於草上，滴滴有聲，因即高鳴相警，移徙所宿處，慮有變害也.〕”라고 하였다.

*산령이 … 갔다고 : 용봉사를 다녀간 시인들이 이곳의 풍광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소매 가득 모두 거두어 가버렸으므로 산신령이 틀림없이 괴이하게 여길 것이라는 뜻으로, 편액의 시가 용봉사의 풍광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읊어 후인이 더 이상 읊을 거리가 없다고 탄식하여 한 말이다.

□ 용봉사의 옛 유람을 추억하며〔憶龍鳳舊遊〕³⁷⁾

37)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가장 좋다 손꼽히는 용봉산이니 / 第一山龍鳳
 푸르른 바위 봉우리 몇 층이던고 / 巖巒翠幾層
 저물녘 종소리에 절이 있음 알았건만 / 暮鍾知有寺
 텅 빈 뜨락이라 승려가 없나 싶었다오 / 空院訝無僧
 부처의 자리는 황금의 땅이요 / 佛坐黃金地
 선승의 창에는 백일의 등이로다 / 禪窓白日燈
 지금도 이내 몸 한밤중 꿈속에 / 只今中夜夢
 달빛 타고 등장으로 나를 건넌다오 / 和月度溪藤

*부처의 … 땅이요 : 용봉사가 부처를 모신 사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원문의 ‘황금지(黃金地)’는 불사(佛寺)를 가리킨다. 인도(印度)의 수달 장자(須達長者)가 석가(釋迦)의 설법을 듣고 매우 경모한 나머지, 정사(精舍)를 세워 주려고 기타 태자(祇陀太子)의 원림(園林)을 구매하려 하자, 태자가 장난삼아 “황금을 이 땅에 가득 깔면 팔겠다.”라고 하였는데, 수달 장자가 실제로 집에 있는 황금을 코끼리에 싣고 와서 그 땅에 가득 깔았다. 이에 태자가 감동하여 땅을 매도하는 한편, 자기도 원중(園中)의 임목(林木)을 희사하여 마침내 최초의 불교 사원인 기원정사(祇園精舍)를 건립했다는 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大唐西域記 卷6》

*선승(禪僧)의 … 등(燈)이로다 : 선방(禪房)의 승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佛法)에 용맹 정진한다는 말이다. ‘등’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불법을 비유할 때 흔히 쓰인다.

*등장(藤杖) : 등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가리킨다.

▣ 용봉사를 추억하며. 앞의 시에 차운하다〔憶龍鳳寺次前韻〕³⁸⁾

이끼 낀 산길을 걸어서 올랐나니 / 踏破蒼苔逕
 신령한 봉우리 가장 높은 곳이라오 / 靈峯最上層
 소나무가 차가워 깃든 학이 없고 / 松寒無宿鶴
 숲이 저물자 돌아오는 중이 있었네 / 林暝有歸僧
 지는 낙엽은 바람 비가 쓸어가고 / 落葉風爲帚
 텅 빈 선방에는 달 등이 비추었지 / 空堂月作燈
 맑은 유람 오래도록 눈에 선하니 / 清遊長在目
 휘파람을 불며 고등에 기대었다오 / 一嘯倚枯藤

*앞의 시 : ‘용봉사의 옛 유람을 추억하며〔憶龍鳳舊遊〕’를 가리킨다.

*고등(枯藤) : 고등장(枯藤杖)으로, 묵은 등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가리킨다.

38)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 용봉사 독서생 진영(龍鳳寺讀書生陳穎)³⁹⁾

지봉집 제20권 별록(別錄)에 실린 글이다. “내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 용봉사에서 글을 읽던 진영(陳穎)이란 유생이 있었는데, 나에게 시를 지어 보내 종이를 부탁하기를 운손이 빈궁함을 싫어해 날 배반하고, 홍주로 숨어들어 지동에서 지낸다고. 그 어미 시금이 이제 잡으러 가니, 목관은 너그러이 내게 보내도록 명해주오. 하였다. 이에 내가 종이를 그에게 보내 주고 이어 다음과 같이 장난삼아 시를 지었다[余倅洪陽日有龍鳳寺讀書生陳穎 以詩索紙曰 雲孫叛我厭貧苦 潛隱洪陽紙洞居 厥母詩今今捉上 牧官垂恕命歸余 余以紙束歸之 仍戲成云]

- ‘지동(紙洞)’이란 홍주(洪州)의 종이를 만드는 곳이다. -”

비는 바로 구름의 아들이니 / 雨者雲之子
 운손은 비의 아들이 된다고 / 雲孫爲雨子
 선조 계통이 섬계에서 나오는데 / 本系出剡溪
 어느 해에 처음 이곳으로 왔는가 / 何年始來此
 살결은 빙설처럼 새하얗 / 肌膚若冰雪
 티 한 점 없이 깨끗하니 / 潔淨少塵滓
 혁제는 가장 하등한 자질이고 / 赫蹄最下材
 측리도 참으로 천한 부류로다 / 側理眞賤類
 숨어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고 / 韜晦幾多時
 털고 닦아내니 이내 뜻에 맞구나 / 拂拭可人意
 내 지금 운손을 그대에게 보내노니 / 我今起送君
 오직 그대가 부리는 데 달려 있다오 / 惟君之所使
 저 진현이며 모영이야말로 / 陳玄與毛穎
 그대의 성명임을 알겠나니 / 知君姓名是
 같은 기운은 좋이 서로 찾는 법 / 同氣好相求
 문방의 벗이 이제 갖추어지겠구려 / 文房友足備
 모름지기 막역한 도홍도 불러와 / 唯須喚陶泓
 붓을 적서 글을 지어야 할지니 / 點染作文字
 순식간에 백천 편이 이루어져 / 頃刻百千篇
 별안간 웅과 뱀이 꿈틀거리리라 / 倏若龍蛇戲
 듣자니 운손이 빈궁함을 싫어한다던데 / 聞雲厭貧苦
 세리를 따르는 건 본디 인자상정이니 / 趨勢性所喜

39)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바라건대 그대는 운손을 잘 대해주어 / 願君善遇之
 다시는 딴 데로 도피하지 않게 해주오 / 勿使還逃避
예로부터 저 용봉사란 절에선 / 從來龍鳳寺
문장하는 선비가 많이 배출됐나니 / 蔚興文章士
그대는 부디 힘쓰고 힘쓸지어다 / 君乎尙勉旃
고관대작을 당장 얻을 수 있으리라 / 靑紫可立致
 혹여 운손에게 명할 수 있다면 / 倘能命雲孫
 부디 한번 시를 써서 부쳐주오 / 題詩一相寄

*《홍양지지(洪陽地志)》에 “용봉사(龍鳳寺)에서 글을 읽던 유생들이 과거(科擧)에 많이 급제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운운한 것이다.

*운손(雲孫)이 … 지낸다오 : ‘운손’은 종이를 후손으로 의인화한 말로, 유생 진영이 자신이 빈궁하여 종이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운손’의 ‘운(雲)’ 자는 종이의 의미로 쓰이는데, 구름 모양의 무늬가 있는 운지(雲紙), 당(唐)나라 단성식(段成式)이 만들었다는 운남지(雲藍紙), 조선 시대 경상도에서 공물(貢物)로 바친 운암지(雲暗紙) 등이 있다.

*그 … 명해주오 : ‘시금(詩今)’은 유생 진영이 종이를 부탁하는 자신의 시(詩)를 운손의 어미로 의인화한 것으로, 시를 지어 보내어 종이를 부탁하는 것을 그 어미가 지금 홍주 지동으로 숨어 지내는 아들 운손을 잡으러 간다고 표현하면서 홍주목사더러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 운손 즉 종이를 꼭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한 것이다.

*선조(先祖) … 나오는데 : 중국 최고의 종이 가운데 하나인 절강성(浙江省) 섬계(剡溪)에서 생산되는 등나무 껍질로 만든 섬계등(剡溪藤), 일명 계등지(溪藤紙)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살결은 … 새하얗 : 흰 종이인 ‘운손(雲孫)’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묘고야산에 신인이 사는데 살결은 빙설과 같고 부드러움이 처녀와 같다.[邈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綽約若處子.]”라고 한 데서 원용한 것이다.

*혁제(赫蹄)는 … 부류로다 : ‘혁제’는 혁제(赫蹏)와 같은 말로, 고대에는 글씨를 쓰는 데 썼던 폭이 좁은 비단을 지칭하였는데 후대에 와서는 작고 얇은 종이를 가리킨다. ‘측리(側理)’는 측리지(側理紙)라는 종이의 일종으로, 일명 태지(苔紙)라고도 한다. 남월(南越)을 비롯한 남쪽 지방에서 해태(海苔)를 재료로 삼아 만든 종이인데, 그 결이 종횡(縱橫)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혁제와 측리지를 운손 종지와 비교해 보면 그 품질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말한 것이다.

*저 … 알겠나니 : ‘진현(陳玄)’과 ‘모영(毛穎)’은 먹과 붓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사기(史記)》의 필법을 모방하여 붓을 소재로 <모영전(毛穎傳)>을 지으면서, 붓과 먹과 벼루와 종이 등 이른바 문방사우(文房四友)에 대해 각각 모영이자 관성자(管城子), 진현(陳玄), 도홍(陶泓), 저선생(褚先生)으로 의인화한 데에서 온 말이다. 《古文眞寶 後集

卷4 毛穎傳》여기서는 유생의 성(姓)이 ‘진(陳)’이고 이름이 ‘영(穎)’이므로 유생의 성명이 ‘진현’과 ‘모영’임을 알겠다고 한 것이다.

*같은 … 갖추어지겠구려 : 유생 진영(陳穎)이 홍주목사인 지봉에게 종이를 부탁한 결과 이제 얻게 되면 문방사우(文房四友) 가운데 진현(陳玄)인 먹, 모영(毛穎)인 붓, 운손(雲孫)인 종이가 갖추어지게 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원문의 ‘동기상구(同氣相求)’는 동류(同類)끼리 서로 기맥이 통하여 자연히 의기투합하는 것을 비유한 말로, 《주역》〈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찾게 마련이니, 이는 각자 자기와 비슷한 것끼리 어울리기 때문이다.[同聲相應, 同氣相求, ……則各從其類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도홍(陶泓) : 문방사우(文房四友) 가운데 벼루의 별칭이다.

*용과 뱀이 꿈틀거리리라 : 필력(筆力)이 마치 용이나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힘찬 것을 비유한 말이다. 송(宋)나라 장뢰(張耒)의 〈마애비후(磨崖碑後)〉 시에 “수부 원결(元結)의 흉중엔 별처럼 찬란한 문장이 있고, 태사 안진경(顏真卿)의 붓끝엔 용사 같은 글씨 있다네.[水部胸中星斗文, 太師筆下龍蛇字.]”라고 하였다.

*고관대작 : 원문의 ‘청자(靑紫)’는 푸른 인끈[靑綬]과 자주색 인끈[紫綬]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 구경(九卿)은 푸른 인끈을, 공후(公侯)는 자주색 인끈을 사용하였는데 전하여 고관대작의 뜻으로 쓰인다.

다. 정약용과 용봉산

▣ 용봉사에 들리[過龍鳳寺]⁴⁰⁾

서해의 지역이라 명산은 적고 / 西海寡名山
기름진 넓은 들만 깔리었는데 / 墳衍厚肌肉
뜻밖에도 본질을 탈바꿈하여 / 不圖蛻化骨
머리 빗고 몸 씻어 평지에 나와 / 梳洗出平陸
뭇 봉우리 드높이 솟아오르니 / 群巒起崕嶢
가팔라 투박한 살 털어버렸네 / 刻削散大朴
가녀린 꼴 금세 곧 소멸할 것만 / 廉纖欲銷滅
험난하여 또 다시 삼엄한 느낌 / 巖嶮復森束
놀란 기력 고개를 높이 쳐들고 / 驚鴻矯自舉
별난 귀신 엿보다 도로 엎드려 / 奇鬼伺還伏
아첨하는 간신은 참소 올리고 / 佞臣獻側媚
경망한 아녀자가 독기 품은 듯 / 儂女含慍毒
생김새 그야말로 특이하구나 / 制造信崎崛
온갖 형태 보는 눈 휘둥그레져 / 百態紛駭矚

40)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다산시문집 제2권 시(詩), 홍주에서 북쪽으로 10리 지점에 있다.

따르는 종 나에게 말해주기를 / 僕夫向余言
 절간 하나 골짜기에 들어있다나 / 蘭若在中谷
 말을 내려 지팡이 들고나서니 / 下馬理輕策
 관원 신분 생각을 할 게 뭐 있나 / 豈復念緋玉
 긴 그늘 높은 언덕 내리덮이고 / 脩陰下曾阜
 비단 돌 시내 굽이 깔리었는데 / 錦石委澗曲
 서릿발 살짝 덮은 드높은 바위 / 巖峭經微霜
 푸른 대에 끼어든 붉은 담쟁이 / 紅薜間翠竹
 절간이 나뭇가지 위에 나오니 / 禪樓出樹杪
 싸늘한 정경에도 반갑고말고 / 滄涼便悅目
노승이 하는 말이 절이 황폐해 / 老僧辭荒廢
이들 유숙 접대는 할 수 없다나 / 未足待信宿
깨진 대흙통 물줄기 아직 남았고 / 破甕餘點滴
낡은 절간 단청빛 흐려 어둡네 / 古殿暗丹綠
절간살이 내 이미 달갑잖은데 / 既不愛禪逃
어찌 굳이 중 따라 죽을 마시랴 / 詎必隨僧粥
 생각난다 지난날 우리 남고자 / 却憶南臯子
 어울려 화산 폭포 구경할 적에 / 與觀華山瀑
 흰 구름 산마루에 방랑을 하며 / 放浪白雲巔
 숲나무 진동하게 노래불렀지 / 吟嘯震林木
 그때 그 성대한 일 감탄겹거니 / 盛事足歎詫
 오늘날 매인 신세 가슴 아프네 / 俯念傷局促
 나그네 몸이 되어 떠돌다보니 / 棲棲作客旅
 고독한 사람 찾을 틈이 없구나 / 無人問幽獨
 이 때문에 또 깨친 사람이라야 / 所以靈悟人
 비로소 영에 치욕 같아지는 법 / 纔能齊寵辱

*남고자 : 윤지범(尹持範)을 가리킴.

▣ 목재계 올리는 글⁴¹⁾

다산시문집 제19권 서(書)에 있는 글이다. “일전에 덕을 방문하여
 덕용(德容)을 우러러 뵈는 적에 가르치신 말씀이 온화하고 곡진하시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계발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돌아와서도 마음

41)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산(禮山)을 통하여 들으니 환후가 아직 낫지 않으셨다 합니다. 이는 필시 노인의 원기가 젊은 사람과 같지 않은데 공궤(供饋)하는 음식이라고는 모두 거친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삼(人蔘) 몇 돈을 달여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니, 구할 수만 있다면 찰방(察訪)의 봉록이 아무리 적지만 어르신네의 근심을 끼쳐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용봉사(龍鳳寺)를 유람하였고, 일전에는 또 오서산(烏棲山) 정상까지 올라가서 천정암(天井庵)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을 경치를 구경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용봉사는 황폐하여 머물 만하지 못했고**, 천정암은 너무 높아서 오르기가 어려웠는데, 오직 내원사찰(內院寺刹) 한 곳만이 약간 넓고 편안했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찰까지는 20리이고, 인리(仁里)에서도 60리 거리이니, 환후를 회복하신 뒤에 우성(虞成) 등 몇 사람과 더불어 《가례질서(家禮疾書)》와 기타 긴요한 책들을 훑어지고 바로 절로 가서서 중을 시켜 저에게 기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묵(紙墨)과 양식의 비용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⁴²⁾

42) 1795년(정조 19) 34세 때 7월 26일, 주문모입국사건으로 금정도(金井道) 찰방(察訪)으로 외보(外補)되었다. 이때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 성호 이익의 종손)에게 청하여 온양의 석암사(石巖寺)에서 만났는데, 당시 내포(內浦)의 이름 있는 집 자제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날마다 수사(洙泗)의 학(學)을 강학하고, 사칠(四七)의 뜻과 정전(井田)의 제도에 대해서 물었으므로 별도로 문답을 만들어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를 지었다.(『경세유표』 다산 정약용 연보, 한국고전종합DB)

Ⅱ

용봉산과
불교문화유산

1. 용봉사(龍鳳寺)

가. 연혁

용봉사는 홍성읍 조양문에서 북쪽으로 약 6km 거리에 있으며, 직선거리는 약 5.4km이다.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의 말사이다. 용봉산의 정상에서 용봉사가 있는 곳까지 산줄기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홍성의 진산 백월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용봉산 정상에서 우뚝 솟으며 여러 산줄기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중심 줄기가 북쪽으로 이어지며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노적봉, 악귀봉, 용바위를 만든다. 용바위에서 중심 산줄기는 예산군 덕산면의 수암산을 향해 이어지고, 한 줄기는 남쪽으로 돌아 흘러내리면서 용봉사가 자리한 곳에서 멈추며 계곡을 만든다.



위 [그림 32] 용봉사(북쪽→, 구글어스 활용 편집)

[그림 33] 용봉사와 옛 용봉사 터

용봉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선 전기에 『동국여지승람』과 이를 증수하여 1530년에 편찬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용봉사’의 연혁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⁴³⁾를 정리한 것이다.

①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

○ 佛願大伯士元烏法師,

○ 香徒官人長琮大舍(용봉사마애불 조상기)

② 이서(李舒)의 시

(『동국여지』 제3권 충청도 우도 홍주진 홍주목 사찰)

삼면에 기이한 봉우리가 절을 둘러싸고,

천 길 험한 절벽은 구름 속에 들어갔네.

앞산은 툭 튀어 외론 마을 저 멀리에 있고,

가파른 비탈에 빙빙 돌아 길 하나 나 있네.

권상이 일찍이 노닐고 흔적을 남겼으니,

공무 보다가 어디에서 고상한 풍경도 꿈꾸셨나.

자리에 불어오는 솔바람 소리 청량하니,

세상의 근심들 마음속에 근접 못 하네.⁴⁴⁾

③ 청송사(靑松寺) 용봉사(龍鳳寺) 모두 팔봉산(八鳳山)에 있다. 영봉사(靈鳳寺) 팔봉산(八峯山)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 충청도 홍주목 불우佛宇)

먼저 살펴볼 사료는 ‘사료 ③’ 조선 전기 1530년에 편찬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용봉사는 팔봉산에 있고, 청송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모두 팔봉산에 있는 절이지만 청송사와 용봉사는 함께 기록했고, 영봉사는 달리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이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증수(增修)한 것이니까 15세기 무렵이면 용봉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용봉사보다 청송사가 앞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청송사가 더 크거나 중요한 절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한편 앞의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이 사료 ①과 ②이다. 그중에 사료

43)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44) 三面奇峯繞梵宮, 千尋峭壁入雲空, 前山開豁孤村迥, 絕磴縈迴一徑通, 權相曾遊遺舊跡, 行公何處想高風, 坐來松吹清人耳, 世慮不干方寸中.

②는 1656년 유형원 개인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지리지인 『동국여지지』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었던 이서(李舒)가 살았던 시기가 1332년(충숙왕 복위 1)부터 1410년(태종 10)까지 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서가 쓴 시의 표현 가운데 “三面奇峯繞梵宮(삼면에 기이한 봉우리가 절을 둘러싸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한자어 표현 중 ‘범궁(梵宮)’은 범각(梵閣)과 함께 ‘절’을 의미한다. 즉 이 시에서는 용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형원이 『동국여지지』 홍주목 팔봉산의 용봉사를 소개하면서 이서의 시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봉사는 이서가 살던 고려 말 ~ 조선 초기에도 존재했었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용봉사가 있는 산은 고려 때 불린 ‘북산’과 조선 때 불린 ‘팔봉산’ 외에 ‘용봉산’이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능하다면, ‘용봉산’ 지명은 앞의 용봉산 연혁에서 살펴본 17세기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즉 고려말 ~ 조선 초기에도 지엽적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서는 어떻게 용봉사와 인연이 있었을까? 이는 홍주목사를 지낸 지봉 이수광의 시를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용봉사 독서생 진영(龍鳳寺讀書生陳穎)⁴⁵⁾

“내가 홍주목사로 있을 때 용봉사에서 글을 읽던 진영(陳穎)이란 유생이 있었는데, 나에게 시를 지어 보내 종이를 부탁하기를 운손이 빈궁함을 싫어해 날 배반하고, 홍주로 숨어들어 지동에서 지낸다오. 그 어미 시금에 이제 잡으러 가니, 목관은 너그러이 내게 보내도록 명해주오. 하였다. 이에 내가 종이를 그에게 보내 주고 이어 다음과 같이 장난삼아 시를 지었다.”⁴⁶⁾(지동紙洞은 홍주의 종이를 만드는 곳이다.)”

비는 바로 구름의 아들이니 / 雨者雲之子
 운손은 비의 아들이 된다오 / 雲孫爲雨子
 선조 계통이 섬계에서 나오는데 / 本系出剡溪
 어느 해에 처음 이곳으로 왔는가 / 何年始來此
 살결은 빙설처럼 새하얗 / 肌膚若冰雪
 티 한 점 없이 깨끗하니 / 潔淨少塵滓
 혁제는 가장 하등한 자질이고 / 赫蹄最下材

45)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지봉집』 제20권 별록(別錄)에 실린 글이다.

46) 余倅洪陽日 有龍鳳寺讀書生陳穎 以詩索紙曰 雲孫叛我厭貧苦 潛隱洪陽紙洞居 厥母詩今今捉上 牧官垂慈命歸余 余以紙束歸之 仍戲成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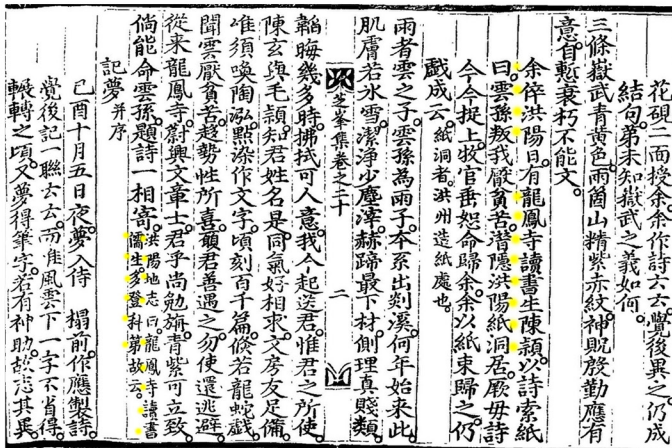
측리도 참으로 천한 부류로다 / 側理眞賤類
 숨어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고 / 韜晦幾多時
 털고 닦아내니 이내 뜻에 맞구나 / 拂拭可人意
 내 지금 운손을 그대에게 보내노니 / 我今起送君
 오직 그대가 부리는 데 달려 있다오 / 惟君之所使
 저 진현이며 모영이야말로 / 陳玄與毛穎
 그대의 성명임을 알겠나니 / 知君姓名是
 같은 기운은 좋이 서로 찾는 법 / 同氣好相求
 문방의 벗이 이제 갖추어지겠구려 / 文房友足備
 모름지기 막역한 도흥도 불러와 / 唯須喚陶泓
 붓을 적서 글을 지어야 할지니 / 點染作文字
 순식간에 백천 편이 이루어져 / 頃刻百千篇
 별안간 용과 뱀이 꿈틀거리리라 / 倏若龍蛇戲
 듣자니 운손이 빈궁함을 싫어한다던데 / 聞雲厭貧苦
 세리를 따르는 건 본디 인자상정이니 / 趨勢性所喜
 바라건대 그대는 운손을 잘 대해주어 / 願君善遇之
 다시는 만 데로 도피하지 않게 해주오 / 勿使還逃避
예로부터 저 용봉사란 절에선 / 從來龍鳳寺
문장하는 선비가 많이 배출됐나니 / 蔚興文章士
그대는 부디 힘쓰고 힘쓸지어다 / 君乎尙勉旃
고관대작을 당장 얻을 수 있으리라 / 靑紫可立致
 혹여 운손에게 명할 수 있다면 / 倘能命雲孫
 부디 한번 시를 써서 부쳐주오 / 題詩一相寄

『홍양지지(洪陽地志)』에 “용봉사(龍鳳寺)에서 글을 읽던 유생들이 과거(科擧)에 많이 급제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운운한 것이다.

앞의 사료 ④는 지봉 이수광이 홍주목사로 있을 때의 일을 적은 글이다. 『지봉집』 제13권 「홍양록」을 설명한 글에 따르면, 홍양은 홍주의 별칭이며, 이수광이 「홍양록」을 쓴 것은 무신년(1608, 선조41) 1월부터 기유년(1609, 광해군1) 4월까지이다.⁴⁷⁾ 또한 「홍양록」 속의 홍주목 읍지인 『홍양지지』에 의하면, 용봉사는 유생들이 과거 공부를 위해 애용했던 곳으로 유명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수광은 용봉사에서 공부하던 독서생 진영(陳穎)의 글에 답하면서 “... 예로부터 용봉사는 문장 짓는 선비를 많이 배출하였으니,

47) 「洪陽錄」洪陽洪州別名 起戊申正月 止己酉四月

그대는 부디 힘쓰고 힘쓸지어다. 고관대작을 당장 얻을 수 있으리라…”라고 진영의 힘을 북돋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림 34] 용봉사 독서생 진영(陳穎)

이와 같은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용봉산을 비롯한 그 주변에 많은 절이 있었는데, 오직 용봉사만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 특히 정치 사상에서 불교가 밀려나고,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들어선 과정에서 태종과 세종을 거치는 사이에 많은 절이 폐사(廢寺)하는 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용봉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아마도 폐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이유를 이수광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용봉사는 사찰로서의 성격 외에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이 늘 용봉사에 있었고, 이곳에서 공부한 유생 가운데 조선을 일으킨 개국공신인 ‘이서’처럼 과거에 합격하여 높은 관직까지 오른 유생을 끊임없이 배출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료 ②를 다시 생각해 보자. “삼면에 기이한 봉우리가 절을 둘러싸고 … 세상의 근심들 마음속에 근접 못 하네.”라는 내용을 보면, 용봉사는 산속에 있어 세상의 근심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용봉사에서 공부한 이서는 1357년(공민왕 6)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하게 된다. 1392년(태조 1)에는 이성계 추대에 참여해, 조선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안평군(安平君)에 봉해지고,

형조전서(刑曹典書)에 임명되었다. 1402년(태종 2)에 사임한 이서는 1398년 왕자의 난 때 상심해 함흥에 가 있던 태조를 중 설오(雪悟)와 함께 안주(安州)에 나가 맞아 귀경하게 했으며, 그 후 우정승, 영의정에 올랐고, 기로소에 들어간 뒤 만년을 향리에서 보내다가 죽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이와 같이 이서는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높은 관직을 역임하였다. 더불어 이서가 살던 조선 초기는 불교를 대신하여 성리학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많은 절이 폐사되었다. 이때, 용봉사도 폐사의 위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용봉사의 폐사 위기에 이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마도 다방면으로 용봉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을까? 나아가 그 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용봉사를 거쳐 간 유생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서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성리학 유생들이 과거 공부를 하는 용봉사는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한편 용봉사는 용봉사, 또는 다른 이름의 사찰로써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절의 운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 ①에서 볼 수 있는 ‘용봉사 마애불 조상기’의 내용 때문이다. 이는 옛 용봉사가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계곡 입구에 있는 용봉사 마애불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새겨진 글이다.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 ○佛願大伯土元烏法師, ○香徒官人長珙大舍” 이에 따르면, 용봉사 마애불은 정원(貞元) 15년, 즉 799년 신라 소성왕 1년에 원오법사의 발원과 향도(香徒) 장진 대사(大舍)의 후원을 받아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용봉사 마애불과 마애불 조상기(왼쪽)



[그림 36] 상하리 마에보살입상(왼쪽)·상하리사지1 출토 금동보살입상 (가운데,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상하리사지4 출토 석조여래입상(오른쪽)

그렇지만 용봉사와 용봉사 마애불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다. 다만 바로 인접한 용봉사 동남쪽 빈절골에 있는 상하리 마에보살입상⁴⁸⁾이 상하리사지 입구에 만들어진 것처럼, 용봉사 마애불도 단독으로 조성되지 않고, ‘절 입구에 새겨진 마애불’이라면, 옛 용봉사 터를 중심으로, 또는 그 위에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곳을 포함하는 공간에 통일신라시대부터 절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 상하리사지』 발굴보고서⁴⁹⁾에 제시된 일련의 내용은 용봉사, 또는 용봉사가 있었던 자리에 존재했던 절의 운영 시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상하리사지1(=빈절골사지)이다. 상하리사지1에 있었던 절은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입상이 9~10세기에 해당하고, 인화문토기, 선문계 기와편 등도 유사한 시기로 편년되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말에는 사찰이

48)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인 홍성 상하리 마에보살 입상은 상하리사지, 또는 빈절골사지로 알려진 옛 절터의 입구에 세워진 높이 4m, 너비 1.3m의 마에보살상이다.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고, 옷이 어깨를 덮고 있으며, 오른손은 무릎 옆에 두고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있다. 낮은 돌을 새김으로 가늘게 뜬 눈과 넓적한 얼굴, 하체로 갈수록 간략한 선으로 표현한 방식 등이 학술적 및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얼굴의 이목구비 표현과 보관 양식의 특징, 장식성이 배제된 원형 광배 등을 볼 때, 9~10세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49)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홍성 상하리사지』,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운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더불어 상하리사지¹ 계곡 입구에 있는 상하리 마애보살입상도 9~10세기에 제작된 통일신라 불상 양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제작 시기는 나말여초로 추정하였다. 둘째는 용봉사가 있는 골짜기 입구 남쪽에 있는 상하리사지2(=용방치기사지) 관련 내용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두께 1.2~1.8cm 선문 기와 조각 등을 비롯한 통일신라 후기로 편년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절의 운영 시작 시기를 통일신라 후기로 추정하였다. 나아가 용봉사지에 있었던 절과 함께 통일신라 후기부터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셋째는 현재 국립공주박물관 옥외 전시장에 전시되고 있는 상하리사지4(=가마발골사지) 출토 석조여래입상이다. 불상의 옷주름 표현, 신체 윤곽이 드러난 양감 있는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지니는 나말여초~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앞에 제시된 일련의 자료는 모두 용봉산 동쪽에 위치하며, 현재 용봉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용봉사 마애불 ~ 용봉사 ~ 옛 용봉사 터 ~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역(寺域)에는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절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799년에 만들어진 용봉사 마애불이 있고,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께 1~2.1cm 선문 기와 조각과 두께 1.7cm 무문 기와 조각, 옛 용봉사 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께 1.4~1.6cm 선문 기와 조각 등이 통일신라 후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⁵⁰⁾



[그림 37]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수습 기와 조각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큰 무리가 없다면, 용봉사(또는 다른 이름의 사찰)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절을 짓고, 마애불도 새기며,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후 용봉사는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기를 극복하며 끊임없이 명맥을 잇고 있다. 이와

5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홍성 상하리사지』,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 총람』 증보판,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관련된 사료를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⑤ 용봉사(龍鳳寺), 용봉사에 걸린 편액의 시에 차운하다 [次龍鳳寺板上韻], 용봉사를 추억하며. 앞의 시에 차운하다[憶龍鳳寺次前韻](1608년~1609년, 『지봉집』 권13 「홍양록」에 실린 이수광의 시)⁵¹⁾
- ⑥ 용봉사(龍鳳寺) 팔봉산에 있다. 산의 형세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양인데, 절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청송사(靑松寺), 영봉사(靈鳳寺) 모두 팔봉산(八峯山)에 있다. 삼존사(三尊寺) 삼존산에 있다. 청광사(靑光寺) 주남쪽 15리, 청광산에 있다. 법화사(法華寺), 서방암(西方菴) 모두 월산(月山)에 있다.(1656년, 『동국여지』 제3권 충청도 우도 홍주진 홍주목 사찰)⁵²⁾
- ⑦ [贈學允上人. 用滄洲車僉上韻] 逢僧江國憶洪都 龍鳳山光水墨圖 惆悵十年南又北 白頭重對八峯無. 師 洪州人 住龍鳳寺.(1640년, 『동악선생집』 권12 「강도록(江都錄)」)⁵³⁾
- ⑧ [洪州 八峯山 龍鳳寺 新樓記] … 洪州治之北八峯山 有寺曰龍鳳寺之僧架樓於正殿前竹溪. 勳上人 以寺僧之言 句余記甚勤 乏措辭之名 又面勢之規模 庀材之多寡 爲日之久 近則不我諭. 只道太古始荆之 壬子灾鬱攸今新之. 余曰太古 麗季兩朝國師 俗氏 洪州人也. 至正間入中州霞霧山 參石屋和尚 佩密印 尋還海東 始開此山而居之. 此樓起太古後人踵新之 豈偶然哉 … (1772년 『백암집』)⁵⁴⁾
- ⑨ [八峯山題龍鳳寺], [八峯山龍鳳寺 次趙子服韻] 외 (1718년, 『학주선생전집』 권6 시)⁵⁵⁾
- ⑩ [寺刹] 龍鳳寺在八峯山 三尊寺在三尊山 觀音寺在象皇山 (1757년 1765년, 『여지도서』 홍주목)⁵⁶⁾
- ⑪ [寺刹] 靑松寺 今廢 靈鳳寺 今廢 龍鳳寺 俱在八峯山 (1799년 『범우고』 충청도 홍주)⁵⁷⁾

51) 조선 후기 이수광(1563, 명종 18 ~ 1628, 인조 6)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34년에 간행한 시문집.

52) 1656년 유형원(1622, 광해군 14 ~ 1673, 현종 14)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

53) 조선 후기 이안눌(1571, 선조 4 ~ 1637, 인조 15)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40년에 간행한 시문집.

54) 조선 후기 승려 성충(栢庵 性聰, 1631, 인조 9 ~ 1700, 숙종 26)의 시·기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

55) 조선 후기 김홍욱(1602, 선조 35 ~ 1654, 효종 5)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18년(숙종 44)에 손자 김두벽(金斗璧)이 간행한 시문집. 1873년(고종 10) 7대손 김만재(金萬載)가 중간하였다.

56) 1757년~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방지. 읍지

57)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는 절의 존폐 소재 연혁 등을 정리하여 1799년에 간행한 사적기

⑫ 十三日己未 … 本州修理工吏來待, 塗排政堂, … 塗排僧 龍鳳觀音兩寺舉行云.

(1801년, 순조 1, 『노상추 일기』 7-9 신유일기)⁵⁸⁾

⑬ 1872년 규장각본 「홍주지도」 북쪽(오른쪽)에 팔봉산 골짜기에 용봉사가 있다.

⑭ 1906년 충청남도지 중 홍주지도 북쪽(오른쪽)에 팔봉산 골짜기에 용봉사가 있다.



[그림 38] ⑬ 1872년 규장각본 「홍주지도」

⑭ 1906년 충청남도지 중 홍주지도

⑮ [사찰] 용봉사: 소재지 홍북면 상하리, 봉안 불상 수 금도금목질불 4좌, 건물 평수 2동 26평, 승려수 조선인 2, 유지 자원 답(畓) 28두5승락, 전(田) 2두3승락(1925년 『홍성군지』 권2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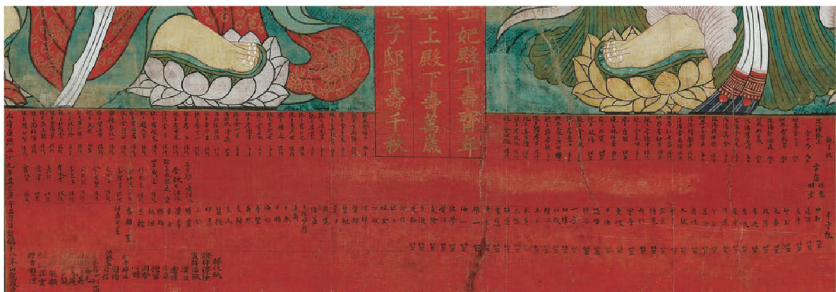
지금까지 조선 후기부터 1925년까지 용봉사와 관련된 사료와 지도 자료를 살펴보았다. 용봉사는 이서가 살았던 고려 말 ~ 조선 초부터 사찰의 기능뿐만 아니라 성리학 유생들의 과거 준비 장소로서 명맥을 이었고, 그 기능은 이수광이 홍주목사로 있었던 1608년~1609년에도 이어지면서 사찰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 이어 18세기에도 『여지도서』와 『범우고(梵宇攷)』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용봉사는 사찰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 1656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에 기록된 청송사(靑松寺)와 영봉사(靈鳳寺)는 보이지 않는다. 이 두 절은 1799년에 간행된 『범우고(梵宇攷)』에서도 지금은 폐사(廢寺)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팔봉산, 또는 용봉산에서 여러

58) 조선 후기 노상추(盧尙樞, 1746~1829)가 1763년부터 1829년까지 남긴 일기

절이 폐사되는 상황에서도 용봉사만큼은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06년의 『충청남도지』 중 「홍주지도」와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 나아가 현재에서도 같다.

그렇지만 용봉사의 사세(寺勢)는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1690년(숙종 16) 5월에 조성하여 팔봉산 용봉사에 봉안된 ‘용봉사영산회괘불탱’과 1795년(정조 19) 7월에 있었던 주문모입국사건 때문에 홍주목 산하 금정도(金井道) 찰방(察訪)으로 외보(外補)된 후 정약용이 홍주목의 용봉사에 들러 읊은 시를 살펴보자.

- ⑩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 施主秩 波蕩施主 金千乃 兩主, 供養 金卜立 兩主 … 拈寺秩 山中大德 性應 明彥 … / 緣化秩 證師 澤淨 漢日 … / 太淸康熙二十九年歲次庚午五月日留鎮于八峯山龍鳳寺(龍鳳寺 靈山會掛佛幀 畫記)⁵⁹⁾
- ⑪ 용봉사에 들러[過龍鳳寺]⁶⁰⁾ … 노승이 하는 말이 절이 황폐해, 이들 유숙 접대는 할 수 없다나, 깨진 대흙통 물줄기 아직 남았고, 낡은 절간 단청빛 흐려 어둡네, 절간살이 내 이미 달갑잖는데, 어찌 굳이 중 따라 죽을 마시랴 … (다산시문집 제2권 시)



[그림 39] 용봉사영산회괘불탱 화기(畫記) 부분(조사보고서에서 옮김)

사료 ⑩은 1690년(숙종 16) 5월에 조성하여 팔봉산 용봉사에 봉안된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의 화기(畫記) 중 일부이다. 화기는 불화 조성과 관련된 후원 내용과 후원자를 기록한 것이다. 후원자는 일반적으로 승려와

59) (사)성보문화재연구원, 2017, 「용봉사영산회괘불탱」,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19, 문화재청·(사)성보문화재연구원

60) … 老僧辭荒廢 未足待信宿 破甕餘點滴 古殿暗丹綠 既不愛禪逃 詎必隨僧粥 …(한국고전종합DB 자료를 활용함)

사민으로 크게 구분되며, 사민(士民)은 다시 관료 양반과 일반 상민으로 나뉜다. 이때 상민(常民)은 이름자 앞부분에 아무런 신분 표기 없이 끝부분에만 ‘…양주(兩主), …단신(單身), …영가(靈駕)’ 등을 표기하며, 관료 또는 양반은 이름자 앞부분에 판사(判事), 가선대부(嘉善大夫),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직사(直司, 司直), 사과(司果), 별장(別將), 참봉(參奉) 등의 신분을 분명하게 명기하였다고 한다.⁶¹⁾ 이로써 미루어 보면,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은 양반이나 관료의 후원 없이 일반 상민(常民)이 주로 참여하여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용봉사영산회괘불탱’에 참여한 화사(畫師)는 해숙(海淑), 한일(漢日), 처린(處璘), 수탁(守卓), 덕름(德凜), 경찬(炯璨), 심특(心特) 등인데, 현재까지 이들이 조성한 다른 불화는 알려진 것이 없다.⁶²⁾

그러면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의 제작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화기(畵記)에 따르면,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세자저하수천추(世子邸下壽千秋)”라고 하여, 왕, 왕비, 세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⁶³⁾ 이와 관련하여 숙종(1661 1720)의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⁴⁾

① 인경왕후

첫째: 공주(1677년 4월 27일 ~ 1678년 윤3월 13일)

둘째: 공주(1679년 10월 23일 ~ 10월 24일)

셋째: 유산

② 인현황후: 없음

③ 인원왕후: 없음

④ 희빈장씨

61) 김창균, 2005 「조선조 인조-숙종대 불화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논문.

62) (사) 성보문화재연구원, 2018,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19』, 「보물 제1262호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문화재청 (사) 성보문화재연구원

63) 숙종대왕의 **아들이 일찍 죽자** 거대한 불화를 그려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조선 숙종 16년(1690)에 승려화가 진간이 그렸는데, 영조 1년(1725)에 그림을 고쳐 그리면서 적어 놓은 글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있다.(국가유산포털)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이 괘불탱**은 세심한 필선의 형태 묘사, 파스텔 톤의 채색, 정밀한 문양 등이 조화를 이루어 차분한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나타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나무위키 등을 활용하여 편집함

첫째: 경종(1688, 숙종14 ~ 1724, 경종4)

둘째: 1690년 7월 19일 ~ 9월 16일

⑤ 숙빈최씨

첫째: 1693(숙종 19) 10월 6일 ~ 12월 13일

둘째: 연잉군 영조(1694, 숙종20 ~ 1776, 영조 52)

셋째: 왕자(1698 ~ 1698)

⑥ 명빈박씨

첫째: 연령군(1699, 숙종25 1719, 숙종45)

⑦ 영빈김씨: 없음

⑧ 소의유씨: 없음

⑨ 귀인김씨: 없음

앞에서 살펴본 숙종의 가계도에 따르면, 아들의 경우, 희빈 장씨로부터 낳은 첫째 아들이 경종(1688, 숙종14 ~ 1724, 경종4)이며, 둘째 아들은 1690년 7월 19일에 태어나서 9월 16일에 죽었다. 또한 숙빈최씨의 첫째 아들은 1693(숙종 19) 10월 6일에 태어나서 12월 13일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연잉군으로서 뒤에 영조(1694, 숙종20 ~ 1776, 영조52)가 된다. 그리고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은 “太淸 康熙二十九年 歲次 庚午 五月日 留鎮 于八峯山 龍鳳寺”라고 하여 **1690년(숙종 16) 5월에 팔봉산 용봉사에 봉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숙종의 가계(家系)와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이 봉안된 시기를 고려하면, 괘불탱이 일부 보고서에 나타나는 **‘숙종의 아들이 일찍 죽자 거대한 불화를 그려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했다.’**라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다. 숙종의 첫 번째 아들은 경종이고, 경종 앞에 있었던 숙종의 자식은 첫 번째 왕후인 인경왕후와 낳은 아이들로서 둘은 공주로서 요절하였고, 셋째는 유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의 제작 목적은 화기(畵記)의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인경왕후와 낳은 자식들이 모두 일찍 죽은 후, **1688년에 희빈장씨로부터 첫 번째 아들인 경종을 낳은 후의 일과 관련이 많기 때문이다.** 경종은 1688년(숙종 14) 10월 숙종과 희빈장씨에게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이름은 군(詢), 자는 휘서(輝瑞)이다. 백일이 되기 전에 원자로 명호(名號)가 정해졌고, **3세인 1690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이다.⁶⁵⁾ 요컨대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의 제작 목적은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제년(妃殿下壽齊年),

6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자저하수천추(世子邸下壽千秋)”, 즉 **왕·왕비·세자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 이렇게 중요한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이 당시의 지배층이 아닌 일반 상민(常民)들이 뜻을 모아 제작하였고, 화사(畫師) 또한 이 불화 외에는 다른 작품이 전하지 않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남아 있다. 다만 **용봉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 준비를 위한 장소 외에도 영험이 많은 곳으로 인식되어**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림 40] 용봉사영산회괘불탱 화기 부분
(조사보고서에서 옮김)

한편 사료 ⑰은 정약용이 34세인 1795년(정조 19)에 금정도(金井道) 찰방(察訪)으로 외보(外補)된 후 용봉사에 들러 읊은 시이다. 이에 따르면,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이후 1799년에 간행된 『범우고(梵宇攷)』에 기록되기까지 끊이지 않고 절의 운영이 있었지만, 용봉사의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 예컨대 용봉사의 겉모습은 정약용의 표현처럼 **깨진 대흙통 물줄기 아직 남았고, 남은 절간 단청빛 흐려 어두울 정도**였으며, 절의 살림살이는 “노승이 하는 말이 절이 **황폐해, 이를 유숙 접대는 할 수 없다**나, … 어찌 굳이 중 따라 죽을 마시랴.”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 후 용봉사는 폐사의 위기도 겪었다. 흥선대원군이 1846년에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 동쪽의 가야사(伽倻寺)를 폐사시키고 탑이 있던 자리에 남언군의 무덤을 옮겼던 것처럼, 용봉사도 평양조씨 희순의 자손들이 절을 빼앗고 그 중심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기 전 옛 용봉사는 현재의 용봉사에서 바로 서쪽에 인접한 대지 위, 즉 평양조씨 희순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용바위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 위치한 능선을 거쳐 이어진 곳에 조성된 옛 용봉사는 남향으로 동서 장축 약 40m, 남북 약 30m의 규모이다. 현재 절터의 중심부에는 평양조씨의 무덤이 있는데, 평양조씨 희순의 묘비명으로 보아 광무(光武) 10년(1906) 이전에 폐사된 듯하다.



[그림 41] 옛 용봉사 터, 절의 중심부에 평양조씨 무덤이 있다.(서쪽→동쪽)



[그림 42] 옛 용봉사지에 있는 평양조씨희순묘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용봉사 일주문이 있는 입구부터 옛 용봉사와 현 용봉사가 있는 일련의 구역이 아마도 광무(光武) 10년(1906) 전부터 평양조씨의 종산(宗山)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용봉사 일주문 동남쪽 아래 계곡의 큰 바위면에 새겨진 ‘조씨천(趙氏阡)’ 관련 비석 글을 살펴보자.([그림 43 44] 참조)



[그림 43] 용봉사 일주문(왼쪽 위)과 조씨천(趙氏阡) 바위(오른쪽 아래)



[그림 44] 용봉사 조씨천(趙氏阡) 관련 암각서(巖刻書) / 세부 내용(오른쪽)

용봉사 조씨천(趙氏阡) 암각서(巖刻書)는 큰 바위면 아래 단에 ‘조씨천(趙氏阡)’ 글자를 새기고, 그 위에 글자를 새긴 비석을 조각하였다. 아래 기단부에 사각형 받침대를 새기고, 그 위에 긴 직사각형의 비석 몸체를 구획하였으며, 가장 위에는 팔작지붕 모양의 이수를 새겼다. 비신(碑身) 안에 새겨진 글자는 마모가 심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비신(碑身) 왼쪽 끝에 “乾○○○○甲申四月日 三寶” 정도의 글자는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건(乾) 자는 건륭제(乾隆帝)의 ‘건(乾)’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청(淸) 고종 건륭제의 재위 기간이 1735년부터 1796년까지이며, 그중에 갑신년(甲申年)이면 건륭제(乾隆帝) 29년, 1764년(영조 40)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각에 무리가 없다면, 1764년(영조 40) 무렵에 용봉사 일주문부터 용봉사에 이르는 일련의 구역이 ‘조씨천(趙氏阡)’, 즉 평양조씨의 종산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암각서 가운데 맨 끝에 새긴 ‘三寶’이다. 일반적으로 ‘삼보’는 ‘불자가 귀의해야 한다는 불보·법보·승보의 3가지를 가리키는 불교교리’라고 한다. 불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삼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불교도는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시작되며 최후까지 삼보에 귀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교도에게는 불가결한 요건이며,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을 막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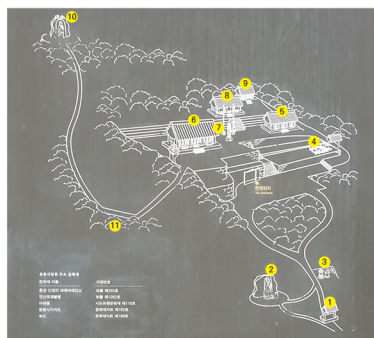
삼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⁶⁶⁾ 이에 따르면 평양조씨 문중은 ‘삼보’를 중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50여 년이 지난 후, 광무(光武) 10년(1906) 무렵이 되어 평양조씨 희순이 죽고 나자 다른 생각을 했던 것으로 밖에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그의 가족은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처럼, 용봉사를 밀어내고 그 중심에 무덤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용봉사는 옛 절터를 무덤 자리로 내준 후, 용봉사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 멀리 가지 않고, 옛 용봉사 자리의 바로 동쪽으로 이어진 곳에 절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다. 어쩌면 조선 숙종 때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을 제작할 때 참여했던 그 후손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그림 45] 2024년 현재 용봉사 전체 모습

현재의 용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修德寺)의 말사이다. 평양조씨 희순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평양조씨에게 절을 빼앗겼던 것으로 미루어 1906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80년 무렵에 중창되었고, 1982년에는 대웅전을 새로 지었다. 1988년에는 축대를 완성하고, 그 뒤 극락전 산신각



[그림 46] 용봉사 배치도 1.일주문 2.용봉사 마애불 3.용봉사 부도 4.옛 용봉사 터 석조물 5.적묵당(요사) 6.지장전 7.약사불 8.대웅전 9.산신각 10.신경리 마애불 11.옛 용봉사 터

6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지어 오늘에 이른다. 현 용봉사의 가람배치는 기암 절벽 사이에 남쪽으로 흘러내린 계곡에 전체 규모 정면 100여m, 측면 60여m 넓이에 3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대웅전, 적묵당(요사), 지장전, 산신각을 지었다.

3단 가운데 맨 윗단은 4m 정도의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60cm 정도의 기단을 만든 다음 남향한 대웅전을 지었는데, 축대와 기단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이 많다. 대웅전은 정 측면 3칸으로 주심포식(柱心包式)의 맞배지붕을 올린 목조와가(木造瓦家)이다. 대웅전 동쪽에는 근래에 지은 산신각이 있다. 가운데 단에는 동쪽으로 치우쳐 적묵당(寂默堂) 요사(寮舍)가 있고, 서쪽에는 지장전이 있는데 모두 근래에 지었다. ⑨의 산신각은 본래 삼성각이었으나, 지금은 산신각으로 이름하고 적묵당 위로 옮겼다.



[그림 47] 용봉사 대웅전



[그림 48] 용봉사(龍鳳寺) 적묵당(寂默堂)

한편 가운데 단의 중앙에는 옛 절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탑의 옥신석(屋身石) 2매와 옥개석 1매개 있으며, 우물의 천정 위에는 머리 부분이 잘려 새로이 붙인 약사여래좌상이 1구(軀) 있다. 끝으로 아랫단에는

마당과 구분하여 1단의 축대를 쌓고 그 위에는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절구와 부도 등을 놓았다. 한편 절의 입구 서쪽 바위면에는 용봉사 마애불이 있으며, 절의 북쪽으로는 신경리 마애불이 있다.



[그림 49] 용봉사 지장전(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보관)



[그림 50] 용봉사 산신각



[그림 51] 용봉사 산신각 안 산신도와 독성도

요컨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용봉사의 연혁을 정리하면, 용봉사 사명(寺名)과 창건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용봉사 마애여래입상과 옛 절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와 조각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절을 운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고려시대에 용봉사 관련 문헌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절의 운영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는 이서의 시에서 용봉사를 찾아볼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범우고』 등의 자료를 통해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절의 운영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에 용봉사는 성리학이 지배 이념인 가운데 많은 절이 폐사된 상황에서도 양반 유생들의 과거 공부하는 곳으로, 왕 왕비 왕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절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정약용이 다녀간 18세기 후반 무렵에는 사세(寺勢)가 기울어져 있었고, 평양조씨 희순의 무덤이 만들어진 1906년 무렵에는 폐사되어 이전되는 위기도 겪었다. 그러나 용봉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역경을 이겨내며 불교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용봉산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나. 용봉사지

용봉사지(龍鳳寺址)는 흥성을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5.5km 거리에 있으며, 이곳은 흥복읍 신경리 510-24, 510-25, 510-26, 산 79, 산 80-1 일대에 해당한다.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절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용봉사⁶⁷⁾ 옛터에는 현재 용봉사 일주문을 비롯하여,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용봉사, 평양조씨 무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등이 있다. 용봉사 옛터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는 발굴이 없는 상황에서 지표조사 정도의 자료와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용봉사의 옛터를 찾아보고자 한다.

용봉사 옛터는 크게 두 곳을 생각할 수 있다. 한 곳은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곳이다. 건물의 지붕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을 찾아볼 수 있고, 사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곳은 평양조씨 무덤이 있는 곳이다. 평양조씨 희순의 무덤이 옛 용봉사를 밀어내고 들어섰고, 옛 용봉사에 쓰였을 다양한 무늬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의 용봉사 요사인 적묵당 아래에 있는 수조(水槽)가 평양조씨 무덤의 서쪽 계곡에 있었던 점 등이 옛 용봉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용봉사가 있는 곳은 옛 용봉사가 평양조씨 문중에 의해 폐사(廢寺)된 후 절이 들어선 곳이어서 본래의 지형을 알 수 없고,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유물도 발견되지 않아 옛 용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이서와 이수광의 관련 사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과거를 준비하던 유생들의 공간, 또는 옛 용봉사에 딸린 부속 건물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 외에 용봉사 일주문부터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곳과 용봉사 부도가 있는 곳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이 있었다고

67)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찰 이름이 용봉사인지, 다른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할 수 있는 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사찰 건물과 관련된 공간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절의 입구에 마애불을 조각하여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용봉사(또는 다른 이름의 사찰) 옛터의 사역(寺域)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그림 52] 용봉사 옛터 1,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절터



[그림 53] 용봉사 옛터 2, 평양조씨 무덤이 있는 절터



[그림 54] 평양조씨 묘역 서쪽 계곡, 용봉사 옛터에 있었던 맷돌과 수조(국가유산청 자료 활용)



[그림 55] 용봉사 옛터 3, 현재 용봉사가 있는 곳



[그림 56] 용봉사 옛터,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이 있는 곳



[그림 57] 용봉사 옛터, 용봉사 일주문이 있는 곳

다. 용봉사와 불교문화유산

▣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된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 입구 서쪽 바위에 남동향으로 만들었다. 거대한 바위 면의 남쪽 면에 일정한 구획을 정한 다음, 왼쪽에는 명문을 적고, 오른쪽으로 다시 구획을 정하면서 남향의 서있는 불상을 돋을새김하였다. 돋을새김의 정도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마애불의 머리 위부터 무릎까지 바위 면을 깎았는데 머리 부분은 깊게, 무릎 아래는 얇게 깎았다. 이에 마치 마애불의 광배처럼 보인다.



[그림 58]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마애불상의 신체 부분은 230cm, 무릎 아래 표현이 거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253cm이다. 머리는 얼굴 길이의 약 1/4 정도이며, 소발(素髮)이다. 육계는 머리의 양쪽 끝에서부터 올라가 머리 높이만큼의 높이에서 마무리되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얼굴은 아랫부분이 가름하며 약간 긴 타원형을 이룬다. 눈은 가늘고 길며,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눈두덩이와 눈썹 사이를 약간 깊게 파서 눈두덩이가 두껍게 표현되었고, 눈썹은 그림자와 더불어 길고 짙게 보인다. 콧대가 약간 높은 편이고 콧등이 좁은 편이다. 입은 코의 아래 너비와 같을 정도로 작게 표현되었고, 볼과 광대에 비교하여 입 주변을 굴곡지게 파서 약간의 웃는 모습이 보인다.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곳에 일조(一條)의 선을 표현하여 턱이 꺾인 것처럼 보인다. 귀는 눈꼬리 위치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부터 얼굴 턱 아래까지 내려와 거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표현되었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고, 양어깨는 끝부분을 내려 남성보다는 여성의 어깨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손과 팔의 표현에서 오른팔은 곧게 내려 손바닥을 다리에 붙였는데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고, 왼팔은 들었는데 손 부분이 파손되어 어떤 모습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비롯한 흥성지역의 불상 수인을 참고할 때, 손을 들어 여원인(與願印)의 모습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法衣)는 두껍게 통견(通肩)으로 표현하여 신체의 굴곡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59]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조상기(造像記)

목 아래 어깨높이의 둘레에 옷깃을 표현하며, 양어깨를 덮으며 내려간 법의는 가슴에서부터 무릎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U’자형의 옷주름을 계단식으로 표현하였고, 각각의 옷주름은 오른팔을 휘감으며 뒤로 넘어가듯 표현하였다. ‘U’자형 옷주름의 간격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배 부분에서 약간 폭이 넓게 표현되었다. 불상의 무릎 아래 하반신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본래부터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돌로 무릎 이하 발 부분을 표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불상의 오른쪽에는 ‘3행 31자’로 용봉사 마애불 조상기(龍鳳寺 磨崖佛 造像記)를 새겼다. 글자 크기는 10cm, 글씨체는 해서체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고대금석문에서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⁸⁾

6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 용봉사 마애불 조상기

[교감판독문]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
 佛願大伯註 001士元烏法師
 香徒官人長琮大舍[01]

[표점문]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佛．願大伯士元烏法師，
 香徒官人長琮大舍．

[국역문]

정원(貞元) 15년⁶⁹⁾ 기묘년 4월일에 … 원컨대 대백사(大伯士)⁷⁰⁾
 원오(元烏) 법사(法師), 향도(香徒)⁷¹⁾ 관인(官人) 장진(長琮) 대사(大舍)⁷²⁾
 … 바랍니다.

[조성 배경]

조상기(造像記)에 따르면,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은 정원 15년, 즉 799년(신라 소성왕1) 4월에 승려이자 불상을 만드는 장인인 대백사 원오법사가 향도(香徒) 장진(長琮) 대사(大舍)의 후원을 받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799년이면 신라 소성왕 1년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라 하대’라고 부른다.⁷³⁾ 따라서 799년에 조성된 용봉사

69) 정원(貞元)은 중국 당나라 덕종 때 연호로 785년에서 805년까지 사용되었다. 정원 15년은 799년으로 신라 소성왕 1년에 해당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 용봉사 마애불 조상기 인용)

70) 대박사(大博士)라고도 하며 장인을 거느리고 해당 작업을 책임지는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삼국시대부터 기술직을 박사라 일컬었으며, 통일 이후 대박사(大博士) 차박사(次博士) 등으로 분화되었다. 박사의 명칭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 관사뿐 아니라 지방의 공장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백사(伯士)라는 명칭과 혼용되었을 것이고, 관등을 가진 장인에 국한되었던 박사가 일반 장인, 승장(僧匠)에게도 적용되었다. 「용봉사마애불 조상기」에서도 원조법사가 승장으로 공사 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 용봉사 마애불 조상기 인용)

71) 불교신앙결사로 사찰 불상 석탑 등의 조성이나 법회 매향(埋香) 등의 불사(佛事)에 경제력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신앙 활동을 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통일신라, 용봉사 마애불 조상기 인용)

72) 신라 17관등 중 제12관등이다.

73) 신라 하대는 768년(혜공왕 4) 김대공(金大恭)의 난과 함께 96각간(角干)이 3년 동안 싸우면서 진골 귀족들의 왕권 도전이 표면화된 이후, 내물왕의 10대손 김양상(金良相)이 혜공왕과 왕비를 살해하고 선덕왕으로 즉위하면서 시작된 시기이다. 이것은 전제왕권 중심의 중대 사회에서

마애여래입상은 신라 하대가 시작될 무렵에 만든 불상으로서 불교 조각사에서 신라 중대 양식이 신라 하대 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불상으로 알려졌다.⁷⁴⁾ 일반적으로 신라 하대 이후 불상은 입체감이 살아있던 중대 불상과 달리 평면적으로 변하고, 불상의 얼굴은 종교적 신비감보다 세속적인 느낌으로 바뀌며, 불신의 비례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봉사 마애여래입상도 신체의 조형미와 조각적 완성도 측면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시주자, 또는 발원자인 장진(長珍)은 어떤 사람일까? 장진은 신라 17관등 중 12관등에 해당하는 대사(大舍)인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사는 군태수(郡太守)에서 현소수(縣少守)까지 임명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장진(長珍)은 용봉사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군이나, 현의 관리로 보인다. 현재 용봉사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신라의 군 현을 찾아보면, 예산군 덕산면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산군(伊山郡)과 홍성군 갈산면 일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목우현(目牛縣)이 있다. 현재 홍성군의 읍치인 홍성읍은 아직 군 현이 설치되지 않았다. 후삼국시대에 ‘운주(漚州)’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장진은 이산군이나, 목우현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⁷⁵⁾

그러면 장진이 관등은 밝히면서도 자신의 복무처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을 국가나 군현의 안녕 등 공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으로 정원 15년명 마애불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⁷⁶⁾ 왜냐하면 발원자가 귀족이나 승려라 할지라도 대부분 국왕과 왕실의 기복(祈福)과 추복(追福)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왕이나 왕실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던 경향은 799년에 조성된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뿐만 아니라, 801년에 조성된 방어산 마애약사삼존불상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신라 하대에 왕권이 불안정했던

귀족 중심의 하대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4) 문명대, 2003 「홍성 용봉사 정원15년명 마애불상 및 상봉 마애불상」, 『원음과 적조미』, 예경(진정환, 2023, 「홍성 용봉산 마애불의 특징과 조성 배경 재검토」, 『보조사상』 제65집)

75) 장진이 홍성 읍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해풍현(海豐縣)의 관리로 추측하는 견해(윤용혁)가 있는가 하면, 『삼국사기』에 해풍현은 없고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으로 해풍향(海豐鄉)이 등장할 뿐이며, 『고려사』에 홍주의 별호를 해풍으로 정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도 기록에도 없는 해풍현의 관리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진정환)

76) 진정환, 2023, 「홍성 용봉산 마애불의 특징과 조성 배경 재검토」, 『보조사상』 제65집

시대 현상과 관련이 많은 것 같다. 혼란기에 왕권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던 사회 각 계층의 동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이 조성된 시기도 예외는 아니다. 당시 소성왕(昭聖王)은 원성왕(785~798)⁷⁷⁾의 큰아들인 인겸(仁謙, 惠忠太子)의 아들인데, 785년 태자에 책봉된 아버지가 791년에 일찍 죽고, 또 그에 뒤이어 태자가 된 숙부 의영(義英)이 또한 794년에 죽자, 795년 정월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798년 12월 원성왕이 죽은 후, 왕위에 올라 800년 6월에 죽었다. 결국 왕권이 불안정하고 혼란했던 799년에 용봉산 부근에서 지방관으로 머물던 장진은 불력(佛力)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고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고자 마애불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355호로 지정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 북쪽으로 이어진 등산로 상에 있다. 용봉산의 산줄기가 정상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다가 용바위에서 한줄기가 돌아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서 갑자기 우뚝 솟은 경사진 바위 면에 불감(佛龕)을 만들고 그 안에 상(像)을 조각하였다. 높이는 4m이다.



[그림 60] 신경리 마애여래입상(돌출된 바위 면에 불상을 조각하였다.) [그림 61]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앞면

77) 선덕왕이 죽은 후 김주원과 왕위 다툼에서 이기고 왕이 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김주원의 아들 웅주 도독 김현창은 822년에 웅주(현재 충청도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상호(相好)는 타원형으로 둥글고 원만하게 처리하면서도 통통하게 표현하였고, 신체에 비해 큰 편이며, 돌을새김을 가장 깊게 조각하여 마애여래입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얼굴에 눈길이 간다. 머리는 소발(素髮)이고, 육계는 우뚝 솟아난 듯 아주 높은 편이며, 돌을새김의 정도를 다른 부분보다 더 깊게 조각하여 돋보인다. 백호(白毫)도 다른 불상에 비해 인중에 뚜렷하고 크게 깊게 표현하였다. 눈썹은 반원형으로 인중 부분은 깊게 조각하고 끝으로 갈수록 얇고 부드럽게 표현하였으며, 눈썹부터 코의 양 끝을 지나 입술 끝 언저리까지 이어진 소위 ‘팔(八)’자 같이 생긴 주름을 ‘)’ 모양으로 선각(線刻)하였다. 눈은 눈동자를 표현함과 함께 사유(思惟)하는 반개형 눈으로 표현하였으며, 눈초리를 살짝 올렸다 내리며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어 입가의 미소와 더불어 위엄함보다는 인자함을 보여주고 있다. 코와 입은 작은 편이지만, 코는 오뚝하며, 입 또한 돌을새김을 깊게 하고 입가를 살짝 올려 미소를 머금은 표정이다. 턱은 얼굴이 통통함을 보여주듯 턱선이 굽게 표현되었고 목 부분까지 살이 많은 듯 표현하였다. 귀는 백호의 높이에서부터 거의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표현하였다. 목은 신체에 비하여 매우 짧지만, 삼도(三道)의 표현은 뚜렷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상호는 부드럽고 인자한 부처님을 조각하고자 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돌을새김을 가장 깊게 조각하여 팽창된 양감을 느낄 수 있다. 서서 볼 때의 느낌도 좋지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듯 올려다보면 훨씬 더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림 62] 불단에서 바라 본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신체는 얼굴을 너무 크게 강조하여 조각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왜소한 느낌을 주며, 돌을새김도 얼굴 부분은 깊게 조각하고 목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차 얇게 조각하며, 무릎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약하게 표현하였다. 이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은 후덕하지만 아래로 갈수록 부실한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그림 62]를 참고할 때, 앉아서 불상을 보며 기원하는 불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마애불의 하반신은 보이지 않고 얼굴 부분이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부처님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인자한 부처님의 인상이 강하다. 어깨는 얼굴의 크기에 비해 좁은 편이지만, 약 1,281.98mm⁷⁸⁾로서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의 표현과 비교할 때 어깨를 편 남성의 어깨 모습을 연상케 한다. 수인(手印)은 오른팔과 손을 내려 다리에 붙이고, 왼손을 들어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조각하였다. 오른손은 거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살짝 구부린 듯 표현하였다.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與願印)의 반대 모습을 한 수인(手印)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수인은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을 시작으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거쳐 홍성지역의 대부분 불상이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 홍성지역만의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허리와 다리가 법의 속에 살짝 드러나 보인다.

법의(法衣)는 귀밑에서 양어깨를 감싸는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쳤는데, 두겹지 않게 묘사되면서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옷주름은 옷깃 아래 가슴부터 배까지 돌을새김으로 완만한 ‘U자형’을 표현하고, 배 아래부터는 약간 벌어진 다리 사이에 ‘Y자형’으로 갈라진 옷자락이 가랑이 사이로 흘러 들어간 겉옷의 의습선(衣褶線)을 표현하였다. 아울러 가슴, 배, 무릎 아래까지 표현된 겉옷의 의습선은 오른쪽의 경우 오른팔을 휘감으며 뒤로 넘어간 듯한 의습선을 선각과 돌을새김으로 표현하였고, 왼쪽은 왼쪽 어깨부터 왼팔을 거쳐 흘러내린 의습선에 가려져 앞 부분만 보인다. 왼팔 아래는 무릎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옷소매를 3조의 의습선과 돌을새김으로 표현하고 왼손 팔목 아래의 약간 벌어진 부분의 안과 밖을 돌을새김으로 표현하여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릎 아래에도 가슴부터 아래로 이어진 옷자락의 끝을 2조(條)의 완만한 ‘V자형’의 옷주름을 표현하며, 오른쪽 다리 뒤와 무릎 아래 가랑이 사이에도 옷자락이 흘러내려 부채꼴로 퍼진 듯한 겉옷의 의습선을 표현하였다. 무릎 아래 다리에는 군의(裙衣) 자락을 ‘U자형’의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법의의 다른 겉옷의 의습선이

78) 오준영·김충식, 2017,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의 3차원 기록화를 통한 포토그래메트리의 유용성 연구」,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통권 77호 pp. 30-4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어깨 혹은 팔에 이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완만한 ‘U자형’으로 처리된 무릎 아래의 의습선이 법의의 끝단 의습선에 의해 차단되어 단지 다리에만 묘사하였다. 이러한 의습선과는 별도로 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배꼽 부분의 의습선 바로 위에는 1조의 굽은 선각이 가해지고 있는데, 겹옷 속의 승각기 매듭을 묘사한 것인지, 또는 다른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림 63]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발과 대좌

발은 대좌와 함께 장방형의 별석으로 가공하였는데, 복연좌(覆蓮座)의 대좌(지름 120cm) 윗면을 반원형으로 넓게 구획을 정한 다음, 정면을 향한 두 발을 가지런히 표현하였다. 두 발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며, 각각 5개의 발가락도 양각하였다.

광배(光背)는 거신광(擧身光)을 3조의 선각(線刻)으로 묘사하였는데, 두광(頭光)은 원형으로 육계 위에서 코 부분까지 약 2/3의 원을 구획하고, 이어서 그 아래로 발아래까지는 타원형의 신광(身光)을 선각하였다.



[그림 64]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개석(蓋石) 뒷면



[그림 65]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개석(蓋石) 앞면 문양에 대한 포토그래메트리의 사실적 표현



[그림 66]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개석(蓋石) 앞면 아래에 보이는 서까래와 연꽃무늬(세부)

한편 머리 위에는 방형(方形)의 개석(蓋石)을 올려놓았는데, 우진각지붕 형태로 각 면의 밑에는 연화문과 서까래 등의 표현을 돌을새김으로 조각하였다. [그림 64]와 [그림 65]를 비교해 보면, 지붕 전면 문양에 대한 포토그래메트리의 사실적 표현⁷⁹⁾을 인용할 경우,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가운데 삼보 문양과 연꽃 문양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연꽃 문양이 돌을새김으로 조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7]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개석(蓋石) 앞면 아래에 보이는 서까래와 연꽃무늬

79) 오준영·김충식, 2017,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의 3차원 기록화를 통한 포토그래메트리의 유용성 연구」,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통권 77호 pp. 30-4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그림 68]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개석(蓋石) 뒷면 아래에 보이는 연꽃무늬



[그림 69]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개석(蓋石) 뒷면 아래 모서리에 보이는 연꽃무늬(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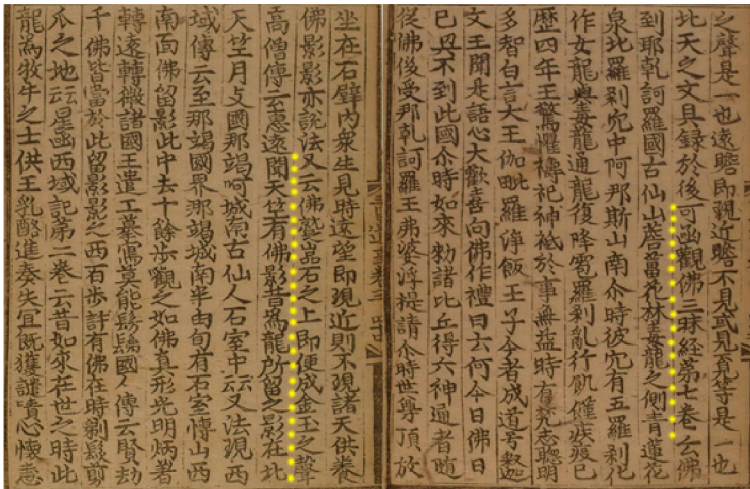
[조성 배경]

마애불을 왜 만드는가? 이와 관련된 글이 『삼국유사』 권3 제4 탑상(塔像) 어산불영(魚山佛影) “부처님의 일이 관불삼매경에 전하다.”에 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함(可函)의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 제7권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부처가 야건가라국(耶乾訶羅國) 고선산(古仙山) 담복화(蔭菴花) 숲의 독룡이 사는 못 곁, 푸른 연꽃이 핀 샘 북쪽 나찰혈(羅刹穴) 가운데 있는 아나사산(阿那斯山) 남쪽에 이르렀다. 이때 그 구멍에 다섯 나찰이 있어 여룡(女龍)으로 화하여 독룡과 교합하더니 용이 다시 우박을 내리고, 나찰은 난폭한 행동을 하므로 기근과 질역이 4년 동안 계속되었다. 왕은 놀라고 두려워서 신기(神祇)에게 빌며 제사하였으나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때 총명하고 지혜 많은 범지(梵志)가 왕에게 아뢰기를, “가비라국(迦毗羅) 정반왕(淨飯王)의 왕자가 지금 도를 이루어 이름을 석가문(釋迦文)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부처가 있는 쪽을 향해 절하고 말하기를, “오늘날 불일(佛日,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빠짐없이 널리 미침)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에는 이르지 아니하십니까?”라고 하였다.



[그림 70] 『삼국유사』 가함의 관불삼매경 제7권 3-3(왼쪽) 가함의 관불삼매경 제7권 3-1(오른쪽)

이때 여래는 6신통(六神通)을 터득한 비구들에게 명하여 자기의 뒤를 따르게 하고, 야건가라왕 불과부제(弗婆浮提)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때 세존은 이마에서 광명이 내비취 1만이나 되는 여러 대화불(大化佛)이 되어 그 나라로 갔다. 이때 용왕과 나찰녀는 5체를 땅에 던져 부처께 게 받기를 청하였다. 부처는 곧 [이를] 위하여 3귀(三歸) 5계(五戒)를 설하니, 용왕이 다 듣고 나서 꿇어 앉아 합장하고, 세존에게 여기에 상주하기를 권청하면서, “부처님께서 만약 계시지 않으면 제가 악심이 생겨 아녹보리(阿耨菩提, 최상의 깨달음)를 성취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범천왕(梵天王)이 다시 와서 부처께 절하고 청하기를, “바가바(婆伽婆)께서는 미래세의 여러 중생을 위하시므로 다만 편벽되게 이 작은 용 한 마리만을 위하지는 마소서”라고 하니, 백천 범왕(梵王)이 모두 이같이 청하였다. 이때 용왕이 칠보대(七寶臺)를 내어 여래께 바치니, 부처가 용왕에게 말하기를, “이 자리는 필요 없으니 너는 지금 다만 나찰의 석굴만을 가져다 내게 시주하라”고 하니, 용왕이 기뻐하였다.라고 한다. 이때 여래가 용왕을 위로하기를, “내가 네 청을 받아들여 네 굴 안에 앉아 1천 5백 세를 지내리라”라고 하고 부처는 몸을 솟구쳐 돌 안으로 들어갔다. [돌은] 마치 명경(明鏡)과 같아서 사람의 얼굴 형상이 보이고, 여러 용들이

모두 나타나며, 부처는 돌 안에 있으면서 그 모습이 밖에까지 비쳐 나타났다. 이때 여러 용들은 합장하고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불일(佛日,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빠짐없이 널리 미칠)을 보게 되었다. 이때 세존은 가부좌를 하고 석벽 안에 있었는데, 중생이 볼 때 멀리서 바라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천중이 부처 그림자에 공양하면 그림자가 또한 설법하였다. 또 이르기를, “부처가 바윗돌 위를 차면 곧 금과 옥의 소리가 났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마애불의 유래는 『삼국유사』 가함의 관불삼매경 제7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처가 몸을 솟구쳐 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이 밖에까지 비쳐 나타났고, 항상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빠짐없이 널리 미칠(=불일佛日)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의 실마리가 보인다. 나아가 “여러 천중이 부처 그림자에 공양하면 그림자가 또한 설법하였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마애불을 통해 중생의 기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마애불을 만든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는 산악신앙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산은 불교 신앙을 펼치는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되었고, 나아가 산속의 바위에 조성된 마애불은 ‘산이 곧 부처의 세계’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⁸⁰⁾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의 마애불은 주로 산 입구에 해당하는 위치에 조성되었지만, 통일신라 이후에는 마애불의 위치가 점점 산 위로 올라가게 되고, 불국토 의식이 극에 달하는 통일신라 9세기 이후에는 산정부(山頂部)에 마애불이 제작되기에 이른다.⁸¹⁾ 아울러 산의 정상 부분(산지의 정상부 또는 그에 인접한 능선에 해당하는 지점)에는 바위가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특히 이러한 암괴가 솟은 봉우리들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산 정상부에 조성된 마애불은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신성한 영역에 조성되어, 산 전체를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마애불을 산정부(山頂部)에 조성하는 경향은 고려 전기 1기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산정부에 조성된 대부분의 마애불이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하여, 마애불의

80) 박영민, 2023, 「고려시대 마애조상 연구」, 동국대대학원미술사학과 박사논문

81) 임영애, 2022, 「신라 왕경 산 정상부의 대형 마애불」,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 상생협력 심포지엄 자료집』. 이 글에서는 산 정상부에 대형 마애불이 조성되기 시작한 요인을 8세기 중 후반 경주 토암산에 석굴암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수미산 관념이 정립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신라 왕경의 산들은 수미산으로 인식되었고, 여기에 마애불을 조성한 것이 이를 입증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양식뿐만 아니라 조성 입지에 대한 인식까지 계승하고 있었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통일신라 9세기 이후에 산지 내 마애불 입지 선정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마애불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다. 마애불이 산의 정상부에서 산 아래에 있는 고을을 굽어보고 있다는 것에서 그 조성 의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⁸²⁾ 이는 곧 **용봉산 전체를 부처가 머무르는 정토, 또는 수미산으로 인식하고, 부처의 시선이 늘 이 고을에 머물며 평안을 굽어살핀다는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일반적으로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얼굴표현 등 통일신라의 9세기 불상 양식과의 친연성이 강하여 나말여초 작품, 또는 9세기 후반 ~ 10세기 초반 작으로 판단하지만,⁸³⁾ 간략하고 도식화된 표현과 미숙한 조각 기법 등을 근거로 11세기 작품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11세기 작품으로 볼 경우,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에서 시작한 ‘장대성과 세장함의 공존’이 신경리 마애불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1] 논산 개태사지 석불 입상(국가유산청 자료 활용)

82) 박영민, 2023, 「고려시대 마애조상 연구」, 동국대대학원미술사학과 박사논문.

83) 최성은, 1991, 「백제지역의 후기 조각에 대한 고찰」,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학교박물관.; 문명대, 2003, 「홍성 용봉사(龍鳳寺) 정원(貞元) 15년명 마애불상 및 상봉 마애불상」, 『원음과 적조미』, 예경. 朴方龍(2003). 「新羅禪房寺塔誌에對한淺見」, pp. 318-322.

예컨대 개태사 석불⁸⁴⁾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규모가 커져 장대하면서도 어깨가 좁아 세장한 형태**를 보이는 점, 얼굴은 넓고 아래턱이 강조되어 자신감이 충만한 인상을 주는 점, 팔과 손을 크게 하여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한 점 등이 신경리 마애불상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신경리 마애불은 고려의 새로운 양식을 정립한 개태사 석불과 달리, 통일신라 불상 양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절충 양식을 보이므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 조성한 개태사 석불보다는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신경리 마애불을 만든 시기는 11세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시기, 즉 1025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예로 들었다. 첫째, 신경리 마애불은 **괴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종대 조성된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에 비해 **세장**하다는 점, 둘째, **오른팔과 왼팔의 처리가 어색하고 대좌 위에 발을 새기는 등 토속화**의 경향이 보이는 점, 셋째, 신경리 **마애불의 상체에서 볼 수 있는 건장한 형태미**는 11세기 1분기까지 강한 영향을 끼친 개태사 석조삼존불,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 충청지역 고려 전기 신양식 석불의 영향으로 파악되는 점, 넷째, 10세기 충청지역에 조성된 석불에 비해 **신경리 마애불의 하체가 평면적이고 빈약하며 일부 표현에서 토속화**된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11세기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1030년 무렵 조성된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이 세장한 형태와 머리가 과도하게 작아진 신체 비례, 평판적인 조각 양상 등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1025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⁸⁵⁾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신경리 마애불의 조성은 거란의 침입 시기(993 1019)에 홍주의 호장층이 공적인 목적, 즉 국가 왕실의 안녕과 홍주와 그 주민들의 안정을 기원하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더불어 홍주의 호장층과 읍민들은 거란의 침입과 읍민들의 피폐한 삶의 원인이 홍주의 읍기(邑氣)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봉산의 뽕족뽕족한 바위, 즉 용봉산의 과도한 지세에 있다고 인식하고, 용봉산의 나쁜 기운을 불교미술품으로 진압하기 위해 용봉산

84) 고려의 태조 왕건이 개태사를 짓고 940년에 불상 세 개를 건립하였다. 이 삼존불상 중 가운데 본존 불상은 약 4.15m로 큰 장륙상에 가깝다. 왼쪽 보살상은 약 3.5m, 오른쪽 보살상은 약 3.21m이다. 삼존불상의 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짧은 코와 인중, 미소 띤 입, 넓은 뺨의 형태는 동일하다. 삼존불상이 세워진 곳은 고려가 후백제로부터 항복을 받은 장소이다. 역사적 장소에 거대한 삼존불상을 건립하여 후삼국 통일을 기념한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5) 진정환, 2023, 「홍성 용봉산 마애불의 특징과 조성 배경 재검토」, 『보조사상』 제65집

중턱에 신경리 마애불을 조성하였다고 보았다.⁸⁶⁾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의 조각 솜씨를 고려한다면,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처럼 지역 단위의 자본과 조각술로서는 만들기 어려운 작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누가 보아도 지역 장인의 솜씨라기보다는 국가 왕실과 관련된 불상을 만드는 전문적인 장인의 솜씨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무리가 없다면,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만든 장인은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을 만든 원오법사처럼 지역의 스님 조각가가 아닌, ‘국가 왕실과 연계된 중앙의 정치세력과 홍주의 호장층’이 함께 초빙한 ‘국가와 왕실 단위의 불상을 만들던 조각가’**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의 정치세력으로서 주목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홍주홍씨(洪州洪氏)의 시조이며, 고려 태조 왕건의 장인으로 태조의 12번째 왕비 흥복원부인(興福院夫人)의 아버지인 홍규(洪規)이다.

홍규는 홍주 사람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올랐고, 왕건의 장인이다. 운주 세력과의 연대를 의도한 태조의 정략정책에 따라 홍규의 딸인 흥복원부인 홍씨가 왕건의 12번째 왕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홍규는 본래 이름이 금준(兢俊)이었다. 그러나 2차 운주 전투 후 대상(大相)⁸⁷⁾이 되어 고려의 권력구조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일리천 전투에서는 중군의 마군(馬軍)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 나아가 일리천 전투의 승리와 후백제의 항복 후, 고려 조정의 논공행상에서 금준은 왕건으로부터 ‘홍규’라는 이름을 하사받아 개명하고, 벼슬은 삼중대광(三重大匡)까지 올라갔다. 그 후 홍규는 흥복원부인이 낳은 태자 왕직과 공주의 할아버지가 되었다.⁸⁸⁾ 태자(太子) 왕직(王稷)은 후사(後嗣)가 없었고⁸⁹⁾,

86) 진정환, 앞의 글.

87) 고려를 세운 왕건(王建)은 마진의 관계를 국초에 그대로 답습하여 문관 무관의 공적 질서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936년(태조 19) 후삼국통일을 전후하여 16등급으로 재편성하였다. 대상은 이때 7위에 해당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8) 興福院夫人洪氏, 洪州人, 三重太匡規之女. 生太子稷 公主一.(『고려사』 열전 후비 태조 후비 흥복원부인 홍씨) 흥복원부인 홍씨는 홍주 사람으로 삼중대광 홍규의 딸이다. 태자 왕직(王稷)과 공주 한 명을 낳았다.

89) 太子稷, 無嗣.(『고려사』 열전 종실 태조 왕자 태자 왕직) 태자(太子) 왕직(王稷)은 후사가 없었다.

손녀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태자 왕태(王泰)에게 시집갔다.⁹⁰⁾ 태자 왕태는 신명왕태후(神明王太后) 유씨(劉氏)의 아들이며 후사가 없었다. 그렇지만 신명순성왕태후(神明順成王太后) 유씨(劉氏)는 충주 사람으로, 태사 내사령(太師 內史令)으로 추증된 유공달(劉兢達)의 딸로서 태자인 왕태뿐만 아니라 정종(定宗), 광종(光宗), 문원대왕(文元大王) 왕정(王貞), 증통국사(證通國師), 낙랑(樂浪)·흥방(興芳) 두 공주(公主)를 낳았다. 장녀 낙랑공주는 귀순해 온 신라의 경순왕(敬順王)에게 출가하였다. 더불어 신명순성왕태후의 고향인 충주는 후백제 및 신라와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충일 뿐만 아니라, 신라 5소경(小京)의 하나인 중원경(中原京) 지역으로 신라 귀족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10세기 무렵에 홍규 집안은 태조(918~943) 이후에도 정종과 광종(949~975)의 집안과 연결되었고, 고려 왕실과의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중앙 정계의 유력한 가문이 되었다. 나아가 신명순성왕태후와의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신라 출신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지역이 옛 백제 땅에 있으면서도, 후삼국시대~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백제 계통보다는 통일신라 계통의 탐이나 불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서 **국가 왕실과 연계된 중앙의 정치세력으로서 홍규가 있었다면, 홍주의 호장층은 누가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15세기 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홍주목의 ‘토성(土姓)’⁹¹⁾을 보면, “이(李), 홍(洪), 한(韓), 송(宋), 백(白)”이 있고, 16세기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홍주목의 ‘성씨’를 보면, “홍(洪), 이(李), 한(韓), 송(宋), 백(白), 조(趙)”가 있다. 성씨 기록의 순서에 따르면, 이씨와 홍씨가 가장 대표적인 성씨인데, 이씨는 조선 개국공신 이서(李舒)와 관련된 ‘**홍주이씨**’ 집안이며, 홍씨는 고려 개국공신 홍규(洪規)와 고려말 공민왕 때 홍주가 목(牧)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보우(普愚)’ 국사와 관련된 ‘**홍주홍씨**’ 집안이다. 두 집안 가운데 고려 초 10세기 무렵이면 아무래도 **홍주홍씨가 홍주의 호장층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곧 중앙의 정치세력인 ‘홍규’의 집안과**

90) 公主, 史失其號, 興福院夫人洪氏所生, 適太子泰.(『고려사』 열전 공주 태조 소생 공주) 공주는 사서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데, 흥복원부인 홍씨의 소생이고 태자 왕태(王泰)에게 시집갔다.

91)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토성은 고적(古籍)과 관(關)에 기재되어 있는 성씨를 지칭하였다. ‘고적’이란 고려 초기부터 전해 오는 성씨 관계 자료이며, 공문서의 일종인 ‘관’은 지리지의 편찬을 위한 작업으로 각도에서 보고한 성씨 관계 기록을 담은 문서였다. 여기서 토성은 본래 토성에서 소멸된 망성(亡姓), 이주성(移住姓)인 내성(來姓) 속성(續姓) 등과는 달리 군현의 구획 초기부터 토착해 군현명을 본관으로 한 군현의 지배 성단이다.

연결되어 있었다.

요컨대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늦어도 10세기를 넘지 않는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판단된다.⁹²⁾ 왜냐하면 첫째, 중앙의 왕실과 관련된 정치적인 후원 세력의 지원이 필요한 점, 둘째, 작품성이 뛰어난 마애불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장인이 있어야 가능한 점, 셋째,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얼굴표현 등 통일신라의 9세기 불상 양식과의 친연성이 강한 점, 넷째, 규모가 커져 장대하면서도 광종대 조성된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에 비해 어깨가 좁아 세장한 형태를 보이며 통일신라 불상 양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92)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조성의 위치 등에 있어서 권력의 크기가 훨씬 강조된 인상을 받는다. 산의 정상부 개방된 공간에 '4m'라는 크기로 조성된 불상은 남향을 하여 홍성 시내를 내려보고 있다. 원래는 건축물이 함께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각종 불사를 독자적으로 거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정치적 혹은 종교적 권력에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입지에 이러한 수준의 불상 조성이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봉산의 신경리 마애불은 신라 후기 용봉사의 조성 이후 지역 세력이 성장하면서 종교적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10세기라는 불상의 양식적 측면에 대한 견해를 함께 고려할 때, 이 작품의 배후로서 운주성주 궁준이 떠오르게 된다.(윤용혁, 2009, 「고려시대 홍주의 성장과 홍주읍성」, 『한국전통문화연구』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용봉사(龍鳳寺) 영산회(靈山會) 괘불탱(掛佛幀)



[그림 72]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전체(조사보고서에서 옮김)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은 1690년(숙종 16) 5월에 조성하여 팔봉산 용봉사에 봉안된 괘불탱으로서 1997년 8월 8일 보물 제1262호 지정되었다. 총 17폭의 삼베를 이어 화면 바탕을 만들었는데, 삼베 바탕에 채색한 괘불탱의 크기는 전체 6,364mmx5,758mm, 화면 크기 5,026mmx5,312mm, 무게 60kg이다. 화원은 해숙(海淑), 한일(漢日), 처린(處璘), 수탁(守卓), 덕림(德凜), 경찬(涇璨), 심특(心特)이 참여하였다. 석가여래(釋迦如來)가 영축산(또는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대형 불교 그림이다.

[화면 구성]

용봉사 영산회괘불탱⁹³⁾은 정방형에 가까운 화면에 연화좌대에 앉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타방불(他方佛) 2위, 보살 8위, 10대 제자, 사천왕 등 다수의 권속을 표현한 군도(群圖) 형식의 괘불탱이다.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하여 석가모니불은 화면 중앙 상단에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크게 표현하였다. 청색의 연화좌대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항마촉지인을 취했다. 머리에는 타방불과 달리 보주형의 정상 계주(髻珠)와 타원형의 중간 계주(髻珠)를 모두 표현했고, 머리카락은 나발(螺髮)이지만 가장자리의 윤곽만 표현했다. 얼굴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눈은 눈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간 모습이고, 눈썹은 끝부분을 뭉툭하게 처리했다. 입술은 먹선으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경계를 표현했으며, 턱수염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끝을 살짝 빼는 형태로 묘사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의 두광 뒤쪽에는 중심부의 적색을 기준으로 청색과 황색이 대칭을 이루며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광명을 표현했다.



[그림 73]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석가모니불 부분(조사보고서에서 옮김)

착의법은 적색의 대의(大衣)가 오른쪽 어깨만 살짝 덮은 변형된 우견편단(右肩偏袒) 형식이다. 대의 안에는 승각기(僧脚崎), 복견의(覆肩衣, 오른쪽 어깨에 걸쳐서 오른팔을 덮어 비스듬하게 왼쪽 팔에 이르는 옷), 군의(裙衣)를 갖춰 입었다. 대의에 표현된 문양의 외부 형태는 십이능형(十二菱形)이지만, 내부에는 연화문, 국화문, 모란문, 운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대의 끝단에는 연화당초문을 표현했다. 또한 승각기에는 금박 바탕에 모란당초문을 먹선으로 그려 넣어 화려하게 장식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광의 형상은 양쪽 어깨부터 중앙 계주의 위치까지 벌어지다가 오므라들어 정상 계주 위에서 마무리되어 마치 연꽃 봉오리처럼 보인다. 신광은 양쪽 무릎 위부터 귀 옆까지 표현하였는데 두광과 겹치는 부분에서는 두광 뒤에 표현하였다. 두광의 바탕은 녹색으로 칠했으나, 신광의 바탕은 색색의 연화당초문으로

93) 본 글은 다음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 2017,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대형문화 정밀조사 보고서』19, 문화재청·(사)성보문화재연구원

화려하게 장식했다. 광배 테두리의 색상도 두광에는 청색으로, 신광에는 녹색으로 칠해 차이를 보인다. 반면 광배의 바깥 문양은 화염문으로 통일감을 주었으며, 화염문은 배경을 더 붉게 칠해 문양과 분리시키는 방법을 활용했다. 또한 문양대의 중심부에 비해 양 바깥쪽을 열게 채색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석가모니불이 앉아 있는 불탁은 협시보살로 인해 반 이상이 가려졌지만, 족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탁에는 중대와 동자주, 청판(廳板) 등을 표현했는데, 청판에는 적색 바탕 위에 묵리문을 그렸고, 그 외 부분에는 황색으로 연주문을 표현했다.



[그림 74]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팔대보살 부분(조사보고서에서 옮김)

중단과 하단에는 석가모니불 좌우로 팔대보살을 표현하였다. 중단에는 관음보살(보관에 화불化佛을 그림), 대세지보살(보관에 보병寶瓶을 그림)을 포함한 네 보살을, 하단에는 연꽃을 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포함한 네 보살을, 각각 2위씩 2열을 배치하여 팔대보살을 표현하였다. 팔대보살은 관세음보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꽃과 여의(如意) 등의 지물(持物)을 들었다. 보살의 천의(天衣)는 대개 적색과 녹색을 사용했으며, 천의에 표현된 문양도 석가모니불 대의와 비슷한 문양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문양을 표현할 때 사용된 색상은 보통 황색이나, 관세음보살의 천의는 백색의 효과를 주려는 듯 백청색을 사용했다. 또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의

천의와 제자의 여의에는 부분적으로 마엽문(麻葉文)을 표현했다.

화면의 상단에는 10대 제자⁹⁴⁾와 타방불 2위가 석가모니불을 향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타방불은 머리 모양에 있어 테두리만 나발의 형태에 정상 계주 없이 중간 계주만 표현했고, 우측의 경우 아래쪽으로 다수의 머리카락이 빠져 뺏어 나온 것처럼 표현했다. 그리고 화면 중간에 위치한 보살의 양 옆에는 아사세왕⁹⁵⁾과 위제희왕비⁹⁶⁾를 표현했다. 아사세왕의 얼굴 표현을 살펴보면 눈 주변 위, 아래로 먹칠 바림했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은 먹선으로 그리고 청색으로 채색했다. 위제희왕비는 얼굴의 안료 탈락이 심하지만 양 볼을 적색으로 채색했다.



[그림 75] 아사세왕(왼쪽) 위제희왕비(오른쪽)
(조사보고서에서 옮김)



[그림 76]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십대제자 부분(조사보고서에서 옮김)

94) 지혜가 제일인 사리불(舍利佛), 신통력이 제일인 목건련(目健連), 두타(頭陀) 제일인 마하가섭(摩訶迦葉), 천안(天眼) 제일로 칭송되는 아나율(阿那律), 다문(多聞) 제일의 아난다(阿難陀), 지계(持戒) 제일의 우바리(優婆離), 설법(說法) 제일의 부루나(富樓那), 해공(解空) 제일의 수보리(須菩提), 논의(論議) 제일의 가전연(迦旃延), 밀행(密行) 제일의 라홀라(羅喉羅) 등 10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5) 阿闍世王(아자타샤트루Ajātaśatru, B.C.491~459) 중 인도 마갈타국(摩竭陀國)의 왕. 석가(釋迦)의 교적(敎敵)인 제바탈다(提婆達多)에 호응하여, 부왕(父王)을 죽이고 모후(母后)를 유폐하고 즉위했으나, 후에 개심하여 석가의 교화를 받았고 불교를 지극히 보호하였다. 석가가 죽자 사리 8분의 1을 얻어 탑을 세우고 또 제1회 결집(結集)을 명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인명사전]

96) 마가다국의 왕비로서 남편인 빗비사라왕과 함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아들 阿闍世王아자타샤트루가 데바다타의 꾀임에 넘어가 부왕을 감금하자, 아들을 설득하여 뉘우치게 하였으나 이미 빗비사라왕은 감옥에서 굶어 죽은 뒤였다. 아들은 후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화면의 하부 바깥쪽 좌우에는 각각의 지물을 든 사천왕이 2위씩 배치되었다. 그런데 제일 앞의 사천왕 2위의 두광 경계를 보면 초본 먹선과 더불어 녹색이 탈락된 부분에 뒤쪽 사천왕의 복갑 문양 일부가 드러나 있다. 이로 볼 때 아래에 있는 사천왕 두광을 처음 계획보다 더 크게 그리면서 위에 채색된 부분을 덮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7]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사천왕 부분(조사보고서에서 옮김)

전체적인 배경 처리에서 권속들 사이사이를 구름으로 채워 공간을 분리했으며, 상부와 하부의 장황은 화문으로 장식했다. 또한 복식 묘사에 있어서 일부 존상은 의습선과 보발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문양을 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녹색 두광과 함께 일부 흑갑사와 같은 투명한 두광을 표현했다.

[화기 내용]

하부에 기록된 화기를 살펴보면 화기란과 화기란 바깥면 두 곳에 기록되었다. 화기란에 기록된 화기는 1690년 조성 당시에 기록한 것이고, 화기란 바깥면은 1725년과 1987년 중수를 한 뒤에 각각 기록한 것이다.

1690년 조성 당시의 화기를 살펴보면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을 조성하는 데

동참한 시주자들과 본사질, 연화질, 그리고 조성 연대와 봉안처를 기록했다. 가장 위부분에는 별도로 방형의 칸을 구획하여 주상, 왕비, 세자의 축수(祝壽)를 기원했다. 시주질(施主秩)에는 파탕시주(波蕩施主) 김천내(金千乃) 양주(兩主), 공양(供養) 김복립(金卜立) 양주(兩主), 파탕(波蕩) 이돌동(李玆同) 양주, 시주(施主) 이덕충(李德冲) 보체(保体) 등 바탕과 공양, 시주, 후배지, 원경 등의 물목 시주자 102명(부부 포함)을 기록했고, 산중대덕(山中大德) 성응(性應)과 명언(明彦)을 비롯한 70명의 스님 명단을 기록했다. 연화질(緣化秩)에는 증사(證師) 택정(澤淨), 화사(畫師) 해숙(海淑) 등 화사(畫師), 행자(行者), 공양주(供養主), 부목(負木), 내왕(來往), 별좌(別座), 화주(化主), 지전(持殿), 수승(首僧), 종두(鍾頭), 지사(持寺) 등의 소임을 맡은 19명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화사(畫師)는 해숙(海淑), 한일(漢日), 처린(處璘), 수탁(守卓), 덕름(德凜), 경찬(洞璨), 심특(心特) 등인데, 현재까지 이들이 조성한 다른 불화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희(康熙) 29년 경오, 즉 1690년(숙종 16) 5월에 조성하여 팔봉산 용봉사에 봉안했음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⁷⁾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施主秩
波蕩施主 金千乃 兩主
供養 金卜立 兩主
供養 崔武男 兩主
...

拏寺秩
山中大德 性應
明彦
妙和 比丘
道源 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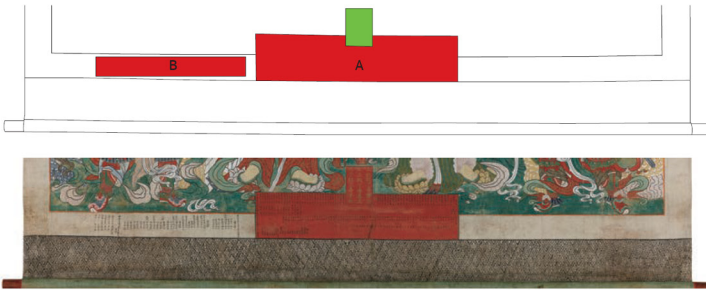
緣化秩
證師 澤淨
畫師 海淑 漢日 處璘 ...
行者 順立 明絢
供養主 自信
負木 居士 劉士望
來往 勝允

97) 다음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였다. (사) 성보문화재연구원, 2018, 「보물 제1262호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19』, 문화재청·(사) 성보문화재연구원

別座 隱英
化主 惠英
持殿 普能
首僧 能眼
鍾頭 莊雲
持寺 雙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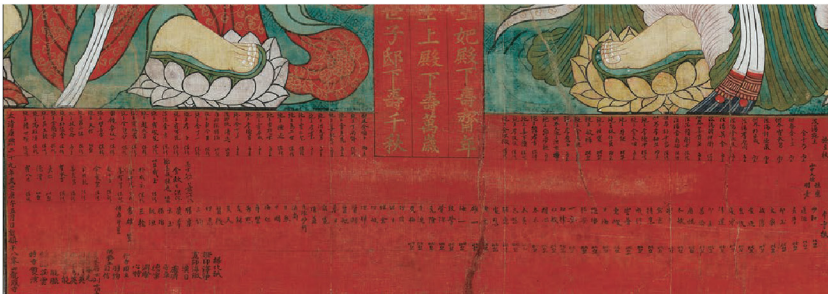
...

太清康熙二十九年歲次庚午五月日留鎮于八峯山龍鳳寺
1690년(숙종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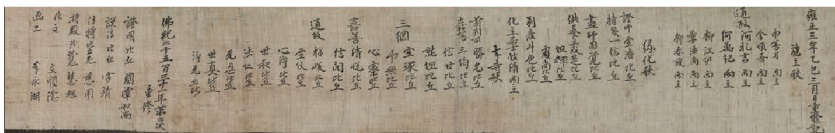


[그림 78]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화기 위치(조사보고서에서 옮김)

한편 B면은 1690년 조성 이후 1725년과 1987년 두 차례 중수한 기록이다. 앞의 기록을 보면 1725년 3월에 신선재 부부를 포함한 7쌍의 부부가 시주를 하여 화사 원각(圓覺)이 중수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원담스님을 증명으로 하여 화공(畵工) 이영호가 수리를 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국비 사업으로 보존 처리를 한 뒤 기록한 ‘수리기’를 뒷면 좌측 상단에 붙였다. 이때 괘불탱 수리와 함께 괘불궤도 새로 제작했음을 적었다.



[그림 79]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화기 A 부분(조사보고서에서 옮김)



[그림 80]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화기 A 부분(조사보고서에서 옮김)

한편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을 보관했던 괘불개는 긴 장방형의 상자형 괘짝이다. 앞뒤 널을 맞댄 후, 그 사이에 바닥(밑널)과 좌 우측 널을 끼워 넣고, 일자사개(수4, 암3)로 물린 후 쇠못을 박아 형태를 완성하였다. 현재 대웅전 뒤편에 보관하고 있다. 전체 크기는 길이 6,328mm, 높이 353mm, 너비 346mm, 두께 29 37mm이며, 내부의 크기는 높이 275mm, 너비 282mm이다.



[그림 81] 용봉사 대웅전 뒤, 옛 괘불개 보관 모습

▣ 용봉사(龍鳳寺) 범종

2024년 5월 3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용봉사 범종은 높이 58.2cm, 너비 47.5cm이다. 범종 아랫부분의 명문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용봉사 범종은 건륭 37년(1772년) 편수(片手) 이만돌(李万珣)이 제작하여 홍주 용봉사에 봉안된 종이다.



[그림 82] 용봉사 범종 명문 부분(국가유산청 자료 촬영)

홍성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봉사 범종은 2021년 창원 길상사에서 무자 주지스님이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후 ‘홍주 용봉사’ 소속의 범종이란 명문을 확인한 무자스님이 수덕사에 홍주 용봉사 범종의 존재를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용봉사 주지 정준스님과 수덕사 정범스님이 길상사를 방문해 범종을 옮겨왔다고 한다. 범종 하단부 명문을 통해 확인된 용봉사 범종 제작자인 ‘편수 이만돌’은 18세기 충청지역에서 활약한 범종의 장인이었다. 그가 만든 종은 용봉사 범종 외에도 충남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영랑사 범종, 영탑사 범종 등 7종의 범종을 제작했다고 전해진다. 용봉사 범종은 앞서 제작한 범종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문양 배치가 정교하고 안정감 있어 이만돌의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범종은 현재 연구 조사를 위해 수덕사근역성보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으며, 추후 용봉사 경내로 옮겨질 예정이다.



[그림 83] 용봉사 범종 전체 모습(국가유산청 자료 활용)

▣ 용봉사(龍鳳寺) 아미타삼존불상



[그림 84] 용봉사 대웅전 아미타 삼존불

용봉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아미타 삼존불 좌상(坐像)으로서 1689년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목조 불상이다. 본존불은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이다. 상호(相好)는 몸에 비해 큰 편이다.머리는 나발(螺髮)로 표현하고, 그 안에 육계는 중앙 계주(髻珠)와 정상 계주가 모두 표현되었다. 눈은 가늘게 표현하였고, 귀는 머리부터 턱까지 길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근엄한 모습이다. 목에는 삼도를 뚜렷하게 표현하였으나 쇄골 위치까지 내려왔다. 수인(手印)은 왼손을 들어 밖으로 향하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은 내려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중품중생인을 취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이며 옷주름은 간략하게 처리하며 가슴 아래 배 위에서 완만한 U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배 위에는 일자형의 띠주름이 승각기처럼 표현되었다.

아미타불의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이 배치되었다. 상호는 눈, 코, 입 등 대부분 아미타불과



[그림 85] 용봉사 대웅전 아미타불

비슷한 모습이다. 머리에는 보관을 썼고, 보관의 중앙에는 화불을 표현하여 관세음보살임을 나타냈다. 가슴에는 한 줄의 영락 장식을 표현하였다. 중품중생인의 수인, 법의, 옷주름의 표현도 아미타불과 비슷하다.

아미타불의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상호, 영락, 법의 등의 표현에서 관세음보살상의 모습과 비슷하다. 보관의 가운데 정병을 표현하여 대세지보살임을 표현하였다. 수인은 관세음보살상과 반대로 표현한 중품중생인을 하였다.

▣ 용봉사지(龍鳳寺址) 석조(石造)

용봉사지 석조는 옛 용봉사 터의 서쪽 계곡에 있었던 돌로 만든 문화유산으로서 마애(碼碯), 석구(石臼), 석조(石槽),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재가 있다. 현재는 용봉사 아랫단에 옮겼는데, 모두 자연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마애는 곡식을 가는데 쓰이는 맷돌, 석구는 돌의 속을 파내어 그 구멍에 곡식을 넣고 찼던 절구, 석조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던 직사각형의 돌그릇이다. 그 크기가 거대하여 옛 용봉사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그림 86] 옛 용봉사 터에 있는 석조(石造)

석조(石槽)는 장방형 화강암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크기는 282cmx114cmx79cm이고, 석조의 테두리 두께는 17~18cm이다.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져 사다리꼴 모양인데, 윗면의 크기는 240cmx104cmx45cm이며, 바닥의 크기는 116cmx83cm이다. 안쪽 바닥에는 긴 쪽으로 치우쳐 원형의 배수공(排水孔)이 지름 15cm 크기로 뚫려 있고, 주변부(周緣部)의 한쪽 모서리에는 폭 10cm, 깊이 7cm의 홈이 파여 있으며, 또한 긴 쪽의 주변부 한쪽에는 일단의 층급을 주었다.

맷돌인 마애(碼礮)는 주구(注口) 방면으로 좁아지는 좁고 긴 타원형으로 전체 크기는 160cmx138cmx35cm이다. 아랫돌은 중심부에 원형으로 지름 54cm, 높이 3cm의 갈판을 두었고, 그 중앙에 지름 7cm, 깊이 10cm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윗돌 역시 아랫부분의 맹이와 비슷한 크기로 가공하였는데, 현재 파손되어 1/3 가량 남아 있다. 현재 크기는 62cmx30cmx18cm이며, 중앙에 직경 6cm, 깊이 8cm의 홈이 관통되어 있다.

돌절구인 석구(石臼)는 직경 82cm, 높이 50cm의 크기이다. 중앙부에 직경 70cm, 높이 40cm의 홈이 마련되어 있다. 홈은 아래로 갈수록 'V'자형에 가깝게 좁아져 최하면 직경이 8cm이다. 방형의 석구는 126cmx115cmx115cm의 크기이다. 두께 13~21cm의 테두리를 두고 중앙에 깊이 47cm의 홈을 팠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재는 85cmx79cmx25.5cm의 크기로, 방형을 띠고 있으나 거칠게 치석되어 있다. 상면에는 너비 2cm의 홈을 둘러 44cmx44cm 크기의 괴임을 마련하였다. 이 석재의 용도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7] 현재 용봉사 아랫단으로 옮겨진 옛 용봉사 터 석조(石槽)



[그림 88] 옛 용봉사 터에서 옮겨 온 석조(石槽)

▣ 용봉사(龍鳳寺) 부도(浮屠)

용봉사 부도는 본래 옛 용봉사 터에 있었던 것을 옮겨 온 것이다. 현재는 용봉사의 가장 아랫단, 일주문 위에 있다. 3매의 화강석재로 대석(臺石), 탑신(塔身), 개석(蓋石)을 구성하였는데, 전체 높이가 1m 정도이다. 대석은 6각으로 각면에는 2엽(葉)씩의 복연(複蓮)을 조각하였는데, 연판(蓮瓣) 사이에는 간판(間瓣)을 장식하였다. 아울러 대석의 윗면 중앙에는 원좌(圓座)를 돌출시켜 탑신을 받았는데, 탑신은 구형(球形)으로 상하면은 평평하게 다듬었다. 개석은 6각지붕으로 내림마루를 두면서 추녀 끝을 약간 반전시켰으며, 정부(頂部)는 상륜(相輪)없이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그림 89] 용봉사 부도



[그림 90] 용봉사 부도군

▣ 용봉사(龍鳳寺)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석탑재

한편 용봉사 대웅전 앞 남쪽에는 석조약사여래좌상 1구와 석탑재 4매가 있다. 1997년도에는 2매의 석탑재가 있었으나, 이후 불사를 통해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석축 계단을 개축하면서 옛 용봉사지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는 별도로 모아 두었다고 한다.



[그림 91] 용봉사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석탑재 전경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다른 곳에서 옮겨 온 불상으로서 우물 위에 별도의 불단을 마련하여 봉안되어 있다. 불상은 전반적으로 백색에 가까운 색조를 띠고 있으며, 머리, 어깨, 다리 등에 파손 부분이 있고, 머리는 별도 제작하여 붙였다. 불상의 크기는 높이 53cm, 어깨 너비 27cm, 무릎 너비 46cm이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들어 가슴 근처에서 중지와 엄지를 맞대고 있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가지런히 펴서 올려놓았는데, 손바닥에 둥근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다. 오른쪽 팔목에는 팔찌를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는 편단우견으로 옷주름이 두껍게 표현되었다. 제작 시기는 조선시대 혹은 일제강점기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석탑재는 현재 괘불대와 석조약사여래상 사이에 4매를 모아 세워 놓았다. 가장 위에 있는 석탑재1은 옥개석으로 보이는데, 모서리 부분이 모두 마모되었고, 1단의 옥개받침이 남아 있다. 현재 크기는 47cm 47cm 22cm이다. 탑신석인 석탑재2는 크기가 44cm 41cm 22cm이며, 모서리에 너비 10cm 내외의 우주를 새겼다. 석탑재3은 옥개석으로 크기는 92cm 92cm 21cm이다.

상면은 46cm 46cm, 최하면은 52cm 52cm이다. 옥개받침은 3단이며 물끓기홈이 마련되어 있고, 상부에 괴임은 없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대체로 평박하게 조성되어 있다. 석탑재4는 탑신석으로 49cm 49cm 42cm의 크기이며, 각 모서리에 12cm 너비의 우주를 새겼다. 석탑재4 아래에는 108cm 61cm 18cm 크기의 장대석을 놓아 지대석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석탑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92] 석조약사여래좌상



[그림 93] 석탑재

2. 상하리사지

가. 개요

상하리사지⁹⁸⁾는 본래 ‘홍성 상하리 빈절골사지’, ‘홍성 상하리사지1’ 등으로 불린 곳이다. 행정구역은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산 1-1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동경 126 38 57, 북위 36 38 36 으로 용봉산 정상과 남쪽의 투석봉에서 이어진 남동쪽 능선 사이 빈절골에 있다. 사지의 해발 높이는 250~265m 사이에 있으며, 정상에서는 동쪽으로 약 430m 정도 떨어져 있고, 사역(寺域) 추정 면적은 3,691m²이다. 발굴 조사 전 절터에는 크고 작은 석축이 여러 단 있었고, 절터 입구에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홍성 상하리 마애보살입상이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문화유산이 방치되어 있어서 수목과 초분류 등으로 인한 훼손이 많았다. 발굴 조사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담당했는데, 2013년부터 진행된 ‘중요 폐사지 시 발굴조사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⁹⁹⁾ 당시 조사는 마애보살입상이 있는 절터 진입 구간(1구역), 대형 석축을 중심으로 주요 유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2구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상하리사지에 대한 1차 시굴조사는 2018년 6월 4일~7월 5일까지(실 조사일 수 13일) 실시했으며, 2차 정밀발굴조사는 2019년 7월 29일~11월 14일까지(실 조사일 수 55일) 진행하였다. 발굴보고서를 바탕으로 상하리사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8)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홍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57책,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99) 홍성 상하리사지 지표조사는 1997년 조원찬이 홍성문화원에서 발간한 『홍성의 문화유적』에서 처음으로 마애보살입상과 상·하 2단의 석축이 있는 빈절골 절터를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림 94] 상하리사지 전경1(북쪽↘)



[그림 95] 상하리사지 전경2(북쪽↘)



[그림 96] 상하리사지 전경3(발굴보고서에서 옮김, 북쪽→)

나. 가람 배치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산 1-1번지에 있는 상하리사지는 지리적으로 동경 126 38 57, 북위 36 38 36에 해당하며, 용봉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투석봉에서 동쪽으로 한 갈래가 이어지고, 북쪽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최영장군바위가 있는 동쪽으로 한 갈래가 나뉘며 만들어진 빈절골의 제일 위에 있다. 발굴보고서¹⁰⁰⁾에 따르면 사역 추정 면적은 3,691㎡이다. 이와 같이 계곡 상단에 자리한 상하리사지는 대형 석축(2구역)과 소형 석축(1구역)을 계단식으로 축조하고, 자연 지형에 맞게 축대를 배치하는 등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대지를 조성했다. 예컨대, [그림 9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구역으로 내려오는 능선 방향과 1구역으로 내려오는 능선 방향이 직각으로 교차하듯 형성되었기 때문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대를 쌓아 건물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건물 배치는 위에서 아래로 급하게 낮아지는 지형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건물 대지의 높낮이를 최소화하면서 높은 곳의 산줄기는 파고 낮은 곳은 흙을 쌓아 건물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역의 건물 배치 조건이 넓지 않아 건물의 증 개축은 대체로 기존의 건물 기초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조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7] 상하리사지 시굴·발굴 조사 배치도(발굴보고서에서 옮김)

10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홍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57책,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상하리사지는 통일신라~조선시대 후기까지 활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찰을 처음 만든 시기로 보이는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는 1구역에서는 1호 추정 문지, 2구역에서는 3호 건물지(금당지) 정도만 확인되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시기의 유구와 중복되어 명확한 가람배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더불어 2구역에서는 금당지를 제외하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한 다른 건물지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2구역의 유물 출토 양상도 금당지 주변에서만 통일신라시대의 선문계 기와편 등이 확인될 뿐, 그외 2구역의 1278 건물지가 있는 다른 곳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림 98] 상하리사지 조사 후 전경(발굴보고서에서 옮김, 북쪽→)

그렇다면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했던 상하리사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확인된 건물지만을 대상으로 추정한다면, 작은 암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그림 9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축대를 쌓아 넓은 공간을 마련한 상하리사지에 단지 금당지 한 동만 조성하기에는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이에 발굴보고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찰 운영과 관련하여 금당지 외에도 적어도 승려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금당지 외에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점, 금동보살입상, 청동방울, 선문계 기와편 등 9~10세기 해당하는 유물들이 1·2구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많은 승려들의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굴보고서는 금당지를 제외한 2구역의 1·2·7·8 건물지가 발견된 곳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건물의 증 개축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존 유구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발굴 당시에는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건물지, 석축, 집석, 배수로, 담장, 석렬 등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증 개축이 진행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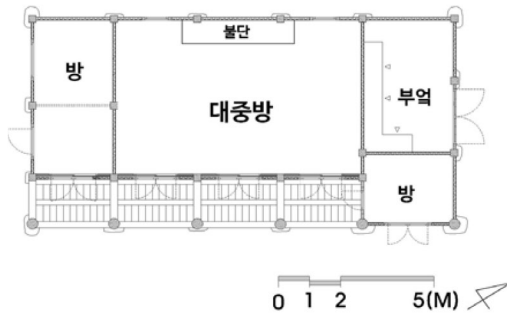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에 이어서 **고려시대에 상하리사지**는 입구에 마애보살입상을 만드는 등 사찰 운영도 더욱 활발하게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상하리사지가 있는 용봉산에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상하리 미륵불 등과 같은 거대한 불상들이 만들어졌고,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폐사지들에서도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많이 보고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용봉산에 ‘99’개의 절이 있었다는 전설과 함께 현재의 용봉천이 조선시대에는 미옥천(米玉川), 또는 ‘싸래기내’라고 불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절의 스님들이 공양할 때 쌀을 씻는 뜨물과 싸래기가 냇물을 뒤덮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고려시대 상하리사지는 금당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생활공간의 확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1구역에는 기존의 문지 뒤편과 마애불 주변에 새로운 건물지가 조성되었고, 2구역에서도 금당지 내부 공간에 증 개축의 변화가 있었으며, 금당지 좌 우측에 1호와 7호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에 확장된 상하리사지는 조선 전기까지 큰 변화 없이 사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 전기에 상하리사지**에서는 1구역에서 2호 건물지 전면에 돌화, 적심 등 문지(3호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이 추가되었고, 2구역에서는 금당지 측면 칸이 남서쪽으로 확장되면서 내부에 새로운 불단(佛壇)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금당지 적심(積心)과 초석열(礎石列)을 재사용하여 건물을 조성했고, 금당지 좌, 우측 생활공간에서도 2호와 8호 건물지가 이전 건물지들과 중복되어 발견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후기

상하리사지는 사세가 상당히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용봉산 일원의 다른 사찰들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여러 문헌과 고지도에서 관찰되었던 용봉사, 청송사, 영봉사, 소암, 수암사, 수암, 송락암 등의 사찰 흔적 가운데 18세기 이후에는 용봉사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상하리사지에서도 조선시대 후기에는 금당지에 불단 시설과 구들 시설 정도만 확인될 뿐, 사역(寺域) 내 다른 곳에서 건물지나 유물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 상하리사지에는 금당지와 승방(僧房)을 함께 조성한 소규모 형태의 암자(庵子)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선 전기부터 불단(佛壇) 앞에 구들을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연도를 설치해서 북서쪽으로 배연(排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는 대방건물지, 또는 인법당(人法堂, 또는 因法堂)¹⁰¹⁾의 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소규모 암자에서 자주 확인되는 건물 형태인데, 인법당은 ‘불전 승방 요소’의 기능이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건축유형인 셈이다. 상하리사지가 폐사 이전에는 이러한 소규모 암자 형태를 유지하다가 18~19세기 즈음 폐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9] 김룡사 금선대 배치도 (도윤수·한동수, 2014에서 편집하여 인용한 것을 발굴보고서에서 재인용함)



[그림 100] 6호 건물지 및 구들 시설 근경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101) ‘인법당 法堂’이라고도 쓰며, 큰 법당을 별도로 갖출 수 없는 사찰에서 한 건물 안에 요사채와 법당이 같이 있거나, 승려의 거처 한쪽을 법당으로 쓰는 작은 절을 말한다. (도윤수·한동수, 2014, 「김룡사(金龍寺) 산내암자(山內庵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P8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흥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57책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발굴보고서를 바탕으로 1·2구역에서 발견된 건물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곳은 1구역이다. 1구역은 금당지가 있는 2구역의 동쪽 아래에 해당하는 곳이며, 금당지를 조성한 대형 석축부터 상하리사지 진입로 구간까지 해당한다.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통일신라~조선시대 해당하는 건물지(적심), 소성 유구, 집석 유구, 배수로, 계단 등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그림 101] 상하리사지 입구(북쪽→, 상하리 마애보살입상_오른쪽 위)



[그림 102] 상하리사지 입구 1구역 축대와 상하리마애보살입상

1구역의 시설물 가운데 1호 석축은 1구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으며, 1구역의 다른 석축 대지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이다. 2호 석축이 남쪽으로 7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4호 석축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졌다.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2구역의 대형 석축과 맞붙어서 건물 대지가 넓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103] 조사 후 1구역 전경(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상하리 마애보살입상_오른쪽 아래,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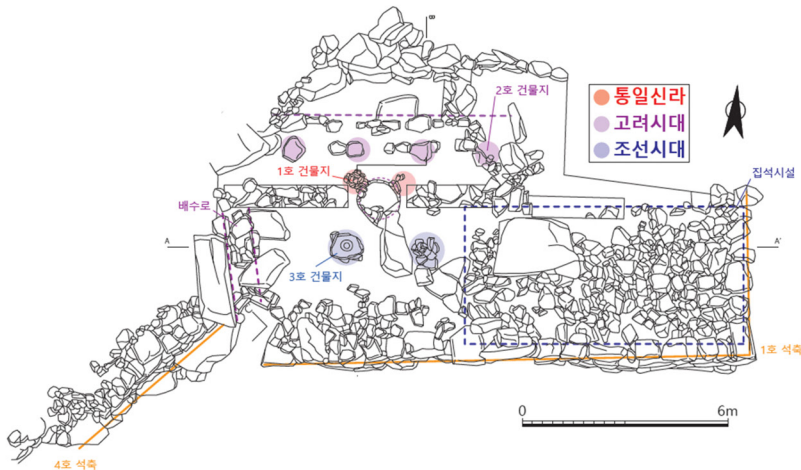


[그림 104] 1구역 전체 평면도(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석축은 경사면을 ‘L’자 형으로 판 후, 하단부에는 50~100cm 크기의 돌을 놓고, 위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돌을 5단 정도 쌓았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석축 길이는 약 14m이다. 그러나 석축 앞에 2호 석축 쪽으로 대형 석재들이 무너진 채 쌓여 있어서 원래 형태나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석축 가운데로 위에는 편평한 긴 돌을 놓고, 좌 우측에는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를 쌓은 배수로로 추정되는 방형 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이마저도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석축 위 건물 대지에서는 통일신라~조선시대 해당하는 건물지(적심), 배수로, 집석 유구 등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4호 석축은 1호 석축의 서쪽 끝에서 확인되었다. 2구역의 석축들과 달리 남동-북서 방향으로 쌓았고, 2구역 1호 대형 석축이 남서쪽으로 5.7m 정도 떨어져 있다. 규모는 긴 쪽 6.7m, 높이 2.1m, 7단 정도만 남았다. 유구 훼손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관련된 다른 유구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림 105] 1구역 1·2·3·4호 석축과 2구역 1호 석축(상하리 마애보살입상_오른쪽, 북쪽↗)



[그림 106] 1구역 1~3호 건물지, 1·4호 석축 평면도(북쪽↑,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1구역 1호 건물지는 1구역 1호 석축 위 건물 대지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10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굴 당시 적심 2기 정도만 확인되었다. 후대에 지은 건물이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지어지면서 1호 건물지의 다른 적심이나 초석열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평면 형태는 알기 어렵지만, 건물의 중심선은 남-북 방향이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적심(積心) 크기는 10~30cm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였으며, 지름은 약 90cm 정도이며, 두 적심 사이의 간격은 140cm이다. 유물은 적심 주변의 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동보살입상과 구리방울 등이 발견되었다. 이 중 **금동보살입상**은 7cm 정도 높이의 소형이며, 주위에서 함께 발견된 유물들과 비교했을 때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굴보고서는 1호 건물지와 그 주변에서 **상하리사지의 창건 시기와 관련된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다른 시대 유구들과 중복이 심하고, 창건기와 관련된 다른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림 107] 상하리사지 1구역 1호 건물지(북쪽→)

1구역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 적심열(積心列)에서 북쪽으로 약 1m 정도 떨어져서 발견되었다.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은 초석, 고막이, 기단열 등이다. 초석은 모두 4기이며, 간격은 약 1.8m이다. 50~70cm 정도의 자연석을 이용해서 조성했으며, 초석 사이는 20~30cm 크기 석재를 이용해



[그림 108] 2호 건물지 초석과 기단열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고막이를 설치하였다. 또한 초석열 북쪽 약 1m 부근에는 30cm 안팎의 석재를 이용해 기단열을 조성하였다. 건물지 중심축은 석축 대지 방향에 맞춰서 남-북향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잔존 길이는 6m이다. 남쪽으로 약 2m 정도 떨어져서 3호 건물지가 있다. 초석 상면과 3호 건물지 적심열이 동일한 높이에서 확인되고, 남쪽 전면부에서 다른 초석이나 적심열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1호 건물지처럼 2호 건물지도 3호 건물지 조성 이후 건물지 전면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물은 2호 건물지 적심열 주변에서 어골문 기와, 청자편 등이 확인되어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지로 추정하였다.

3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에서 남쪽으로 2m 정도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 1호 석축 상단에서 4m 정도 떨어져 있다. 1, 2호 건물지의 추정 중심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간 흐름에 따른 큰 변화 없이 기존 건물지를 활용하여 증 개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돌확과 적심이 발견되었는데, 문지(門址)의 시설물로 알려졌고, 간격은 약 2.2m이다. 1구역을 지나 2구역 2호 석축의 계단을 통해 드나들 때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의 서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시설된 배수로가 발견되었고, 동쪽에는 집석 시설이 있다. **배수로**는 석축 대지 가장 서쪽에서 있어 건물지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바깥으로 배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수로 간격은 약 70cm 정도이고 내부는 바닥면을 20~30cm 자연석의 바른면을 맞추어 시설하였다. 벽석은 본래 자리잡고 있던 원지형의 대형 암석들 사이에 20~30cm 자연석을 쌓아서 사용했다. **집석 시설**은 석축 대지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넓게 깔았는데, 40~80cm 다양한 크기 자연석을 고르게 깔았다. 돌확과 적심을 문지 시설로 추정했을 경우, 문지 주변의 보도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막새와 백자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뤄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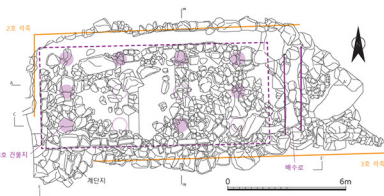
1구역 2호 석축은 1호 석축에서 남쪽 아래로 7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하단에는 3호 석축이 계단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남은 규모는 잔존 길이 10m, 높이 2m 정도이다. 석축 위 건물지에는 크고 작은 돌이 무너져 있었다. 석축의 동쪽은 70~110cm 크기의 큰 자연석을 이용하여 6단 정도 쌓아 올렸고, 서쪽은 40~60cm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4단 정도 쌓았다.



[그림 109] 1구역 1·2·3·4호 석축(상하리 마애보살입상_오른쪽, 북쪽 ↑)



[그림 110] 1구역 3호 석축과 4호 건물지(북쪽↘)



[그림 111] 1구역 3호 석축과 4호 건물지 평면도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1구역 3호 석축은 2호 석축에서 남쪽으로 7m정도 떨어져 있으며, 석축 동쪽에는 마애보살입상이 있다. 2호와 3호 석축 대지의 높이 차는 약 1m이다. 60~120cm 정도의 자연석을 6단 정도 쌓아 올렸고, 잔존 길이는 12m이다. 석축 위 4호 건물지에서는 발굴 과정에서 건물지, 배수로, 계단지가 확인되었고, 이는 마애보살입상과 관련된 시설이었을 것으로 알려졌다.

1구역 4호 건물지는 3호 석축 위 건물지에서 확인되었다. 2호 석축에서 남쪽으로 약 1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동쪽에는 마애보살입상이 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긴 쪽 11.6m, 짧은 쪽 5.1m이며, 기둥 사이의 간격은 정면 2.7m, 측면 1.5m이다. 벽이나 기둥을 겹으로 두른 건물의 안쪽 둘레에 벌여 세운 기둥인 내진주(內陣柱)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단열은 석축 뒤채움석 위에 1단만 쌓아 올렸다. 건물 전면에는 50~80cm 장대석을 사용하였고, 측면과 후면에는 30~50cm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건물지 내에서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바닥에 20~50cm 자연석을 깔아서 바닥면을 정지했던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노출된 석재들이 고르게

깔린 상태가 아니어서 건물지 조성 전 지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시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외 주변 시설은 건물지 남서쪽 석축에서 계단이 발견되었고, 동쪽에서는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계단은 70~100cm 크기의 장대석 6~7매를 4호 건물지 서쪽 끝에 남동-북서 방향으로 시설하여 건물 옆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단의 규모나 사용된 석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후대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수로는 건물지 동쪽 끝 기단에서 폭 80cm 간격을 두고



[그림 112] 1구역 4호 건물지(발굴보고서에서 옮김, 북쪽→)



[그림 113] 1구역 3호 석축 계단 부분(발굴보고서에서 옮김)

1열만 시설해서 사용하였다. 방향은 건물지 기단을 따라서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었다. 내부에서 판석 형태의 배수로 덮개석이 매몰되어 있어서 암거(暗渠) 형태 배수로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상하리사지의 중심 구역으로 볼 수 있는 **2구역의 건물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빈절골에서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2구역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건물지로서 금당지는 큰 돌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고 건물지를 만든 공간의 중앙에 있다. 더불어 **금당지는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 건축한 건물의 형태와 축선을 유지하며,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지어서 활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의 적심석(積心石) 상부에 새로운 적심(積心)을 시설하거나, 초석(礎石)을 재사용하면서 건물을 지었다. 고려시대에 금당지 3, 4열 후면의 칸이 건물 뒤(서쪽)로 50cm 이상 이동하면서 내부 공간을 확장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전 시대의 기단을 계속 이용하거나, 일부를 새로운 석재로 보강한 정도이다.

한편 금당지 서쪽은 용봉산 정상에서 곧바로 이어진 능선의 경사면과

큰 바위가 있어서 별도 시설이 없이 용봉산 능선과 자연적인 경계가 형성되었다. 금당지의 앞(동쪽)에서 왼쪽(북쪽)으로 이어진 1호 석축(발굴보고서)을 쌓았다. 발굴 당시 발견된 기단열로 볼 때, 금당지의 건물 크기는 긴 쪽 9.8m, 짧은 쪽 9.5m로서 정사각형에 가깝다. 기단열은 전체적으로 1.1m~1.3m 장대석을 이용하였다. 물론 일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석재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시간 흐름에 따른 개보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알려졌다.



[그림 114] 2구역 전체 평면도(발굴보고서에서 옮김)



[그림 115] 조사 후 2구역 전경(발굴보고서에서 옮김, 북쪽→)



[그림 116] 2구역 건물지 축대(금당지, 북쪽↑)



[그림 117] 2구역 건물지 전체(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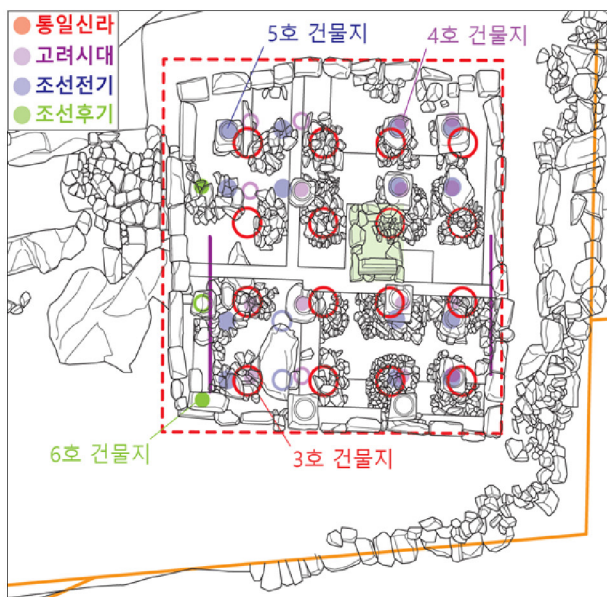


[그림 118] 2구역 건물지 부분(북쪽 ↑)



[그림 119] 2구역 건물지 중 금당지(북쪽 ↓)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금당지는 [그림 1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대별 적심(積心) 위치에 따라 총 4차례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 **3호 건물지는 통일신라시대**, **4호 건물지는 고려시대**, **5호 건물지는 조선 전기**, **6호 건물지는 조선 후기에**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 **통일신라시대의 3호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크기로, 기둥 사이의 거리는 정면이 ‘1.8m-3.5m-1.8m’, 측면은 2m이다. 내부 적심은 10~30cm 석재를 이용해 조성했다.



[그림 120] 2구역 금당지 평면도(발굴보고서에서 옮김)

고려시대의 4호 건물지는 3호 건물지 상면에 중복되어서 확인되었다. 3호 건물지 적심 위에 사질점토를 깔아서 땅을 정리한 후, 30~40cm 크기 석재를 이용해 적심을 시설하고 초석(礎石)을 올렸다. 초석들은 80~100cm 크기 방형 석재들을 사용했으며, 상면에 원형 주좌(柱座)를 새겼다.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기둥 사이의 거리는 각각 ‘1.6m3.5m-1.6m’, ‘2.0m2.5m-2.0m’이다. 발굴 당시 치미편, 선문계 기와편, 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전기의 5호 건물지** 역시 이전 시대의 초석을 재사용했으며, 이전에 조성되어 있는 적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앞 시대와 같지만, 기둥 사이의 거리는 정면이 ‘1.6m-3.5m-1.6m’, 측면이 ‘2.0m-3.0m-2.0m’로서 측면의 가운데가 약간 커졌다. 현재 남아 있는 기단과 관련된 시기로 보이는 기단과 초석 간 거리는 1.7m이다. 5호 건물지에서는 불단(佛壇)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설도 발견되었다. 시굴 조사에서는 안상이 새겨진 면석, 장대석 등 석재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발굴 당시에는 불단의 하부구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긴 쪽 2.4m, 짧은 쪽 1.7m이고, 20~50cm 정도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바른면만 맞추어 쌓는 방법으로 불단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단 내부 조사 과정에서 소조 불상편으로 추정되는 토제품도 수습되었다.

조선시대 후기의 6호 건물지는 초석, 적심 3기와 추정 불단 주변에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다. 건물 규모는 잔존 초석 및 적심으로 추정할 때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정면의 경우 기둥 사이의 거리가 ‘2.5m-3.2m-2.5m’로 변했다. 초석은 이전 시기 초석들과 불단 상면에 중복되어 조성하였다. 구들시설은 초석열을 기준으로 1행과 2행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5호 건물지 불단 전면 1칸에만 시설되어 있었다고 한다. 발굴 당시 확인된 시설은 구들둑, 배연부, 아궁이가 있으며, 고래는 3줄을 발견하였다. 아궁이는 건물지 남서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동쪽에는 구들과 배연부가 있다. 내부에서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원형 수혈 정도만 남아 있었으며, 소토와 목탄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구들은 대부분 상단 덮개석이 남아 있었는데, 구들고래 위에 40~50cm 판석을 깔아서 사용하였고, 구들둑은 20~30cm 자연석을 1단만 세워서 사용했다. 상면에는 불단 시설과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담장이 8m 정도 발견되었다. 이외 금당지 앞면(남서쪽) 기단에서 보도시설이 발견되었다. 40~70cm 크기 판석을 이용해 설치하였으며, 건물지 배면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암반에 맞춰 조성하였다. 이는 금당지와 1, 2호 건물지 사이의 석단과 연결하는 출입 시설로 알려졌다. 6호 건물지에서는 중호문계 평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2구역 **1호 건물지**는 금당지의 남서쪽에서 발견되었고, 보도(步道) 석렬(石列)과 석단(石段)으로 금당지와 연결되어 있다. 금당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건물을 지어서 금당지와 위계(位階)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호 역시 조사 당시에는 기단열만 남아 있고, 내부 시설은 후대의 건물이 조성되면서 모두 재사용하여 명확하게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발굴보고서는 조선시대 건물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이전 시대에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건물의 성격은 승려들의 생활시설과 관련이 깊은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21] 2구역 1·2호 건물지 평면도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그림 122] 2구역 금당지와 금당지 남쪽 1·2호 건물지 연결 부분(북쪽 ↑,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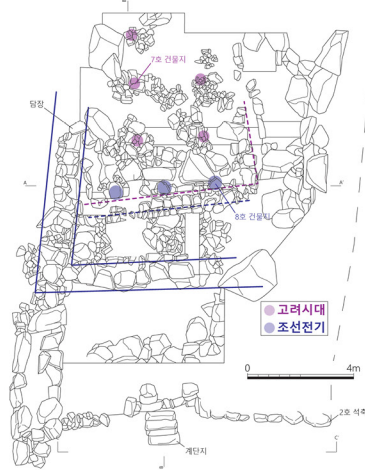


[그림 123] 2구역 금당지 남쪽 1·2호 건물지 부분(북쪽 ↑,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금당지 남서쪽의 1호 건물지와 중복하여 발견된 **조선시대 전기의 2호 건물지**는 고려시대에 지은 1호 건물지와 중복되어 발견되었는데, 2호 건물지에서도 아궁이와 구들 시설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2호 건물지 주변에서 배수로나 추가로 설치된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2호 건물지에 모이는 물을 대형 석축과 건물지 바깥으로 빼고자 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려시대에 조성된 7호 건물지**는 2구역의 다른 건물지의 중심 축선보다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7호 건물지도 1호 건물지와 마찬가지로 승려들의 생활시설로 알려졌다. 건물지 내부에서는 적심 5기가 확인되었고, 바닥에는 소토, 목탄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아궁이, 구들과 같은 취난(炊爨)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2칸만 남아 있었고, 적심은 30~50cm 돌을 1단만 쌓았다. 기둥 사이의 간격은 정면 2m, 측면 2m이고, 전면 기단과는 2.5m, 측면 기단과는 2.7m 정도 떨어져 있다. 정면 기단은 긴 쪽이 5.5m인데, 50~60cm 석재를 사용해 1단만 쌓았다. 그러나 기단석 위에서 8호 건물지 초석열이 확인되어, 8호 건물지가 들어서면서 7호 건물지의 정면 칸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측면 기단은 북서-남동 향이며, 남은 긴 쪽이 5m로서 50~60cm 크기의 돌로 1단만 조성했다. 출토 유물은 선문계기와편, 추정 치미편, 당초문마루암막새, 어골문 기와편, 청자편 등이 있다.



[그림 124] 2구역 7·8호 건물지(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8호 건물지**는 7호 건물지의 기단열 상부에 초석열을 설치해서 건물을 지었다. 초석은 3기가 발견되었는데, 7호 건물지의 기단석 위에 놓았으며, 간격은 1.4m이다. 전면에는 기단열이 있는데 초석과 간격은 80cm이다. 30~50cm 석재를 이용해 남서-북동 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하단에는 지대석이 나란하게 놓였다. 주변에는 담장을 설치해 금당지와 영역을 구분하여 개별영역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토 유물은 조선시대 평기와와 자기류 등이 있다.

다. 출토 유물: 기와류

[수막새]

발굴보고서¹⁰²⁾에 따르면, 상하리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16점이며, 형태는 원형(圓形), 문양은 연화문만 확인된다. 수막새의 형태와 연판, 자방, 주변부 높이, 내면 포목흔 유 무 등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

102)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홍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57책,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암막새]

발굴보고서¹⁰³⁾에 따르면, 상하리사지에서 출토된 암막새는 15점이며, 문양은 당초문과 보주형문이 있다. 암막새 평면은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까지 확인되는 장방형 형태(15세기 전반) → 막새 상 하 폭이 기존보다 넓어지고 굴곡이 생기는 삼각형 형태(15세기 중 후반) → 막새 상 하 폭이 이전보다 더 넓어지는 삼각형 형태(16세기 이후)가 있음을 밝혔다. 막새의 평면 형태, 주연부 높이, 내면 포목흔 유 무 등을 고려할 때, 수막새와 비슷하게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중기까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하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세를 유지해 왔음을 밝혔다. 특히 고려시대 전용 암 수막새가 중요 건물지에서 발견된 것은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상하리사지의 모습을 알려준다고 했다.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출토된 암막새 중 보주형 도상이 새겨진 막새도 발견되었다. 이 막새는 개성

103)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홍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57책,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만월대, 논산 개태사지, 원주 법천사지, 익산 미륵사지, 달성 용리사지, 양주 회암사지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양의 막새 편년은 ‘癸丑(1313~1373년)명 개태사지 막새’와 ‘天順八年(1464년)명 익산 미륵사지 막새’를 바탕으로 14세기 초에서 15세기 중 후반까지 제작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기와]

발굴보고서¹⁰⁴⁾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 평기와는 대부분 선문이 주류를 이루며, 중판으로 타날되어 상단은 사선, 하단은 직선으로 타날된다. 수키와 형태는 토수키와가 다수를 이루고, 일부 미구가 긴 수키와도 확인된다. 타날면은 각진타날과 둥근타날이 모두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타 문양과 복합된다. 타날판은 장판으로 정형화되며, 토수키와가 사라지고 미구기와만 확인된다. 외면의 타날면 역시 각진타날면이 사라지고 둥근타날로 변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깎기 및 물손질 조정으로 혼용되던 하단내면조정은 물손질 조정으로 정형화된다. 이후 평기와 제작 기법이 정형화되면서 조선시대까지도 제작기법이 유지된다.

홍성 상하리사지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68점이다. 상하리사지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주 문양은 크게 선문과 격자문, 어골문, 창해파문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선문계 기와편,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편, 조선시대 창해파문 기와편이 사역 전반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이를 통해 상하리사지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역이 축소되지 않고, 일정한 규모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보고서에서 옮김]

라. 출토 유물: 금동보살입상

금동보살입상¹⁰⁵⁾은 대좌와 상이 일체로 제작되었다. 보살상 전체 높이는

10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홍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57책,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5)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홍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6.7cm이며, 두부 높이 1.4cm, 대좌 높이 1.7cm, 대좌 너비 2.7cm이다. 전체적으로 앞과 옆까지만 성형하고, 뒷부분은 성형하지 않았다. 배 뒷부분에 성형된 고리는 처음부터 보살상 대좌와 일체로 주조하였다.



[그림 125] 상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발굴보고서에서 옮김)

머리는 보관(寶冠)을 쓰지 않고, 높은 보계(寶髻)로 표현하였으며, 모발(寶髮)은 귀 뒤로 흘러내려 양쪽 어깨를 덮었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고, 눈은 가늘고 길게 표현하였으며, 코와 입은 얼굴에 비해 큰 편이다. 목은 거의 신체와 붙은 듯 매우 짧아 삼도의 표현이 없으며, 목걸이 등 장신구도 없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향하고 손바닥을 보인 시무외 여원인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배 부분에 몰려 있어 어색하다. 다리는 두꺼운 옷 때문에 보이지 않고, ‘U’자 형의 옷주름 아래로 대좌 위에 가지런히 모은 발이 보인다. 보살상의 옷을 입은 모습은 크기가 작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상체에는 옷을 입지 않고, 천의(天衣)를 걸쳤는데, 양쪽 어깨를 감싸며 팔에 걸쳐 늘어뜨린 천의가 무릎 아래 발 위치까지 길게 표현되었다. 하반신에는 군의(裙衣)를 입은 듯 표현하였다. 군의 주름은 네 겹의 ‘U’자 형으로 배 아래 하반신을 덮고 있다. 보살상 뒤에 돌출되어 있는 고리는 수평 방향으로 성형되었는데, 크기는 0.8cm이며, 고리 내에 철심이 관통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형태로 보아 이 고리에 걸었던 광배는 별도로

『학술총서』 제57책,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제작되어 철제 꽃이로 꽃은 두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좌는 상대와 하대로 구성하였다. 상대는 원추형에 가까우며, 높이는 0.5cm이다. 하대는 높이 1.2cm이며, 입면은 삼각뿔에 가까운 형태이고 평면은 4엽 화형(花形)이다. 하대 각 면의 가운데는 원형으로 뚫었다.

요컨대, 상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보계가 높이 솟은 머리 형태, 시무외 여원인에 가까운 수인, 장신구가 거의 생략되고 천의를 팔에 걸쳐 늘어뜨린 점 등이 8세기 후반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보살상의 특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의(裙衣) 주름의 형태가 양쪽 다리에 각각 ‘U’자 형 옷주름을 형성하는 통일신라시대 보살상의 일반적인 옷주름과 달리 배 아래부터 무릎 아래까지 양쪽 다리 위에 통견의 의습(衣褶)처럼 표현한 점, 대좌 형태가 팔각 또는 원형의 연화대좌가 아닌 점 등은 통일신라시대 보살상의 전형 양식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불상 양식에 변화가 시작되는 과도기에 제작된 작품으로서,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또한 상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작은 크기로 미루어 호신불(護身佛)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상하리 마애여래입상은 1구역 가장 아래쪽의 암반면에 남서향(S-60°-W)으로 새겼다. 이곳은 상하리사지의 사역(寺域) 입구에 해당한다. 암반은 사역으로 들어가는 등산로의 오른쪽에 있으며, 마애불에 이르는 작은 길이 있다. 마애불 앞에는 2.5m 2m 규모의 예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 126]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주변 환경



[그림 127]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전체 모습(정면)

마애불은 높이 4m, 너비 2.5m의 암반면에 새겨져 있으며, 광배를 포함한 전체 높이는 400cm이다. 불신은 전체 높이 297cm, 어깨 너비 122cm, 최대 너비 135cm이다. 머리와 상반신 부분은 5~10cm의 두께로 돌을새김으로 조각하였고, 하반신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졌으며, 광배는 선각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마애불의 하부 암반면이 약 3cm 깊이로 파였는데, 하부보다 상부를 도드라지게 새기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128]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돌을새김

머리 부분은 보관(寶冠)을 포함한 전체 높이가 89cm이다. 얼굴은 높이 54cm, 너비 55cm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눈썹은 움푹 들어간 면까지 깊게 조각하여 활처럼 둥글게 표현하였다. 눈은 가늘게 뜬 모습이며, 양쪽 옆으로 살짝 치켜 올라간 듯 직선적으로 표현하였다. 눈 위와 밑 부분을 조금 깊게 조각하여 눈두덩과 눈 밑 살까지 표현하였다. 코는 돌을새김에 따라 높지 않으며 약간 옆으로 벌어진 느낌이다. 입술 주변을 좀 더 깊게 음각하여 약간



[그림 129]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얼굴과 보관 부분

도톰하게 표현된 입술은 옆에서 보면 일(一)자로 다문 듯, 아래에서 보면 ‘ㄱ’ 모양이다. 귀는 얼굴 옆에 얇게 새겨졌고,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다. 보관은 크기가 높이 35cm, 너비 97cm이며, 2단의 관대 위에 화문의 입식이 장식되어 있는 화형보관이다. 보관 아래에는 발제선(髮際線, 머리털이 난 끝선)이 능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관의 입식은 화문과 고사리형 문양 등이 여러 겹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알려졌다. 중앙의 가장 높은 입식에는 화불이 새겨져 있는데, 공수 자세를 한 통견의 여래좌상으로 추정되며, 하부에는 연화대좌가 표현되어 있다. 화불 및 입식의 세부 장식은 마모로 인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화불의 양쪽 옆에는 화염문과 같은 장식에 둘러싸인 꽃장식의 입식으로 장식되어 있고, 보관 양 끝에는 매듭 모양의 관대 묶음과 같은 것이 있다.¹⁰⁶⁾

106) 이러한 화형보관은 앞 시기인 통일신라 후기나 고려시대에 마애불상, 석불, 금동불 등에서 사례가 많지 않다. 9세기 후반 또는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 영주동 석조보살입상, 상주 신봉리 석조보살입상은 **홍성 상하리 마애보살입상**과 같이 여래의 착의 방식에 화형보관을 착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세 보살입상과 같은 형식은 여래형 복식의 원통형 보관 보살상이 유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뚜렷한 존명은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 후기에 이미 대의를 착용한 보살상의 도상이 중부 지역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박영민, 2023, 「고려시대 마애조상 연구」, 동국대대학원 미술사학과

착의법(着衣法)은 보살상이지만 대의(大衣)를 입었고, 통견(通肩)이다. 목둘레에는 대의의 옷깃을 표현하고, 가슴부터 무릎 아래까지는 흘러내린 옷자락의 주름을 완만한 ‘U’자 형으로 표현하였다. 조각의 깊이가 얇아 선각(線刻)처럼 보이지만, 세심하게 표현하였다. 대의(大衣) 가운데 오른쪽 옷자락은 가슴 아래 무릎까지 이어진 옷자락의 주름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면서 반듯하게 내려 다리에 붙인 오른팔을 휘감고 돌아간 모습을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왼쪽의 옷자락은 오른쪽과 다르게 왼팔을 들어 올린 상황에서 나타나는 옷 주름을 세심하게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어깨 부분은 두 가닥의 선각으로 통견의 대의 자락이 왼쪽 어깨를 휘감아 돌아가고 왼쪽 어깨 아랫부분은 왼쪽 팔을 들어 올린 탓에 더 많아진 옷 주름과 겨드랑이로 쏠려 들어간 옷 주름까지 표현하였고, 왼쪽 손목 아래는 길게 내려진 옷자락의 안쪽까지 약간의 돌을새김으로 조각하였으며, 왼쪽 팔 아래로 길게 늘어진 대의 자락의 옷 주름도 세심하게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무릎 아래는 대의 속에 착용한 군의(裙衣) 자락이 약간 벌린 양쪽 다리에 ‘U’자 형의 옷 주름을 선각인 듯 돌을새김으로 표현하였다. 더불어 무릎 아래 양쪽 다리뒤로 넓게 퍼져 내려온 대의 자락과 가랑이 사이에 보이는 대의 자락까지 회화적인 선각으로 표현하였다. 수인(手印)은 왼손을 들어 가슴까지 올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모습으로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나 손가락이 서로 붙지는 않았으며, 오른손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 다리에 붙이며 손등을 보인 채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팔을 길게 내려 다리에 붙이고 왼팔을 들어 올린 모습은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가마밭골사지 출토 얼굴 없는 ‘석조여래입상’,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등에서 볼 수 있는 홍성지역만의 지역적 특색이다. 발은 정면을 향하여 가지런히 서있는 돌을새김으로 조각하였고, 방향으로 새겼으며, 발가락 부분만 돌을새김하였다. 대좌는 새겨져 있지 않다.



[그림 130]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다리와 발가락 부분

광배는 두광과 신광이 모두 새겨져 있다. 두광은 직경 145cm로, 두께 10cm 내외의 테두리가 이중으로 있는 원광(圓光)이다. 내부에 화염문 등의 문양은 새기지 않았다. 신광은 제한된 바위 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얇게 음각하였으며, 최대 너비 168cm이다.

상하리 마애보살입상은 기존의 조사자료에서는 보관을 쓰고 있어 모두 ‘보살상’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착의법과 수인이 여래상에 가까운 점, 보발 등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보관을 쓴 여래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의의 옷깃이 목둘레에 형성되면서 하반신까지 ‘U’자형의 주름을 형성하는 형태의 착의법을 취한 여래입상이 홍성 및 인근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양식의 불상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애불은 이목구비의 표현, 보관의 양식적 특징, 장식성이 배제된 광배의 표현 등 9~10세기에 제작된 통일신라 불상 양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 시기는 나말여초로 추정된다. 더불어 마애불이 있는 상하리사지에서 통일신라~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 점도 마애불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¹⁰⁷⁾

한편 상하리 마애보살입상은 통일신라 불상 양식과 고려 양식이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마애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⁸⁾ 이 견해에 따르면, 10세기에 통일신라 양식과는 구별되는

10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21, 「한국의 사지-홍성 상하리사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57책,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8) 박명민, 2023, 「고려시대 마애조상 연구」, 동국대학교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고려 양식의 출현이 보살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 양식의 ‘공존기’이자 ‘과도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리 마애보살입상인데, 머리에는 통일신라 보살상의 보관과 유사한 화형 입식의 보관을 쓰고 있지만, 착의법은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등 고려 전기 보살상처럼 대의(大衣)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용봉산 일원은 통일신라~고려시대에 불교가 융성했던 지역으로서, 799년에 제작된 홍성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등 통일신라 후기 불상과 다수의 고려시대 불교 유적이 분포한다. 이는 상하리 마애보살입상의 조성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고려시대에 들어 운주(홍성) 지역이 주요 거점 도읍으로 주목받았다는 사실 또한 이 상의 조성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필 조원찬]**



[그림 131] 상하리사지 출토 석재



용봉산의 민속



1. 민속의 의미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남겨놓은 발자취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다양한 발자취들을 모두 민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살펴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꾸준히 행해지면서 하나의 풍습으로 굳어져 내려온 생활 모습을 민속이라고 볼 수 있다.

민속은 각 지방의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그 지방마다 독특한 생활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는 홍성군 지역 안에서도 바닷가와 내륙 지역의 특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오랜 세월동안 독특하게 형성되면서, 그 지역의 생활감정을 표현하며 전해 내려 온 생활 모습들은, 오늘날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속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용봉산의 지역적인 특색

용봉산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펴보면, 해발 381m로서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덕산면에 걸쳐있는 산이다. 특히 홍성군은 2013년부터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대전직할시에서 홍북읍 일대로 이주해 오면서 명실공히 충청남도의 수부도시가 되었다. 용봉산은 충청남도청소재지가 자리 잡은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를 품에 안고 있는 진산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다.

특히 용봉산은 수많은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산 전체가 바위로 덮여있는 돌산이며, 바위틈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들은 거대한 분재공원을 연상시킨다.

용봉산 돌 틈에 뿌리를 의지하고 사는 다양한 나무들은 등산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용봉산에 오르면 형형색색의 기암괴석과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용봉산의 경치들은 많은 시인 묵객들의 작품 속에도 등장하며 전해온다.

용봉산은 골짜기마다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절골·악귀봉골(산세가 뾰족뾰족함)·산제당골·가마밭골·미륵골·천승골·은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마다 불교문화의 창고라고 불릴 만큼 불교와 관련된 절터와

문화유적과 설화 등이 다양하게 전해온다. 용봉산 곳곳에 남아있는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은 오랜 전통으로 굳어지며 민속으로 전승되고 있다.

3. 용봉산에 전해오는 마을공동체신앙

가. 마을공동체신앙의 역할과 의미¹⁰⁹⁾

마을공동체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을 마을 신당에 모셔놓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제의를 의미한다. 그동안 이를 ‘동신신앙’ 또는 ‘마을신앙’ 등으로 표현했으나, 요즘에는 ‘마을공동체신앙’이란 말을 널리 쓰고 있다.

마을공동체신앙의 목적은 주로 마을과 개인의 평안과 번영 기원, 풍년 기원, 행상 안전기원, 주민이 단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동제의를 받는 대상 신은 지역별로 산신·용왕신·목신(木神) 장승·미륵·노신(路神)·오방신(五方神)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제의를 올리는 장소는, 당집이 있거나 있었던 마을, 제단만 있는 마을, 제사 당일에 임시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는 마을, 신목(神木)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마을, 장승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마을, 바위 앞에서 지내는 마을 등이 있다.

마을공동체신앙의 제관 선정은 제일 1주일 또는 열흘 전에 마을의 원로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서 선정한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제관으로 선정된 주민은 목욕재계하며 엄격한 금기를 지켰으나 요즘에는 이런 관념이 대부분 약화되었다. 대부분 마을공동체신앙은 유가식이며 제물은 삼색실과와 떡, 김, 포, 미역, 술, 돼지머리 또는 소머리 등이다.

옛시절의 마을공동체신앙의 비용 마련은 풍물패가 다니며 걸립하여 모았으나, 요즘은 마을 기금과 뜻있는 사람의 찬조로 충당하고 있다. 요즘에는 흥성문화원과 유관 단체에서 제의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현대의 마을공동체신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신앙적인 의의를 지닌다. 시대가 변하며 신앙심이 많이 퇴색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을과 주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이는 원초적인 신앙심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신앙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 주민들의 단합과 우의를 다지며 애향심을 기른다. 마을 사람들이 합동으로 마음을 합쳐 산신에게 제를 올리며 똑같은 마음으로 마을과 개인의

109) 최운식·김정현, 『흥성의 마을공동체 신앙』(흥성문화원, 1999년), 15쪽~21쪽.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제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심리적인 유대와 단합을 이뤄내는 역할을 한다.

셋째, 마을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게 해 준다. 대부분 마을에 전해오는 공동체신앙은 오랜 역사성이 있으므로 공동운명체라는 소속감을 확인하게 해준다. 사회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마을의 중심점이 되어주며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넷째, 마을공동체신앙은 민주주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공동체예의를 준비하며 서로 협의하여 제관을 선출하고, 제의 비용을 결정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방식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또한 제의가 끝나면 차렸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제비를 결산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밝힌다. 여분이 있으면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마을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예전부터 전해 오는 한국의 전통적인 대동 의결 기구를 통한 민주주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용봉산 산신제의 실제

용봉산 산신제의 전통을 이어오는 곳은 흥북읍 상하리 하산마을이다. 하산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용봉산 중턱 동남쪽 기슭 산제당골이다.

용봉산 산제당골에서 바라다보면 흥성읍과 흥북읍(내포신도시)이 한눈에 건너다보인다. 용봉산 아래로는 흥성과 덕산 방면으로 통하는 지방도가 시원스럽게 지나가고 있으며, 마을 앞쪽으로는 용봉천(일명 싸라기내)이 흐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산제 지내는 바위를 산제당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적인 건물은 없고 거대한 자연 암석 앞에서 매년 정초에 산신제를 지낸다.

하산마을의 용봉산 산신제는 제의 절차와 금기사항을 옛날처럼 엄격하게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신성한 마음으로 옛 모습을 이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용봉산 산신제는 구전에 의하면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므로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1974년부터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하산마을은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이종광씨도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산신제를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통 민속이며 옛풍속을 이어나가려는 마음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도 큰 갈등 없이 함께 참여한다.



용봉산 산제당 모습



산제당 제단과 제기 보관 모습

1) 명칭 : 용봉산 산신제

2) 산신제에서 모시는 신 : 호랑이

3) 산신제단의 위치 :

용봉산 동남쪽 중턱에 산제당골이 있다. 산제당골은 산신제를 지내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제당골 자연 암석 앞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4) 산신제단의 모습 :

하산마을 바로 뒤편에 있는 산제당 골짜기를 따라 오백 미터쯤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다. 큰 바위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도 될 만큼 넓고 평평하다. 산신제를 올리는 곳은 자연 암석으로 되어 있다.

5) 산신제의 유래와 목적 :

산신제의 유래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는 호랑이의 피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마을의 번영, 주민들의 무사 안녕, 마을의 단합 등을 목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수백 년 역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산신제의 역사를 고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마을에서는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4년부터 산신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6) 산신제 날짜 :

옛날부터 음력 정월보름 전에 호랑이〔寅〕날을 잡아서 지내왔다. 현재도 이와 같은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산신제 날짜가 정해지면 마을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린다. 주민들에게 살생이나 언쟁 등을 삼가고 몸과 행동을 경건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산신제 당일에도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7) 산신제의 주관자 :

옛날 용봉산 산신제는 제관과 축관이 주관했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서 축관 한 명과 함께 제관 4명을 선출했다. 제관은 초하루나 초이튿날 선출했다. 제관 중에서 한 명은 제물을 준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산신당 주변을 정리 정돈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과 축관이 산신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했다.

현재는 산신제 주관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옛날에는 축복받는 일이므로 서로 주관자로 선택받고자 경쟁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주관자로 선정되면 제물 준비와 금기사항 등 번거롭고 힘든 일이 많아서 대부분 회피하려는 분위기이다.

현재 산신제 주관자는 마을 임원 회의에서 주당 1명, 제관 1명, 축관 1명을 선정한다. 그해 생기복덕과 삼재(三災)가 없는 주민 중에서 선정한다.

특이한 것은 주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며 제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한다. 주당은 집에서 손수 절구통을 사용하여 방아를 찧고 시루떡을 찐다. 축관은 축문 작성과 소지를 준비한다. 제관은 제의에 필요한 행사를 진행하고 원새끼 등을 꼬아 산제당에 금줄 치는 역할 등을 한다. 마을이장은 주관자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산신제의 모든 과정을 살펴서 이끌어가고 제물을 구입한다.

8) 금기사항 :

옛날에는 금기사항을 엄격하게 지켰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엄격한 금기사항이 뒤따랐다. 한겨울에도 냉수로 목욕을 하고 바깥출입이나 음식 섭취도 조심했다.

부부관계, 상가 출입, 살생 등을 금지하고 절대로 피를 보지 말아야 했다. 심지어 산신제가 끝날 때까지 나무도 하지 않았다. 나무를 하는 중에 상처가 나면 피를 보기 때문이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7일을 연기한 후에 산신제를 지냈다.

마을 공동우물은 며칠 전부터 금줄을 치고 샘제를 지낸 후에 깨끗한 물로 산신제 음식을 장만했다. 마을사람들은 집안의 생활용수를 위해 미리미리 물을 떠갔다. 지금은 이와 같은 의식은 생략하고 있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각각 집 대문 양쪽에 황토를 3무더기씩 6무더기를 뿌려놓고 잡귀의 접근을 막았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았다.

제물을 구입할 때도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 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걸어서

시장으로 갔다. 제물값은 절대로 깎아서도 안 되고 한 번 들어간 가게에서 반드시 사야 했다.

현대에는 이와 같은 엄격한 사향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 옛날과 같은 금기사향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지만, 각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옛날이나 현재나 산신제 지내는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3년 전에 모 신문사에서 산신제를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다. 하지만 옛날부터 주관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해온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거절했다.

9) 산신제 제물 :

산신제 제물은 삼색실과(밤 대추 곶감 사과 배), 돼지머리, 밥, 탕, 포 등을 준비한다. 제물은 옛날이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옛날처럼 제물구입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금기사향은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10) 산신제 절차 :

① 산제당 청소, 전년도 금줄 제거, 축문 작성 등

산신제 전날에 산제당에 올라가 전년도에 쳐놓았던 금줄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산신당에 보관했던 제기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하산한다. 산제당에서 하산한 후에는 주당 집으로 와서 그해에 사용할 금줄을 장만한다. 금줄은 짙은 짙으로 원새끼를 꼬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지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② 제물 구입

산신제 당일에는 새벽에 흥성장으로 나가 제물을 구입한다. 제물을 고를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손짓으로 가리키며, 값을 깎지 않고 한곳에서 구입한다. 제물을 구입하러 오갈 때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외진 길을 이용한다.

③ 금줄 치기

제물을 구입한 후에는 아침 일찍 주당과 제관들이 산제당에 올라가 전날 준비한 금줄을 친다.

④ 산신제 음식 준비

산제당에 금줄을 치고 내려온 일행은 주당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대부분 산신제 음식은 여성 주당(주당의 부인)이 담당한다.

떡(백설기)은 주당집에서 직접 시루에 찌낸다. 통버를 절구통에 넣고 절구질로 껌질을 벗겨낸 후에 쌀을 물에 서너 시간 불린다. 물에 불린 쌀을 다시 절구통에 넣고 절구질로 가루를 만들어 시루에서 찌낸다. 떡은 시루 전체를 그대로 산제당으로 지고 올라간다. 또한 돼지머리도 귀나 코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뤄서 익힌다.

⑤ 축문과 소지 준비하기

여성 주당이 떡을 찌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축관은 축문과 소지를 작성한다. 축문이란 제례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유세차”로 시작하여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등의 육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⑥ 산제당 올라가기, 제물 진설하기

산신제 준비가 모두 끝나면 오후 5시경에 제물을 지계에 지고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주당 집에서 제복을 갖춰 입고 산제당으로 올라가 제물을 진설한다.

⑦ 산신제 지내기

용봉산 산신제는 술을 대신하여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또한 호랑이 신만을 모시므로 잔은 하나만 놓는다.

모든 제물은 통째로 진설하며 맨 앞줄은 삼색실과를 진설하고, 둘째줄은 돼지머리와 포 등을 진설하고, 마지막 줄에는 백설기를 통째로 진설한다. 제물진설 양쪽에는 촛불을 켜놓고 제의를 진행한다.

-강신례

제물 진설이 끝나면 맨 먼저 강신례를 진행한다. 강신례란 향을 피워 신을 초청하는 의식이다. 제관은 잔에 청수를 따른 다음, 주변 땅에 세 번 나눠 뿌린다.

-초헌례

강신례가 끝나면 제관은 잔을 올리고 세번 절하는 초헌례를 한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한번 절을 하고 나면 독축을 한다. 독축은 축관이 담당하는데, 이때 다른 제관들은 부복하고 엎드린다. 독축이 끝나면 재배를 함으로써 초헌례가 끝난다.

-아헌례

초헌례가 끝나면 주당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를 진행한다. 아헌례도 세 번 절한다.

-종헌례

아헌례가 끝나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를 올린다.

-소지 올리기

종헌례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제관이 대동소지를 먼저 올리고 이어서 주당과 축관이 함께 개인 소지를 올린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개인소지를 올렸지만 현재는 마을 전체를 위한

대동소지만 올린다.

-하산하기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전체가 모두 3배를 하고 음복한다. 음복이 끝나면 제물을 걷고 제기는 산제당 한곳에 보관한다. 산신제에 사용한 제물 일부는 그 자리에 남겨놓는데, 이는 산에 사는 잡신들도 함께 제물을 먹고 마을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마을로 내려온 일행은 기다리는 주민들과 제물을 나눠 먹으며 환담을 나누고 헤어진다.

11) 산신제의 비용 :

옛날에는 산신제의 경비를 걸립으로 마련했다. 현재는 걸립 등의 절차는 생략한다.

산신제 비용은 대략 200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 제물구입 비용 등에 30만원 정도 소요되며, 주관자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20만원씩 지불한다. 주당부부에게 40만원, 축관 1명과 제관 1명에 40만원 등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산신제 이튿날에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먹으며 단합행사 등에 일정 금액이 소요된다. 홍성문화원에서 일부를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12) 산신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

하산마을에서는 80여 가구 중에서 20여 가구가 기독교인이다. 또한 외지인들도 20여 가구가 된다. 인구구성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호응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산신제를 이어가는데 큰 갈등이 없다.

옛날에는 용봉산 산신제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였다. 산신제를 잘 지냄으로써 마을이 안전하고 외지에 사는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현재는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산신제를 이어가고 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산신제를 중단할 수 없으며, 마을의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 주민들은 용봉산 산신제를 축제형식으로 승화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앞으로 산신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다.

*용봉산 산신제 내용은 2023년 홍성문화원의 구술채록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2023년 11월 13일 오전에 홍성문화원 별관에서 마을주민 이종광씨가 직접 구술해주었다.

2023년 당시 이종광씨는 마을 이장을 6년째 역임하고 있었다. 청년시절 객지 생활을 하다가 2013년에 귀농하여 10년 차가 되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 흥북농협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마을 이장 겸, 흥북읍과 흥성군 이장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었다.

이종광씨는 하산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지내는 산신제를 보아왔고, 당시에 마을이장으로서 산신제를 직접 주관하고 있었다.

이종광씨의 하산마을 산신제 증언을 통해서, 마을에 전해오는 산신제의 의미와 함께, 옛날과 오늘날과의 변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 사진으로 보는 용봉산 산신제



하산마을에서 올라다 본 용봉산 전경



용봉산 산신당에서 내려다본 하산마을



산신제를 준비하는 제관, 축관, 주당 모습



제관들의 역할

제관 : 제의 전반을 주도
축관 : 축문을 쓰고 읽으며 소지를 만들
주당 : 제수 및 제물장만을 비롯한 제의 전반을 주도하기 때문에 보통 부부가 함께 맡음

여성 주당 모습(주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함)



주당 집 주변에 황토 흙 뿌리기



집안정리와 청소

하산마을 산신제 기록영상

주당 집안 정리와 청소



산신제 전날 산신당 주변 정리 및 청소



신당 제기 씻기 (산제 바위 밑 보관)

하산마을 산신제 기록영상

산신제 전날 산신당에 보관한 제기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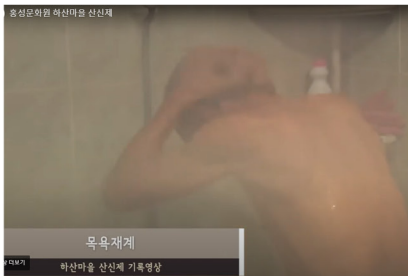
산신제 전날 밤 원새끼로 금줄 꼬기



금줄짜기

오늘날에는 15발 정도를 꼬고 1발에 약 2장의 한지를 밀접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새끼줄 사이에 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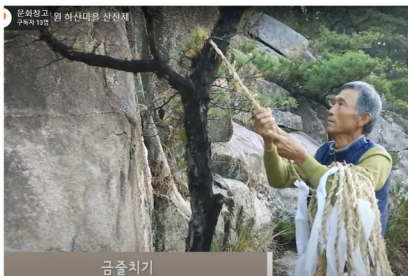
금줄 사이에 한지 끼우기



산신제 당일 새벽 목욕재계



산신제 당일 새벽 제물 구입 하기



산신제 당일 산제당 주변 금줄 치기



산제당 주변 금줄 치기



주당 집에서 시루떡 만들 버를 절구 방아 찧기



절구에 찧은 쌀을 키질하여 골라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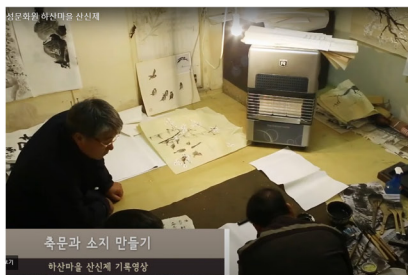
떡쌀을 물에 불려 절구에 찧고 가루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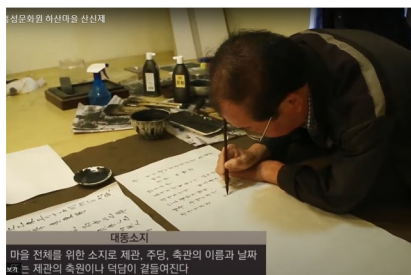
곱게 빻은 쌀가루로 시루떡 찌기



시루떡 찌기



시루떡 찌는 동안 축문과 소지 준비하기



대동소지 준비하기



제관 복장 갖춰 입기



제관 복장과 제물 준비 마무리 하기



제관들 제물 짊어지고 당오르기



제관들 당오르기



산제당에 도착하여 제물 진설하기



강신례 모습



초헌례 모습



축문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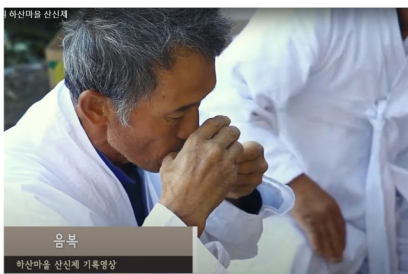
아헌례 모습



대동소지 올리기



개인소지 올리기



음복하기



제물 일부 산제당에 남겨놓기



제물을 견고 제기 보관하기



제물을 견고 주변 정리 후에 하산하기



제관들 하산하여 마을회관 도착



주민들 음식 나눠 먹으며 담소하고 마무리

* 사진으로 보는 용봉산 산신제는 2015년에 실시한 홍성문화원의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하산 마을 산신제’ 영상 촬영 내용을 캡처한 것임.

라. 상하리 산신제¹¹⁰⁾

홍북읍 상하리 상산마을에도 산신제가 전해온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유교식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의를 진행했지만, 20여 년 전부터 절에 위임하여 지내고 있다. 과거 마을 주민들이 제관을 뽑아서 지냈던 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칭 : 상산마을 산신제

2) 산신제에서 모시는 신 : 용봉산 산신

3) 산신제단의 위치 :

상하리 산신제당은 미륵골 뒷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상하리 미륵불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좌측으로 약 200m 쯤 산허리를 돌아가면 산제당으로 부르는 제단이 있다.

4) 산신제단의 모습 :

제단의 형태는 큰 바위가 여러개 겹쳐있는 맨 아래쪽에 작은 돌을 가지런하게 쌓아 만들었다. 제단 양쪽 옆으로 돌담을 두르고 축대를 쌓은 형태의 제단이다.

110) 홍북면지편찬위원회, 『홍북면지』, 2008년, 303쪽~304쪽.

5) 산신제의 유래와 목적 :

산신제의 유래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다. 용봉산 산신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산신제를 지냈다. 현재는 마을의 번영, 주민들의 무사 안녕, 마을의 단합 등을 목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용봉산 삼산마을 산제당 모습

6) 산신제 날짜 :

제일은 음력 정월 초순에 길일을 정하여 지낸다. 부정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초닷새를 넘기지 않는다.

7) 산신제의 주관자 :

옛날에는 제관을 따로 뽑아서 산신제를 주관했다. 20여년 전부터 절에 위임한 뒤로는 따로 제관을 뽑지 않지만, 마을 남자 중에서 3명을 선정하여 당주 자격으로 제사에 참석시킨다. 현재 제일과 당주는 절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준다.

8) 금기사항 :

예전에 유교식으로 지낼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금기사항을 지켰다. 제일이 다가오면 제관은 물론이고 마을사람들도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하여 부정한 일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산제 당일에는 제관들은 해가 지기 전에 목욕재계하고 산제당으로 올라갔다.

9) 산신제 제물 :

산신제 제물은 시루떡(백무리), 고기적, 메, 밥, 대추, 꽃감, 사과, 배 등의 삼색실과와 북어, 포, 청수, 술(청주) 등을 차렸다. 2007년부터는 지신머리(돼지머리)와 촛불받이 쌀도 추가했다.

10) 산신제 절차 :

제관들은 제단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제물을 진설한 후에 잔을 올리고

재배한 다음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대동소지와 집집마다 개인소지를 올렸다.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상산마을 사는 을축생 홍길동은 000를 축원합니다.”라고 일일이 축원하며 소지를 올렸다.

11) 산신제의 비용 :

옛날에는 걸립을 통해 마을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분담했다. 요즘에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12) 산신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과 마을 사람의 신앙 태도 :

요즘에는 옛날처럼 산신제에 신앙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앙적인 의미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다. 신앙적인 목적 이외에 전통 유지와 마을과 개인의 평안을 기원한다.

4. 용봉산에 전해오는 설화(說話)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공동생활을 해오면서 형성된 공동 의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꾸며 전파·전승해 왔다. 이를 우리는 설화(說話)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소중한 문학 유산이다.

설화에는 신화(神話) · 전설(傳說) · 민담(民譚)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설과 민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용봉산 전설¹¹¹⁾

전설(傳說)은 전승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고, 개별적인 증거물을 갖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를 갖는데, 일정한 지역을 발판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유대감을 가지도록 하고, 애郷심을 고취하기도 한다.

용봉산에는 전설들은 지명 유래, 풍수지리, 자연, 인물, 동 식물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전설은 다른 지역 전설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있음직한 이야기도 있지만, 현대인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믿을 수 없는 기적같은 이야기도 많다.

우리는 이러한 전설을 대할 때,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이야기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사고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어 전파 전승시켜 왔을까를 살펴보고, 그 이야기 속에

111) 구재기·김정현, 『홍성의 전설과 효열』(홍성문화원, 1995년), 15~16쪽.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학 유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용봉산의 전설 속에는 선조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강조하였으며, 무엇을 바라고 꿈꾸며 살았는지가 나타난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설을 현대인의 합리적 사고로만 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의식의 밑바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소향아가씨를 짝사랑 한 용봉산 장수와 백월산 장수의 싸움¹¹²⁾

충남도청이 자리잡은 내포신도시 앞에 해발 381m 용봉산이 우뚝 서있다. 용봉산은 산 전체가 돌산이어서 기암괴석이 많기로 유명하며,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다. 산 곳곳에 자리 잡은 사자바위, 거북바위, 물개바위, 두꺼비바위, 자라바위, 병풍바위 등은 조각가들이 섬세하게 다듬어서 갖다 놓았다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용봉산에는 무슨 이유로 그토록 거대한 바위와 기암괴석들이 많을까?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온다.

용봉산에서 마주보이는 남쪽 방향으로는 해발 394미터인 백월산이 있다. 옛날에 백월산과 용봉산에는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힘센 장사가 한명씩 살았다고 한다. 두 산의 중간에는 천하제일의 미녀인 소향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용봉산과 백월산 장수들은 소향아가씨를 짝사랑했다. 하지만 맞은편 산에 버티고 서있는 힘센 연적(戀敵) 때문에 소향아가씨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두 장수는 소향아가씨를 사이에 두고 매일 매일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양쪽 산에서 두 장수가 펼치던 신경전은 드디어 무지막지한 싸움으로 번졌다. 두 장수의 싸움은 몸을 맞대고 싸우는 육탄전이 아니었다. 각각 자기 산에 널려있는 큰 바위를 들어서 상대편 산으로 집어던지는 싸움이였다. 상대편 장수가 바위에 맞고 죽어야 소향아가씨를 차지할 수 있는 싸움이였다.

“야잇!”

“으라썬!”

두 장수가 내뿜는 고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쩌렁쩌렁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양쪽 산에서 던지는 거대한 바위들은 건너편으로 포탄처럼 날아갔다. 몇날 며칠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술한 바위들이 양쪽 산으로 날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월산에 가득하던 바위들이 모두 용봉산 곳곳에 쌓이기

112) 홍북면지편찬위원회, 『홍북면지』, 2008년, 312쪽~313쪽.

시작했다.용봉산 골짜기마다 바위들이 겹겹으로 쌓였다. 백월산 장수가 바위를 훨씬 더 많이 던진 것이었다.

드디어 치열했던 싸움이 막을 내렸다. 싸움은 백월산 장수가 이겼다. 결국 소향아가씨는 백월산 장수가 차지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향아가씨가 살던 마을은 ‘소향리’가 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 용봉산의 중심은 흥성군 흥북읍이고, 백월산의 중심은 흥성군 흥성읍이다. 백월산 장수가 이겼으므로 소향아가씨를 차지했고, 그녀가 살던 ‘소향리’는 백월산이 속한 흥성읍에 속하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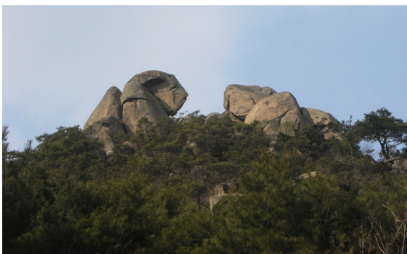
용봉산 장수는 싸움에 패하여 소향아가씨를 빼앗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산 곳곳에 쌓여있는 기암괴석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었다. 덕분에 용봉산은 빼어난 경관과 함께 일 년 내내 수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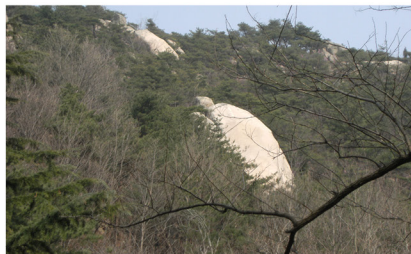
자라바위 모습



두꺼비바위 모습



사자바위 모습



거북바위 모습



병풍바위 모습

2) 용봉산 싸라기내와 쥐산의 유래¹¹³⁾

용봉산은 기암괴석 못지않게 불교유적이 많이 전해온다. 골짜기마다 절터가 남아있고 재미있는 전설도 전해온다. 이런 이유로 용봉산을 불교문화의 보물창고라고도 부른다.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용봉산 남쪽 기슭 아래로 흐르는 하천이 ‘용봉천’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용봉천을 ‘싸라기 내’라고 불러온다. 싸라기는 쌀이 잘게 부서진 부스러기를 말한다.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다 보면 작은 싸라기가 쌀뜨물과 함께 그릇 밖으로 떠내려가곤 한다.

용봉천과 싸라기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옛날에는 용봉산 골짜기마다 절이 많았다. 지금도 용봉산 골짜기에는 ‘천승굴’ ‘빈절터’ 등 절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전해온다. 옛 시절에 용봉산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절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옛날 용봉산 골짜기에는 싸라기가 섞여있는 쌀뜨물이 계곡물과 함께 산 아래로 흘러 내렸다. 아침저녁으로 절마다 스님들의 공양을 위해 쌀을 씻으며 생겨나는 쌀뜨물과 싸라기였다. 쌀뜨물에 섞여 나온 싸라기는 계곡물과 함께 산 아래 용봉천까지 흘러 내렸다.

용봉산 아래 용봉천 바닥에는 하얀 싸라기가 수북하게 쌓였다. 용봉천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싸라기는 주변에 사는 쥐들에게 아주 좋은 식량이었다.

충청도의 쥐들은 싸라기 소문을 듣고 앞다퉈 용봉천으로 몰려왔다. 이곳으로 몰려든 충청도 쥐들은 어렵지 않게 배를 채울 수가 있었다.

어느날부터 충청도 곳곳에 살던 고양이들은 배를 굶기 시작했다. 주변에 많던 쥐들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먹잇감이 없어진 고양이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쥐들을 찾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은 용봉천 주변에 충청도 쥐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충청도 고양이들도 모두 용봉천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쥐들은 눈앞이 캄캄했다. 고양이들이 몰려오면 쥐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쥐들은 다급하게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고양이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회의를 했어도 뾰족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쥐들이 공포에 떨며 좌불안석하고 있을 때, 한쪽에 앉아있던 늙은 쥐 한 마리가 별떡 일어섰다.

113) 김정현, 『삶과 상상력이 녹아있는 우리동네』 (홍성문화원, 2010년), 199쪽~201쪽)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모두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야.”

늙은 쥐의 생각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좋았다.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가면 고양이들은 함부로 쥐들을 해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쥐들은 곧바로 용봉산 골짜기 절 아래로 몸을 숨겼다.

용봉천 앞까지 몰려온 고양이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부처님의 품이나 마찬가지로인 절에 들어가서 살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용봉천 건너편 용봉산 골짜기를 바라보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았다.

충청도 쥐들과 충청도 고양이들은 용봉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고양이들은 바위가 되었다. 바위 모습이 고양이 생김새와 똑같았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고바위’라고 불렀다. 고바위 바로 앞에는 작은 방죽이 있었는데 ‘고방죽’이라 불렀다. 1970년대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고방죽을 메우고 논으로 만들었다. 이때 고바위를 고방죽에 묻어버렸다. 그 바람에 고바위도 고방죽도 모두 없어졌다.

또한 용봉산 골짜기 아래에 모여있던 쥐들은 산이 되었다. 이 산 이름이 ‘쥐산’이다. 쥐산은 용봉산 기슭 아래 상하리 하산마을 가운데에 있다. 용봉산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예쁜 솔숲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쥐산 앞으로 흐르는 용봉천은 ‘싸라기 내’라 부르게 되었다. 용봉산 투석봉과 장군봉에서 쥐산과 싸라기내가 뻗히 내려다보인다. 옛 전설을 들으며 용봉산 아래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눈과 귀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느낌이다.



용봉산에서 내려다 본 쥐산 모습
(쥐산 앞 들판 건너편으로 싸라기 내가 일직선으로 지나간다)

3) 마애불로 환생한 용봉산 노처녀¹¹⁴⁾

용봉산에 전해오는 수많은 불교유적 중에는, 보물 제355호인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 등산객들의 눈길을 끈다. 신경리마애여래입상이 서있는 곳은 천년고찰 용봉사에서 산 정상으로 향하는 50여 미터 위쪽에 있다. 마애불의 공식 명칭은 ‘신경리마애여래입상’이지만, 마을사람들은 ‘노새악시 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새악시 바위라는 이름은 요즘 표현으로 ‘노처녀 바위’라는 뜻이다.

신경리마애여래입상과 노처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옛날에 용봉산에는 어머니와 두 남매가 살고 있었다. 두 남매는 힘이 장사였고, 특히 누나인 딸은 용봉산의 거대한 바위를 공기 돌 굴리듯 하는 여장부였다.

딸은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결혼상대가 없었다. 남동생과 함께 용봉산에 즐비한 바윗돌을 장난감 삼아 힘자랑만 하며 세월을 보냈다. 어머니는 허구한 날 힘자랑으로 세월을 보내는 딸이 한심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는 용봉산 산신령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다.

“이 작은 산에 힘센 장사가 두 명씩이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두 남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과 딸 중에서 한 자식만 선택하라니……. 두 남매 중에서 한 자식은 죽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닌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끼니를 거르며 고민고민 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여러 날 동안 고민하던 끝에 두 남매를 불러 앉혔다. 그리고 산신령의 명령을 두 남매에게 전했다.

“어느 누구도 산신령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시합을 해서 이기는 쪽이 살아남는 것이다.”

어머니는 시합 내용을 설명했다. 누나인 딸은 용봉산 정상에 산성을 쌓고 동생인 아들은 무쇠 신을 신고 한양에 다녀오는 시합이었다. 두 남매의 목숨을 건 시합이 시작되었다. 힘이 장사인 딸은 쉬지 않고 바위를 옮겨서 성을 쌓았다.

어머니는 마음을 졸이며 자식들의 시합을 지켜보았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딸이 쌓는 산성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마음 한 편으로는 아들이 시합에서 이겨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딸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다.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팔죽을

114) 앞의 책, 168쪽~171쪽.

끓이기 시작했다. 조금 후에 가마솥에서는 팔죽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커다란 밥그릇에 팔죽을 퍼 담아서 딸에게 달려갔다.

“애야, 며칠동안 한 끼도 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냐? 팔죽을 끓여왔으니 잠깐 먹고 하려무나.”

딸은 먹음직스런 팔죽을 보자마자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뱃속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창자가 뒤틀리는 듯했다. 먹을 것이 눈앞에 보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딸은 동쪽 봉수산을 바라보았다. 아직 남동생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딸은 시합에서 이길 것을 확신했다. 이제 바위 한 개만 옮겨놓으면 성은 완성이었다. 승리의 확신이 서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힘들게 들고 가던 바위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

딸은 정신없이 팔죽을 먹기 시작했다. 며칠을 굶었으므로 팔죽은 입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씹을 틈도 없었다.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바빴다.

딸이 정신없이 팔죽을 먹는 사이에 동쪽 산등성이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길게 다가왔다. 남동생이 무쇠신을 신고 동쪽 봉수산 고개를 경중경중 넘어오고 있었다.

딸은 팔죽을 먹다 말고 서둘러 일어섰다. 길옆에 내려놓았던 바위 앞으로 급하게 달려갔다.

“으랏싸!”

딸이 온몸에 힘을 주고 바위를 들어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딸은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갑자기 아랫배가 찌르르 아파 오면서 주룩주룩 설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딸은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온 힘을 썼지만 헛수고였다. 몸에 힘만 주면 설사가 주룩주룩 흘러내려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바위를 감싸 안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까운 시간만 흘러갔다. 그사이에 동생은 용봉산에 도착했다. 결국 누나인 딸은 시합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모습

세월이 흐른 후 용봉산 중턱 바위에 거대한 마애불이 새겨졌다. 마애불은

인자하고 온화한 여자 모습의 부처님이었다. 마을사람들은 마애불을 볼 때마다, 노처녀 딸이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여, ‘노새악시 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4) 삼대 효자의 닢이 서려있는 용봉산 삼등바위¹¹⁵⁾

용봉산 서쪽 골짜기에 삼등비알이라고 부르는 산봉우리가 있다. 삼등비알 정상부근에는 탑을 쌓듯이 바위 세 개를 뚝뚝 잘라서 포개놓은 모양의 바위가 있다. 바위 이름이 ‘삼등바위’이다. 삼등바위가 서있는 삼등비알 옆으로는 ‘천승굴’ ‘시묘굴’ 등의 골짜기가 있다.

천승굴은 스님 천명이 살았던 큰 절터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천승굴에는 지금도 옛 절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큰 바위를 다듬어서 기초를 쌓아올린 주변 모습이 꽤 큰절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승굴 옆의 골짜기 이름은 시묘굴이다. 시묘굴에는 옛날에 유난히 무덤이 많았다고 한다. 부모님 산소를 지키며 시묘살이 하던 효자들이 많아서 ‘시묘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용봉산의 삼등바위는 시묘굴과 관련된 전설로 짐작된다.

옛날에 효성 깊은 효자가 산 아래 마을에 살았다고 한다. 효자의 아버지가 나이 들어 노환으로 몸져눅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어린 간호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효자로 이름 난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삼년동안 지극정성으로 시묘살이를 했다. 하지만 아들은 시묘살이 동안에 몸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서 병이 들고 말았다. 시묘살이 3년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저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효성스런 아들이 죽은 얼마 후에 마을 뒷산에 큰 바위 하나가 솟아올랐다. 마을사람들은 산에 올라갔다가 처음 보는 바위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갸웃 했다. 아마도 마을에 소문난 효자의 닢이 바위로 솟아오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 뒤로 이 바위를 효자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효성스런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이 또다시 삼년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이 아들 역시도 시묘살이동안 몸이 약해지고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안타깝게도 아들마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시묘살이 하던 아들이 죽은 후에, 산봉우리 효자바위에 바위 하나가 흑처럼 솟아오르며 이층이 되었다. 마을사람들은 효자 아버지와 아들의 닢이라고 생각했다.

115) 앞의 책, 206쪽~209쪽.

2대 효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이 또다시 삼년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삼년 시묘살이 후에 3대 효자 아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3대 효자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효자바위에 바위 하나가 또다시 솟아오르며 삼층이 되었다. 마을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3대 효자아들의 넋이 바위로 솟아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3층으로 된 바위는 용봉산 주변에서 효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을에 살던 3대에 걸친 효자의 넋을 기리며 삼등바위라 부르기 시작했다. 삼등바위가 서있는 산봉우리도 자연스럽게 삼등비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용봉산 삼등바위 모습

5) 용봉산 빈절골과 폐사지 전설¹¹⁶⁾

용봉산 장군봉 바로 아래쪽에 빈절골이라고 부르는 골짜기가 있다. 옛날 골짜기에 큰 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절터만 남아있다고 하여 빈절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 골짜기에 있던 큰절이 폐사된 유래가 전설로 재미있게 전해온다.

용봉산 주변을 지나가던 도승이 절에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116) 홍북면지편찬위원회, 『홍북면지』, 2008년, 314쪽.

청했다. 주지는 도승을 무시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도승은 절에서 되돌아 나오며 거만한 주지를 혼내줄 묘책을 궁리했다.

“으음, 그 방법이 좋겠군.”

도승은 한참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절 아래 마당바위까지 내려오는데, 마침 절로 올라가는 동자승이 지나가고 있었다. 도승은 동자승을 못 본 체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산 아래로 흐르는 하천을 남쪽으로 돌려내면 절이 더 흥할 텐데 아깝구먼.”

도승이 지나가는 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동자승이 들었다. 동자승은 절에 도착하자마자 도승이 중얼거리던 소리를 그대로 전했다.

“아이구나, 좀 전에 찾아왔던 그 스님이 틀림없구나. 어서 빨리 내려가서 스님을 모시고 오거라.”

주지는 동자승에게 급한 소리로 명령했다. 동자승이 부리나케 내려와서 도승을 찾았지만 온데간데 없었다.

주지는 마당바위에 올라서서 계곡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좌우로 산세를 살펴보았더니 도승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주지는 도승이 말한 대로 하천의 방향을 돌려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부터 사람들을 시켜 산 아래로 흐르는 하천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산 아래로 흐르던 하천의 방향이 바뀌었다. 동쪽으로 흐르던 하천을 남쪽으로 돌려내었다.

하지만 하천의 방향을 바꾼 결과는 정반대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산 아래 하천에 살던 용이 나가고 산속에 살던 봉황도 나가고 말았다. 찾아오던 신도들도 줄어들고 절이 망하면서 스님들이 모두 떠나고 말았다.

이후 텅 빈 절에는 빈대만 득실거리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도 모두 퇴락하여 없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곳 계곡은 빈대만 살게 되었다고 하여 ‘빈대절골’, ‘빈절골’이 되었다. 빈절골 폐사지의 공식적인 지명은 ‘상하리 사지’라고 부른다.

요즘에는 전설로 전해오는 빈절골 폐사지가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두 차례에 걸쳐 빈절골 폐사지를 발굴 조사한 바 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스님이 지니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입상을 발굴했다. 이 금동불입상은 7cm 소형으로 스님들이 사악한 것을 피하고 몸을 지키기 위해 지니고 다니던 호신불로

추정된다고 한다.

폐사지 절터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이후 마애불을 조성하는 등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절터 입구에는 충남유형문화재 제250호인 마애불이 전해온다.



빈절골 폐사지 주변 마애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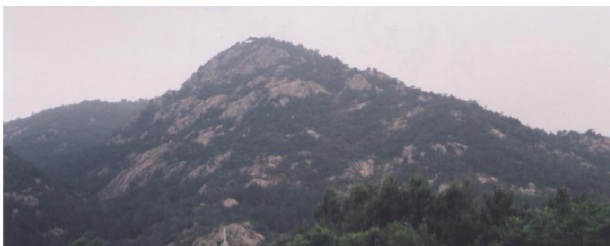
발굴조사 직전의 대나무로 뒤덮인 폐사지 모습



발굴조사 직전의 폐사지 석축 모습

6) 최영 장군과 말무덤¹¹⁷⁾

용봉산의 많은 봉우리 중에서 빈절골 부근에 장군봉이 있다. 장군봉은 최영장군이 소년시절에 무술 훈련을 하던 봉우리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전해온다. 장군봉에는 최영장군이 활쏘기 연습을 했다는 정자와 활터가 있다.



최영장군의 활터가 있는 장군봉

117) 앞의 책, 235쪽 ~ 237쪽.

사람들은 소년 최영이 장군봉에서 활 쏘는 연습을 보기 위해 몰려 들었다. 최영의 활 솜씨는 구경하는 사람들마다 감탄할 정도였다. 최영은 구경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애마를 자랑했다.

“이 말은 화살보다도 빠른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화살을 쏘면 말이 화살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기다렸다가 주워 올 것이요.”

최영은 말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말도 최영이 활시위를 달리자마자 화살이 날아간 방향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한참 후에 말은 빈 몸으로 돌아왔다. 화살이 말보다도 더 빨리 지나간 것이었다.

실망한 최영은 자신의 말을 자랑한 것이 부끄러웠고,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힘없이 돌아온 말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었다.

한편 최영이 쏜 화살은 용봉산 건너편 산봉우리에 한가하게 앉아있는 닭을 명중시켰다고 한다. 이 산 이름은 홍북면 노은리에 있는 닭제산이다. 노은리는 최영 장군이 탄생했다고 전해오는 마을이며, 닭제산 중턱에 최영장군의 사당이 있다.

최영이 목을 베었다는 말은 용봉산 장군봉 아래 상하리 하산마을에 묻혔다. 사람들은 최영의 말이 묻힌 무덤이라고 하여 ‘말무덤’으로 불렀다.

세월이 흐르면서 말무덤 앞으로 세 갈래 길이 만들어졌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세 갈래 길은 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넓혀졌다. 이 과정에서 말무덤은 계속 훼손되면서 옛모습을 모두 잃어버렸다. 지금은 최영장군의 전설과 함께 흔적만 간신히 전해오고 있다.



흔적만 남아있는 상산마을 말무덤

한편 최영 장군의 말무덤은 금마면 장성리 국도변 은행정 옆에도 전설과 함께 전해오고 있었다. 금마면 국도변에 자리 잡은 말무덤이라고 하여

‘금마총(金馬塚)’ 또는 ‘말무덤’ 등으로 불렸다. 이곳에 전해오는 전설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금마면 철마산에서 무술수업을 하던 소년 최영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말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자신의 말에게 화살과 말 중에서 누가 빠르는지 내기를 청했다. 이 시합에서 이기면 상을 내릴 것이고 지면 목을 베겠다고 했다. 말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최영은 철마산에서 자신의 애마를 타고, 산 아래 홍성읍 은행정 쪽으로 활시위를 당겼다. 동시에 애마도 힘차게 달려나갔다. 은행정에 도착해보니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벌써 화살이 지나간 것이었다. 최영은 약속대로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최영이 말의 목을 베는 순간, 화살이 피용하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최영의 큰 실수였다. 조금만 침착하게 처신했으면, 자신의 애마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자신의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화살보다도 더 빠른 말을 죽인 것이다.

최영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애마를 그 자리에 묻어주었다. 이날의 사건은 소년 최영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었다.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익혀 고려의 훌륭한 장수가 된 것이다.

철마산 정상에는 최영장군의 애마를 기리는 금마상과 철마정 등이 있어서, 최영장군과 관련한 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말무덤은 사라지고 없다. 장항선 철도 직선화 사업으로 몇 년 전에는 말무덤 옆으로 철도 교각이 설치되었다. 다행히도 말무덤은 옛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설되는 장항선 전철 철길이 말무덤 머리위로 지나가게 되었다. 전철 철도가 건설되면서 말무덤도 사라지고 말았다. 최영장군이 무술 연습을 했다는 철마산에 ‘금마의 상’이 세워져 있다.



사라진 말무덤 모습



철마산 금마의 상

7) 고시레 풍습이 만들어 낸 부응이 전설¹¹⁸⁾

옛시절 시골 들판에서 점심이나 새참으로 내온 음식을 먹기 전에는, ‘고시레’라는 말을 크게 외치며 밥이나 술을 조금씩 주변에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 고시레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설이 전해온다. 그 중에서 한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넓은 들판에 무덤이 있었다. 어느날 무덤 주변에서 밥을 먹던 농부가 혼자 먹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무덤 앞에 밥을 한 술 떠서 올려놓았다.

농부는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농부의 그해 논농사는 놀랄 만큼 풍년이 들었다. 너무도 신기한 나머지 이듬해에는 다른 사람들도 농부와 똑같이 해보았다. 그 농부들도 그해에 정말로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 무덤 주인공은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뒤로 들판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고씨네’를 부르며 미리 음식을 바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고씨네’는 세월이 흐르면서 ‘고시레’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다.



전설이 전해오는 부엉바위

오래전 홍북읍 상하리 상산마을에는 부응이라는 머슴 한 명이 살았다. 부응이는 어려서 마을에 들어왔는데 고향이 어딘지도 확실치 않고 가족사항도 모르는 약간 부족한 사람이었다.

부응이는 어찌나 성품이 순하고 천진스러웠는지, 동네에서 거의 바보 취급을 받았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코흘리개 아이들까지도 마흔이 넘은

118) 앞의 책, 157쪽~160쪽.

그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부응이는 화를 내는 일이 없었고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느날부터 부응이에게 여인이 생겼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남몰래 뒷산 넓은 바위에서 만나는 여인이 있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데 소문과 함께 부응이가 행방불명되어 찾을 길이 없었다. 마을사람들이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부응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서는 부응이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부응이가 행방불명된 후로, 뒷산 넓은 바위에 부응이가 자주 날아와서 울었다. 마을사람들은 부응이가 죽어서 변한 녀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던 여인과 밀회를 즐기던 장소에 날아온 것이라고 믿었다. 자연스럽게 바위 이름도 부엉바위가 되었다. 또다른 이름으로는 ‘부엉배’라고도 부르며 주변 골짜기 지명도 부엉배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서는 재미있는 풍습이 생겨났다. 들판에서 점심이나 새참을 먹을 때마다 밥을 한 술씩 주변에 뿌리면서, ‘자, 부응이 먹어라’는 말을 했다. ‘고시레’라는 말 대신에 ‘자, 부응이 먹어라’는 말로 바꿔 부른 것이다.

마을사람들이 불쌍한 부응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생겨난 새로운 풍습이었다. 또한 구천을 맴도는 부응이의 영혼이 마을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도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엉바위는 교실만큼 넓어서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의 훌륭한 휴식처 역할도 했다. 특히 조용한 밤에는 마을의 처녀총각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다. 산속에서 만날 때는 부응이 소리를 내며 신호를 보내기도 했단다.

부엉바위는 옛날 시골정서가 물씬 풍기는 추억어린 장소이다.



전설이 전해오는 용봉산 기슭 상하리 상산마리 모습

8) 마을 남자들이 미륵불 방향을 돌려놓던 사연

용봉산 동쪽 기슭 흥복읍 상하리 하산마을에 동산쪽뿌리라는 지명이 있다. 마을 동쪽에 있는 솔숲 동산이 뿌리처럼 길게 뻗어 나온 모습이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지금은 마을 전체가 변화되어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곳 부근은 전체가 솔숲과 논밭이었다.

동산 쪽뿌리는 하산마을에서 솔미 너머라는 마을로 넘어가는 모퉁이였다. 옛날 솔숲이었던 동산쪽뿌리는 과수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 동산쪽뿌리 부근 길가에 작은 미륵불이 서있었다. 힘센 장정 두세 명이 번쩍 들어서 이리저리 옮겨 놓을 수 있는 크기였다.

옛날부터 동산쪽뿌리에 서있는 미륵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속설이 전해왔다. 미륵불이 바라보고 서있는 마을에는 처녀나 과부가 바람이 난다는 속설이었다.

미륵불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길 건너 봉신리 이동과 지동마을이었다. 길 건너 이동과 지동마을에서는 미륵상이 자기 마을을 바라보고 서있는 것이 마음에 꺼림칙했다. 밤에 장정들이 몰래 가서 미륵불 방향을 옆으로 옮겨 놓았다. 대개는 하산마을 쪽으로 옮겨 놓고 돌아갔다. 이튿날 하산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미륵상의 방향을 또다시 이동과 지동마을 쪽으로 돌려놓았다.

이렇게 하산마을과 봉신리 이동과 지동마을 남자들은 미륵불을 사이에 놓고 신경전을 벌이곤 했다. 어느날은 미륵불을 길가 논두렁에 처박아 놓기도 했다. 미륵불은 이렇게 양쪽 마을 남자들에 의해서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양쪽 마을에서 미륵불을 돌려세우던 일이, 어느해부터인가 필요없게 되었다. 1990년 경에 미륵불이 사라진 것이다. 이곳 주변 다랑이 논을 경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미륵불을 가져간 것이다.

그후 미륵불은 행방불명되어 영영 제자리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이 먹은 어른들은 미륵불에 전해오던 속설과 미륵불 모습을 마음속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미륵불이 서있던 동산쪽뿌리 주변 모습

나. 용봉산 주변의 민담(民譚)¹¹⁹⁾

민담은 흥미를 위주로 하여 꾸며낸 이야기이다. 전설이 설명적인데 비하여 민담은 웃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이다. 민담은 오랜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파·전승되어 오면서 다음과 같은 기능(機能)을 수행해 왔다.

첫째, 민담은 수용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웃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민담은 수용자에게 즐거움과 함께 삶의 교훈을 제공해 준다. 민담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교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민담을 통하여 충·효·우애·신의 등의 윤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게 된다.

셋째, 민담은 수용자들에게 현실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게 해 주고, 보상적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민담 속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어떠한 고난이나 결핍 상황도 극복된다. 선과 악의 대립에서는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결에서는 피지배자가 승리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따른다. 민담의 수용자들은 이러한 민담을 즐기며 현실로부터의 해방감과 보상적 만족감을 맛보는 한편, 어려운 현실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된다.

넷째, 민담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준다. 민담은 구연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연은 화자와 청자의 대면이 필수적이다. 민담은 대면을 통한 전달 과정,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의식의 교감(交感)을 통하여 화자와 청자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고 깊게 해 준다. 특히 어린이는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선생님, 친척, 친지 등과 동심을 바탕으로 한 민담 즉 전래동화를 주고받으며, 이들의 따뜻한 사랑과 훈훈한 인정을 체감하게 된다.

다섯째, 민담은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구성한 것이므로, 민담의 수용자는 이를 통하여 상상력과 문학적 형상력을 기를 수 있다. 민담은 시간과 장소, 증거물 등의 제약 없이 흥미 본위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서 구성한 것이므로, 민담의 수용자는 이를 즐기는 가운데 교훈적 의미를 깨닫고, 현실로부터의 해방감과 보상적 만족을 느끼는 한편, 상상력과 문학적 형상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119) 최운식의, 『홍성의 민담』(홍성문화원, 1996년), 22쪽~23쪽.

1) 뒤늦게 불효를 고친 효자¹²⁰⁾

<줄거리>

옛날에, 자식을 두지 못한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사십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 백일 기도를 드린 끝에, 아들 하나를 얻었다. 두 부부는 늦게 얻은 자식이(아들이) 귀여워 금이야, 옥이야 키우면서, 아들의 재물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살았다.

아들이 걸음을 아장아장 걷게 되었을 때, 부부가 아들에게, “아가, 저기 아빠 한 번 좀 때려 봐라.” “아가, 저기 엄마 한 번 좀 때려 봐라.” 하니까, 아들은 두 부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와 엄마를 번갈아 가며 때렸다. 아들은 커가면서도 부모 때리는 일이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고, 거의 매일같이 부모를 때리게 되었다. 이제, 아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두 부부는 아들한테 맞는 것이 무척 아프고 겁이 나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 어느 집 추녀 밑으로 비를 피하게 되었다. 아들이 비를 피해 추녀 밑에 서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자고 일어나서는 문안을 드려야 된다. 저녁에 잘 때에는 이불도 깔아 드려야 하고, 주무실 때 불을 끄고 나와서, 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은 바가 있어, 나뭇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나뭇짐을 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두 부부는 또, 아들한테 맞을 것이 두려워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불효를 깊이 사죄하고 효도를 하며 잘 살았다.

옛날에, 아들을 두지 못한 그러한 늙은 부모가 살고 있었는데, 사십이 지났다고 그러거든. 사십이 지나도록 자손이 없어. 딸이나 아들이 없어서 옛날에 백일기도를 드렸다는 거여. 백일 기도를 드린 끝에, 참, 정성이 지극했던지 사십이 넘어서, 자식 하나를 낳은 것이 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귀엽게 키워서, 그 늙은 부부들은 그저, 일만 끝나면 그저, 그 아들이 크는 모습이라든지 또, 재물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재미쥌. 낙으로 살아가는 거. [채록자 : 오랫동안 아들을 낳아서요?] 그렇지.

일을 갔다 와서두 참, 애기가 웃는다든지, 움직이는 모습 하나 하나를 아주, 그것을 낙으로 삼구 살다가, 이제, 애기가 점점 잘 커가지구 걸음을 걷게, 한 뒤살 쯤 됐던 모양이지. 뒤 살 쯤 되서 걸음을 아장아장 걸으니께 인저, 이 늙은 부부들이 밥상에 앉았다가 방상을 물리구서, 자기 아들이, 귀엽게 크는 아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구서, 부부가 앉아 가지구서,

“아가, 저기 아빠 한 번 좀 때려 봐라.” [채록자 : 귀여워서요?]

응. 귀여워서. 놀이지, 인제 놀이로다가.

“애, 가서 아빠 좀 한 번 때려 봐라.”

120) 앞의 책, 177쪽 ~ 180쪽.

허니까,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아빠의 얼굴을 그 귀여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살짝 때리고 나면, 그게 좋다구, 그냥 아주,

“장하다. 장하다.”

해 가지구. 그러면 또, 이 아빠는 인제,

“엄마 한 번 때려라.”

걸음 걷는 것을 보려고, 아장거리는 것이 참 재미로 해서,

“엄마 한 번 가서 때려라.”

허면, 그러면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엄마 한 번 살짝 때리구. 그래서 날마다 인제,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밥만 먹으면, 그게 인제, 일과 비스듬하게 날마다 했다는 거. [채록자 : 때리는걸 계속 시켰구먼요?]

그렇지. 가서 때려야 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때려야 뭐, 아프지도 않고 귀엽기만 허구 참, 대견스럽기만 하고 그랬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인제, 애가 점점 더 큰 거. 3~4살 이렇게 커서 그때까지 아빠 엄마 때리는 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귀엽기만 허구 참, 재롱으로 생활했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인제 날마다 허는 걸로 알고, 밥만 먹구 나면, 상만 치우고 나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엄마 때리구, 아빠 때리구, 이렇게 근대리는 식으로 허다가, 애가 크니까 인제, 손도 크구 몸집도 크니까, 조금 아퍼도 그냥 참고, 귀여운 외아들이구 그러니까 참구서 있다가, 애가 점점 컸다는 거. [채록자 : 버릇이 나빠졌구먼요?] 응.

11살이 되구, 12살이 되구, 이렇게 인제 12살쯤 되니까, 애는 인제 손발이 모두 커가지구, 그래도 그게 허는 건 줄 알고, 그냥 밥만 먹고 나면, 아빠 한번 ‘딱’ 때리구. [채록자 : 나쁜 자식이구먼요?]

나쁜건지 모르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버릇을 고쳐 줄라구도 않고 귀엽기 때문에 인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이 컸으니까 늙구, 그래 인제, 애가 17~18살 되구 아주 컸다는 거. 커 가지구서 즈이 아버지 하고 농사 일도 허러 가구, 나무도 허러 가구 허는디, 나무를 해 가지구 와서도 자기 어머니를 방에 있기만 허면, 그냥 한 번 때리구. 그러한 버릇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는 힘은 없고 늙기는 허구, 아들은 아주 장성하여 커 가지구 나무를 해 가지구 와서 때리구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점심 때 쯤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인제, 맛을 생각을 해 가지구 도망다니는 거.

인제, 그 때는 아마 말리기두 했을 테지. 인제 때리지 말라구 했을 텐디두 아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허는 걸로 알구서, 아버지 어머니는 나무를 해서 올 때 쯤 되서 오면, 인제 헛간이나, 인제 위디가 숨어 가지구서, 아들을 피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는 나무허러 산으로 갔다가 나무를 한 짐 해가지구서 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와 가지구서 그 나무짐을 지구오다가 올수가 없어서, 인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집 추녀 밑에서, [채록자 : 비를 피해서요?]

비를 피해서. 추녀 밑에 있으니까, 그 집안에서 창 너머로 들려 오는 소리가, 잘 들어 보니까, 그 집 아들한테 훈계 허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 그래 인제,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봉양을 허구, 자구 일어나서는 문안을 드려야 되구, 저녁에 잘 때는 이불두 깔어드려야 되구, 아버지 어머니가 편안히 주무실 때에는 눈을 감을때 불을 끄구서 나와서 제 잠자리에 들구,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문안두 해야 되구, 또 낮에는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아 가지구, 아버지 어머니 고기도 사다 주야구, 봉양두 해야 되구, 아버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구, 그저 괴로운 일두 전부 아들 자식이 해야 되느니라.”

그런 훈계 얘기를 허더라는 거. 그래 인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갔다 와서 때리는 건 줄만 알구 때렸는디, 거기서 모든 허는 얘기를 듣구서,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이고, 땅이고, 그런 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그런 자기와 반성을 허구서, ‘아이, 내가 안되겠구나.’ 해서 인제, 그 얘기를 듣구 나니까, 검은 구름이 거치구서 날이 반짝 들어서, 불효한 아들 녀석이 나무 지계를 지구서, 나무를 아마, 시장으로 팔러갔던 모양이지? 나무를 지고 즈이 집으로 가지 않고. [채록자 : 평소에는 집으로 왔는데요?]

응. 집으로 왔는디 집으로 가지 않구서, 그 나무를 지구서 장에를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팔아서 [채록자 : 아, 그 말 듣구서?] 응. 그 말 듣구서 고기를 사 가지구서, 지계에 매달아 가지구서 집에 오니까, 사립문을 열구서,

“어머니, 아버지.”

허구 불러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온 걸 알구 인기척을 듣구서 벌써 전부 숨었더라는 거.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 허다가 나무 누리 속에 숨구, 아버지는 집 모퉁이 집 누리에서 숨구. 아버지 어머니를 암만 불러도 대답을 았더라는 거. 없지.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하구, 막 이리 달구, 저리 달구, 찾아 보니까, 부엌에 가서 암만 불러두 대답이 없구, 나무 누리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듣구서, 어머니 여기

계시냐구, 그 나무를 헤쳐 보니까, 어머니가 그 나무 속에서 바짝 움추리구서 나오질 않더라는 거. 그래서,

“어머니, 제발, 제가 그 전에 잘못했습니다.”

허구서, 아주 안하다가 이렇게 허니께, 어머니는 때리는 건 줄 알구 몸을 숨기구 있다가, 나와서 참,

“어머니, 방에 들어가십시오.”

절을 꾸벅 하더라는 거. 그래 인제 어머니가,

“왜일인가?”

허구. ‘애가 정신이 잘못됐나?’ 허구. 그래서 그게 아니구,

“아버지는 어디 가셨느냐?”

구 허구. 아버지는 집 모퉁이 어디 있을 거라구 해서 가 보니까, 집누리 속에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절을 꾸벅 해 가지구서 효도(효자)가 됐다, 그런 얘가지. [채록자 : 부모님 모시고 진짜 효도를 해 가지구?]

진짜 효도를 해 가지구 사람이 됐다 그런 얘가지? [채록자 : 거기 그 나무를 허러 갔다가 비를 피한 그 집에서 들은 그 얘기가 효험이 있었네요?]

그렇지. 비 피하구서 다른 사람, 그 집에서 얘기를 들은 거지.

2) 두 효자¹²¹⁾

<줄거리>

옛날, 어느 농촌에, 두 형제가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두 형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시고 봉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라에 난리가 나서 큰 아들이 포졸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형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동생에게, “내가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 네가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하고 부탁하고, 전쟁터로 나갔다.

둘째 아들(동생)은 형의 부탁대로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그러나, 원래 가난하고, 또 깊은 두메 산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만 어머니의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동생은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효험이 없었다.

어느날 동생이 들에 나가 밭을 일구다가, 큰 지렁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지렁이 잡아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 구워 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게, 무슨 고기가 이렇게 쫄깃 쫄깃 허구 맛이 좋으냐?” 하면서, 맛있게 잘 드셨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어머니는 아들이 구워다 주는 고기가 지렁이인 줄도 모르고, 여러 차례 맛있게 먹고는 건강이 좋아졌다.

전쟁이 끝나고 큰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 그 동안 나 없는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편안하게 잘 지냈다.” 그러고는, 자신이 먹다 남은 지렁이를 큰 아들에게 주면서 먹어 보라고 했다.

121) 앞의 책, 181쪽 ~ 183쪽.

큰 아들이 보니까, 그것은 고기가 아니라 지렁이를 말린 것이었다. “아니, 뭐, 지렁이?” 깜짝 놀란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뜬 순간, 어머니의 눈이 밝아졌다.

얘기는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6.25 얘기가 아니구, [채록자 : 옛날 전쟁요?]

옛날 전쟁. 그러니까, 옛날 난리가 일어났다는 거. 난리가 일어나서, 가난하게 살던 농촌에서 흩어머니 모시구 살던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참 가난은 했지만, 자기 어머니를 참 극진히 봉양을 허구 잘 모셨던, 그런, 아주, 사람들인데. [채록자 : 이름난 효자였구먼요?]

이름난 효자였는데, 난리가 났다구 해 가지구서 난리를 평정하기 위해서, 지금 말로 군대를 가게 됐단 말여. 그래서, 큰 아들이 자기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서 군대를 가자니 걱정이여. ‘어머니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나라에 명을 받아서 인제, 요셋말로 군대를 갔더라는 거. [채록자 : 동생이 어렸구먼요?]

동생은 형보다 나이가 어려 가지구, 자기 동생한테, “내가 전쟁터에 병정으러 가더라도, 네가 좀 어머니를 잘 모시구, 내가 있을 때처럼 어머니를 편하게 해 드려라.”

하면서 군대를 갔더라는 거.

둘째 아들은 자기 형한테도 자기 어머니를 잘 모시구 허던 그것을 배우기도 했었고, 또 허던 걸로 작은 아들이 남아서 자기 어머니를 극진히 잘 봉양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거.

그러나 원체 가난하게 살구, 아주 두메 산골이여서, 무엇을 사다 드릴래두 돈도 없구, 또 시장도 멀리 떨어져 있는 두메 산골이었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아들이 부지런히 농사도 짓고, 밥을 해서 주었지만은 늙은 어머니가 인제, 점점 눈이 어두어 가지구서 앞도 잘 보지도 못허구, 아마 방안에서만 출입허구, 이제 바깥 나들이를 잘 못했던 모양여. [채록자 : 몸이 많이 아팠던 모양?]

응. 몸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인제, 이 아들은 들에 나가서 도랑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봉양을 허구, 맛있다고 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드렸다는 거. 이 어머니가 하여튼 맛있는 반찬이 조금 입에 맞지 않으면은 입맛대로 식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

이 아들이 하루는 밭을 일구다가 땅을 파니까, 큰 지렁이가 나오는걸 보고, ‘이게 어뎡가?’ 허구 지렁이를 잡아 가지구서, 이것을 구어서 지가 먹어봤다는 거. 지렁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지가 먹어 보니까, 냄새도,

아마 맛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께 이것을 한번, 그 아들은 나쁜 것인지도 알면서도, 그 어머니가 맛있게 잡수시면 어떨까 하구서, 어머니를 한번 갖다 드려 봤다는 거. 그러니께 어머니가,

“이게 무슨 고기가, 이렇게 쫄깃 쫄깃 허구 맛이 좋으냐?”

허면서 아주 잘 드시더라는 거. 이 아들은 땅을 파 가지구서 인저, 밭을 일구어 가면서 잡은 지렁이를 가끔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라는 거. 그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렁인지, 무슨 다른 고긴지를 분간을 못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모양이여.

그러니께, 그 어머니는 지렁이 고기를 맛있게 먹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시다가 인제, 나라에서 난리가 끝나 가지구서, 큰 아들이 집에 돌아왔더라는 거지. 집에 돌아 와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서,

“어머니, 그동안 나 없는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허구 인사를 허니까,

“너 있을 때보다 더 맛있게 잘 지냈다. 편안하게 잘 지냈다.”

그러면서,

“너 오면 줄려고 내가 아껴뒀던 것이 있다.”

하면서 자리 밑에서, [채록자 : 고기를?]

음. 지렁이 잡숫던, 그 남았던 고기를 끄내 주면서,

“너, 이것 좀 먹어 봐라.”

허니까, 큰 아들이 보니까, 그게 지렁이를 귀 가지구서 말려 가지고 된 지렁이더라는 거. 그래서 지렁이를 가지구서,

“아, 어머니. 이거 지렁이 입니다.”

허구 얘기를 허니까,

“아니, 뭐? 지렁이?”

허구서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구서, 눈이 아주 밝아 졌다. 그런 지렁이를 줬지만은, 그 어머니가 편안하게 생각을 허구 건강까지 해 가지구, 놀래는 바람에 눈까지 밝아졌다는 그런 얘기지. [채록자 : 결국은 효도한 셈이네요.]

지렁이가 효도한 셈이지.

3) 매미가 된 부인¹²²⁾

<줄거리>

아주 오랜 옛날에, 한 선비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선비는 부인이 해 주는 밥만 먹고, 집안 일은 전혀 돕지도 않은 채, 책만 읽었다. 집안 살림이 가난하여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남편이

122) 앞의 책, 184쪽 ~ 186쪽.

글만 읽자, 부인은 들로 나가 피를 훑어다가 밥을 지어 남편을 공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부인이 밖으로 피를 훑으러 가면서, “오늘은 날이, 구름이 많이 몰려와 소나기가 올 것 같으니, 비가 오거든 피명석을 덮어 들여 놓으세요.” 하고 남편에게 부탁하였다.

부인의 말대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큰 물이 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부인은 피를 훑다 말고 피명석이 걱정이 되어, 비를 흠뻑 맞은 채 집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피명석은 모두 물에 떠내려 갔고, 남편은 그것을 모르는지 아는지 책만 읽고 있었다. 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와 버렸다. 집을 나온 부인은, 몇 년이 지난 후 재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가난한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들에서 피를 훑게 되었다.

그 날도 들판에서 피를 훑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나가고 있었다. 부인은 ‘아이고, 저런 사람은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과거 급제를 하여 저렇게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는 건가?’ 하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 전 남편이었다. 부인은 너무도 반가워, “여보. 여보. 나를 알아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뒤쫓아 갔지만, 전 남편은 전혀 못 들은체 하며,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전 남편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멀리서나마 보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여보, 여보” 하고 부르다 매미가 되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얘인데, 어느 시골에 선비가 살았더라는 거. 옛날 선비는 아주 책만 읽고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선비 빛을 본다는 거거든. 이제, 가난한 집에서 선비가 장가를 들어 가지구서, 일이라는 것은 손톱만침도 하지도 않고, [채록자 : 아 장가 들었는데도요?]

응. 장가 들었는데도, 그냥, 그런디, 그 마누라가 그저 밥 해 오면은 먹구, 책만 읽구, 손톱하나 까딱 았구, 부인이 해오는 것, 주는 것, 반찬이 ‘있다, 없다’ 허지두 았구, 부인이 해주는 거, 그냥 먹고 책만 읽더라는 거.

그래서 하루는, 부인이 참 가난한 선비여서 그러구 있으니까, 남자가 일을 해서 먹구 살아야 될텐디, 손톱 하나 까딱 하지 았구 글만 읽으니께, 마누라가, 옛날에는 농사가 요새처럼 쌀이 흔칠 았구 그래서, 들에 나는 피. [채록자 : 피요?]

피는 냇둑이나 어디 많이 나니께, 피가 많이 나는 데 가서, 부인이 바가지들 가지구 가서, 피를 훑어다가 꺾질을 벗겨 가지구서 피밥을 해 주었다는 거.

그래서, 들 같은 데서 나물 같은 것을 해서 반찬을 해서 주구 해두, 선비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허지도 았구, 피밥을 해 주거나, 피죽을 해 주거나, 그냥 먹구서, 먹으면 책만 읽구 허더라는 거.

그래서 하루는, 이 부인이 나가면서, 하늘을 쳐다 보고 허는 얘기가, “오늘은, 날이 워째 서쪽 하늘이 구름이 새카맣게 껴서, 이따가 쏘내기가 올 것 같으니, 내가 멍석에 다가 피를 넣어 났으니, 비가 오거든 피명석을

떨어서 디려 놔 주세요.” 그러면서, 마누라가 피를 또 훑으려 나갔다는 거. 선비는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여튼, 끄떡거리면서 글만 읽더라는 거.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들에 나가서 한참 피를 훑고 있는디, [채록자 : 비가 왔구먼요.]

응. 쏘내기가 아니구, 그냥 물이 막 썰썰 떠내려가게, 쏘내기가 퍼붓더라는 거. 그래, 이 부인은 피를 훌튼대로 훌터 가지구, 옷은 다 후질근이 젖구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입구 집에 와서, ‘피 멍석이 워터게 났나?’ 허구, 자기가 머칠동안 훑은 피니께. 하루 훌튼 것두 아니고, 먹을려구 멍석에다 널어 놔던 피를 워티게 났나 허구, 가 보니께, 피멍석이 전부 물에 떠내려 가가지구서,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구서 피멍석이 다 떠내려 갔더라는 거.

그러니께 피는 하나두 없구, 멍석에 널려 있던 피가 물에 떠내려 가서 하나도 없더라는 거. 그래서, 그 부인이 인제, 그걸 보고서 화가 난 거지. 먹을려고 그랬는디, 그게 식량인디 말여. 그 늑으로 죽이라두 쭈구 끼니를 잇는 건디. 그걸 먹지두 못하게 된 것을 보고서는,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구서, 바가지를 집어 내 버리구서는,

“애, 이놈. 너 같은 놈 허구 살다가는 피 죽두 못 먹겠다.”

허구서는, 거기서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는 거. [채록자 : 집을 나갔어요.]

응. 집을 나간 거. 바가지 집어 내 버리구서, 나가서 몇 년 있다가 재가를 현겨. 시집을 간 거.

또 시집을 가니께 팔자가 그랬던지, 또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간겨. 가난한 신랑을 얻어가가지구서 그러한 집에서 살어서, 그 집에서도 농사를 못짓구서, 그 집에서도 또 피를 훑게 났더라는 거. 팔자가 그런 거지. 팔자소간(관)이지.

그게. 또, 몇 년 흘러 가지구, 들에 나가서 피를 훑고 있는디, 큰 길에서 보니까 사령교(사인교)에 말을 타고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휘’ 허구 지나가더라는 거. 그래서 피를 훌타가, 이렇게 멀리서 쳐다 보니께, ‘아이구, 저런 사람은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과거 급제를 허구서 사령고를 타고서, 저렇게 하인들을 거느리구서, 저렇게 가는 겐가?’ 하고서, 가까이서 쳐다 보니께 아, 사인교에 탄 사람이 보니까, 그 전 남편, [채록자 : 아, 그 전 남편이구먼요.]

응. 전 남편이지. 그러니께 그 선비지. 본 남편이지. 본 남편이여서 쫓아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옆으로 가서. 바깥도 못가지. 옆으로 막 쫓아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전 남편이더라는 거. 그래서, 그 부인이 피 바가지를 집어 내버리고서 쫓아 가면서,

“여보, 여보.”

해 가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나라구, 그 전 살던 나라구”.

막 쫓아가도 사령고에 탄 사람은 본 척두 았구, 하인들두

“비켜서라, 비켜서라.”

만 허지 뭐. 쫓아가다, 쫓아가다 한 없이 십 리 이십 리 쫓아가두, 처다두 안보고, 아는 척두 허지 았구. 산꼭대기 언덕 위까지 갱신이 쫓아가서 보니까, 이 부인이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두 멀리서라도 불라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보, 여보.” 부르다가 매미가 됐다. 매미. [채록자 : 그래서 그 때, 그 매미 소리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

매미 소리가 남편 부르는, 애처로운 그런 구슬픈 소리라는 거지.

* 「용봉산의 민담」은 1996년 홍성문화원에서 실시한 홍성지역 민담 구술채록의 일환으로 채록 된 내용이다. 당시 홍성지역 민담 채록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사투리를 원문 그대로 옮겨놓았다. 용봉산의 민담을 구술해 준 주민은 당시 58세였던 홍북면 상하리 하산마을 출신 고(故) 한재일씨이다. 한재일씨가 구연해 준 민담은 어린시절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내용이라고 했다. 한재일씨는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정년퇴임했으며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 참고문헌

김정현, 『삶과 상상력이 녹아있는 우리동네』, 홍성문화원, 2010.

홍북면지편찬위원회, 『홍북면지』, 홍북면, 2008.

최운식 외, 『홍성의 민담』, 홍성문화원, 1996.

최운식 외, 『홍성의 마을 공동체 신앙』, 홍성문화원, 1996.

구재기·김정현, 『홍성의 전설과 효열』, 홍성문화원, 1995.

IV

용봉산 골짜기에
남아있는 절터와
유적들



용봉산 골짜기 모습

용봉산은 골짜기마다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있다. 절골, 성낙골, 은골, 빈절골(빈대절골), 산제당골, 미륵골, 시묘골, 천승골 등이다. 용봉산 곳곳에 자리잡은 대부분 골짜기에는 암자가 있었지만 모두 폐사되었고 절골에 천년고찰 용봉사가 유일하게 남아있다.

또한 용봉산 골짜기 절터에는 미륵불과 마애불이 전해온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미륵불은 타지로 반출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공주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 중인 문화재도 있다. 용봉산 골짜기에 남아있는 절터와 유적 등을 통해서 과거 찬란했던 불교문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 절골과 주변 유적들

가. 용봉사



용봉사 전경



용봉사 대웅전

용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이다. 절의 자세한 역사는 알 수 없으나 백제 말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봉사의 위치는 원래 현재 자리가 아니었다. 용봉사를 설명하는 안내판의 기록에 의하면, 옛시절 지역의 권력자가 조상 묘를 쓰기 위해 아래쪽으로 옮겨졌다고 적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로 절의 자세한 역사는 알 수 없으나 사찰 주변에서 발견되는 기와편으로 보아 백제 말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000씨 가문에서 옛 용봉사 터에 묘를 조성하기 위해 용봉사를 폐사시켰다고 하는데, 000씨 묘비명으로 보아 1906년(광무10) 전후로 추정된다. 이에 주민들과 신도들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본래의 위치에서 약간 동쪽 아래로 옮겨진 상태이다. -이하 줄임-

원래 용봉사 주변에 있던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 역시도 그 당시에 현재 자리로 함께 옮겨왔던 것 같다. 용봉사 부도를 설명하는 안내판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용봉사 부도

-앞내용 줄임- 이 부도는 서쪽 능선 옛 용봉사 터에 있던 것인데, 1906년경 000씨 가문에서 문중의 선조묘를 조성하면서 옮겨왔다고 한다 -이하 줄임-

용봉사 안내판의 설명대로라면, 용봉산 중턱에 남향으로 자리 잡았던

원래 용봉사 자리가 명당 터였던 것 같다. 지역의 상당한 권력자였던 000씨 집안에서 명당터에 조상의 묘를 조성하기 위해 용봉사가 폐사되었고, 후에 신도들에 의해 현 위치에 다시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용봉사 터에는 공조참판을 지낸 사람의 산소와 비석이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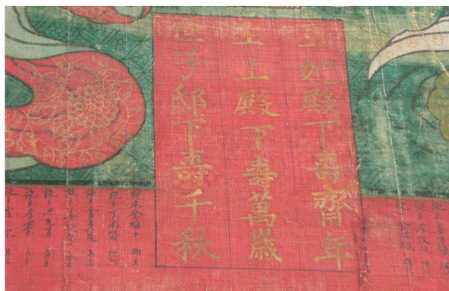
나. 보물 제1262호 영산회 괘불탱



용봉사 괘불탱화 모습

용봉사에는 보물 제1262호인 영산회 괘불탱이 있으며 해마다 초파일에 일반에게 공개된다. 괘불탱은 야외법회를 할 때 걸어놓는 거대한 불화인데,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액자나 족자 형태로 만들었다.

용봉사 괘불탱은 1690년에 제작되었다. 괘불탱의 하단부 중앙 붉은색 부분에는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주상전하수만년(主上殿下壽萬年) 세자저하수천추(世子殿下壽千秋)”라는 기록이 있다. 임금님과 왕비와 세자의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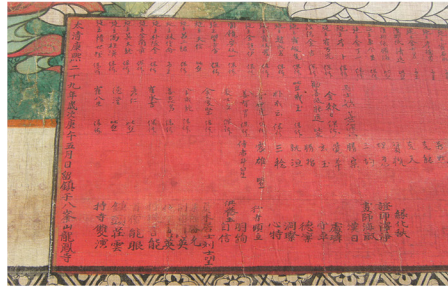


왕실의 만수무강을 비는 문구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688년에 숙종 임금이 세자를 낳으면서 왕실에서 전국의 사찰에 명령하여 세자의 건강을 빌도록 했다고 한다. 용봉사 괘불이 169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서, 왕실의 명에 의해 임금님과 왕비와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용봉사 괘불에 표기된 ‘팔봉산용봉사(八峯山龍鳳寺)’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당시의 용봉산 이름이 팔봉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왼쪽 하단부에 '팔봉산용봉사' 문구

다. 신경리 마애여래 입상

용봉사 옛 절터 바로 위쪽으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보물 제355호인 신경리마애여래입상이 서있다. 마애여래입상은 높이가 4m 정도의 거대한 바위 남쪽 면을 파내고 돌을새김으로 제작되었다.

얼굴은 잔잔한 미소가 흘러 온화한 인상을 주며 손은 두려움을 막아준다는 시무외인이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한 광배는 파낸 바위면에 윤곽 만을 새겼다. 전체적으로 얼굴을 비롯한 윗부분은 깊게 새겨지고 아래 부분은 얇게 새겨졌다.

당시에 이처럼 거대한 불상이 세워진 배경에는 지역 호족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라.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용봉사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 왼쪽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18호 마애여래입상이 조성되어 있다. 마애여래입상은 거대한 바위 남쪽 면에 230cm정도 높이의 돌을새김으로 조각되었다.

마애여래입상 옆으로는 799년(신라 소성왕 1년)에 제작되었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모습

마. 용봉사 약수터

용봉사 경내에는 오래된 약수터가 있다. 용봉사 대웅전 아래 마당 서쪽편 담장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약수터 맨 아래 부분이 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물이 암반수에서 솟아 나오는 듯하다. 약수터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폐식 함석 문을 달아 놓아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약수터 위쪽에는 목 부분을 수리한 약사여래좌상 1구가 놓여 있다.

용봉사 약수터가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이곳에 용봉사가 처음 자리 잡았을 때부터 웅달샘 형태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수터는 처음부터 절의 식수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약수터의 물을 뜨기 위해서는 지하로 허리를 구부려야 할 정도로 깊다. 약수터 내부에는 형광등을 달아놓아서 물속이 바닥까지 흰하게 들여다보인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물속에 잡티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현재는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사찰의 전용 식수 역할보다는 외부인들에게

약수공양 역할만 하고 있다. 용봉산에서 하산하며 마시는 약수 한 모금은 가슴속을 시원하게 뺨 뚫어준다. 약수터 옆에는 수질검사 성적표가 있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용봉사 약수터 모습



용봉사 약수물 모습

바. 옛사람의 시에 등장하는 용봉사

용봉사는 용봉산을 대표하는 고찰답게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해 왔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명한 실학자 중에 지봉 이수광과 다산 정약용이 있다. 이수광은 홍주목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정약용은 이웃 고을 청양에 있는 금정역 찰방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이수광과 정약용이 용봉사를 유람하며 지은 시가 전하고 있다.

龍鳳寺 용봉사

이수광

客來僧殿古 손님으로 와 보니 절이 오래되었네
 苔沒佛庭空 이끼에 덮이고 절의 마당도 비었네
 鳥跡天書怪 새발자국이 하늘이 내린 글씨인듯 괴이하고
 蝸涎壁畫工 달팽이 자국은 벽에 그림 되었네
 石峯高障日 돌로 된 봉우리는 높이 솟아 해를 가리고
 山木冷吟風 산의 나무는 서늘하고 바람소리 들리도다
 爲向沙彌道 중을 보고 하고자 하는 말은
 吾將老此中 나도 예서 늙고자 하노라

* 출처 : 이재원, 『지봉 이수광의 문학세계』, 한국학술정보(주), 2008.

過龍鳳寺

정약용

西海寡名山 墳衍厚肌肉 不圖化骨 梳洗出平陸 群巒起 刻削散大朴 廉纖欲銷滅
 復森束 驚鴻矯自舉 奇鬼伺還伏 臣獻側媚 女含毒 制造信崎 百態紛駭 僕夫向余言
 蘭若在中谷 下馬理輕策 豈復念緋玉 脩陰下曾阜 錦石委澗曲 巖經微霜紅 間翠竹
 禪樓出樹 滄 便悅目 老僧辭荒廢 未足待信宿 破餘點滴 古殿暗丹綠 既不愛禪逃
 必隨僧粥 却憶南臯子 與觀華山瀑 放浪白雲 吟嘯震林木 盛事足歎 俯念傷局促
 棲棲作客旅 無人問幽獨 所以靈悟人 能齊寵辱

용봉사에 들러

정약용

서해의 지역이라 명산은 적고 / 기름진 넓은 들만 깔리었는데 / 뜻밖에도 본질을
 탈바꿈하여 / 머리 빋고 몸 씻어 평지에 나와 // 못 봉우리 드높이 솟아오르니 / 가파러
 투박한 살 털어버렸네 // 가녀린 꼴 금세 곧 소멸할 것만 / 험난하여 또다시 삼엄한
 느낌 // 놀란 기력 고개를 높이 쳐들고 / 별난 귀신 엇보다 도로 옆드려 // 아침하는
 간신은 참소 올리고 / 경망한 아녀자가 독기 품은 듯 // 생김새 그야말로 특이하구나
 / 온갖 형태 보는 눈 휘둥그레져 // 따르는 종 나에게 말해주기를 / 절간 하나 골짜기에
 들어있으나 // 말을 내려 지팡이 들고 나서니 / 관원 신분 생각을 할게 뭐있겠나 //
 긴 그늘 높은 언덕 내리 덮이고 / 비단 돌 시내 굽이 깔리었는데 // 서릿발 살짝 덮은
 드높은 바위 / 푸른 대에 끼어든 붉은 담쟁이 // 절간이 나뭇가지 위에 나오니 / 싸늘한
 정경에도 반갑고 말고 // 노승이 하는 말이 절이 황폐해 / 이틀 유숙 접대는 할 수
 없으나 // 깨진 대흙통 물줄기 아직 남았고 / 낮은 절간 단청빛 흐려 어둡네 // 절간
 살이 내 이미 달갑잖은데 / 어찌 굳이 중따라 죽을 마시랴 // 생각 난다 지난날 우리
 *남고자 / 어울려 화산 폭포 구경할 적에 // 흰구름 산마루에 방랑을 하며 / 숲나무
 진동하게 노래 불렀지 // 그때 그 성대한일 감탄 겹거니 / 오늘날 매인신세 가슴
 아프네 // 나그네 몸이 되어 떠돌다 보니 / 고독한 사람 찾을 틈이 없구나 // 이때문에
 또 깨진 사람이라야 / 비로소 영에 차욱 같아지는 법//

* 출처 : 송기채 역, 『다산시문집』 제2권, 학국고전번역원, 1994.

2. 빈절골(빈대절골)과 주변 유적

용봉산 빈절골은 최영장군 활터 서쪽으로 펼쳐진 골짜기이다. 흥북읍 상하리 하산마을에서 올려다보이는 골짜기이다. 마을에서는 빈대절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빈절골 8부 능선쯤에 절터와 마애보살입상이 전해온다.

가. 빈절골 절터

2019년 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용봉산 빈절골 절터를 발굴조사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빈절골에서 통일신라~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석축과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빈절골 모습

사찰터가 확인된 곳은 흥북읍 상하리 용봉산 정상과 최영장군 활터의 바로 밑에 위치한 2,300m²로 인근 주민들이 ‘빈절골’로 부르는 곳이다. 사찰은 골짜기 경사면에 여러 개의 대형 석축을 쌓아 조성하고 입구에 마애불을 세운 독특한 형태의 산지가람이라고 밝혔다. 빈절골에는 17~18세기까지 절이 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빈절골 절터와 골짜기 모습



빈절골 절터 전경



빈절골 마애여래 입상과 주변 모습



빈절골 절터 발굴 초석 모습

나. 빈절골 절터에서 발굴된 금동불입상



금동불입상 모습

2019년 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용봉산 빈절골 절터를 발굴조사 하면서 매우 의미있는 유물들을 발굴했다. 이 당시 발굴조사를 통해 9세기 경에 제작된 금동불상입상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함께 발굴되었다. 이곳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이 출토되면서 당시에 사찰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발굴된 금동불입상은 길이 7cm 정도로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형태이다. 당시 발굴 관계자는,

“아주 잘 만들어진 고급스런 불상으로 지체 높은 고승이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불상이 없어 역사적 의미도 크다고 판단했다.

발굴지에서는 금동불 외에도 청동방울, 납석제, 귀면와편, 연화문 수막새, 청자편, 인화문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다. 빈절골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빈절골 절터 입구에는 ‘상하리마애보살입상’이 전해온다. 빈절터 입구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는 바위면에 돌을새김으로 새겨놓았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각으로 정교하게 새긴 마애보살입상은 머리에는 장식을 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오른손은 내리고 왼손은 가슴에 붙였다. 머리 뒤엔 광배를 표현하였으며 선각으로 표현된 목의 주름(삼도)과 옷주름이 매우 선명하다. 산 속 깊은 곳에서 보호장치 없이 풍상을 맞아 머리 부분이 손상을 입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라. 고려시대 역사의 현장으로 추정되는 용봉산 석굴¹²³⁾

용봉산 빈절골 절터에서 10여미터 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의미 있는 석굴이 있다. 석굴 안쪽은 어른 대여섯 명이 들어가 앉아도 될 만큼 공간이 넓다. 석굴 아래로 시야가 탁 트이고 주변을 조망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석굴 안에는 바위틈에서 솟아 나오는 시원하고 맑은 물이 고여 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고여 있어서 등산객들이 잠깐 쉬며 목을 축이고 가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등산객들이 알음알음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정도이다.

이 석굴은 고려시대 역사와 관련된 곳으로 추정되어 색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옛날 고려시대 홍성에서 일어났던 반란 사건과 관련한 역사의 현장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역사에서 무신정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최충헌(崔忠獻, 1149~1219)이다. 최충헌은 문무의 전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왕을 폐위시키는 등 권력을 독점했던 인물이다.

최충헌의 말년에 병이 중하여 위독해지자 두 아들의 권력다툼이 표면화되었다. 큰아들 최우와 동생 최향의 권력다툼이었다. 결국 큰아들 최우가 권력을 잡았고, 동생 최향(崔珦, 1168~1230)은 이곳 홍주로 유배되었다.

123) 김정현, 『내포 옛터 이야기 4』(내포구비문학연구소, 2020년), 90쪽~ 93쪽.



최향이 숨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석굴 모습

급기야 홍주로 유배된 최향은 1230년 8월에 부랑인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홍주부사와 판관 등을 살해하고 측근과 인근에 격문을 보내어 반란에 참여할 것을 청했다.

최향의 반란소식은 중앙에 전해졌고, 곧바로 관군이 동원되어 토벌작전이 벌어졌다. 최향은 수세에 몰리자 수하들을 데리고 북산(용봉산)으로 몸을 피했다. 최향을 쫓던 군사들이 용봉산을 에워싸고 수색하므로, 함께 따라갔던 반란무리들은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다.

최향은 산속에 혼자만 남아 갈 곳이 없으므로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아마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바위에서 떨어진 몸이 멀쩡했으므로 주변 석굴 속으로 들어가 목을 찌르고 거깃으로 죽은 채 하고 있었다. 뒤쫓던 군사들이 최향을 석굴 속에서 발견하고 사로잡아 홍주옥에 가두었다.



석굴 안쪽에서 내려다 산 아래 전경



석굴 안쪽 모습

최향은 정권다툼에서 밀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민폐를 끼쳤다. 소문을 듣고 최우와 지방 관리들이 수차에 걸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듣지 않고 횡포를 일삼았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최향은 홍주로 귀양 간 후 항상 불평을 품고 있으면서 자택 공사를 크게 벌여놓고 불의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주민들을 침해하였으므로 온 경내가 다 고초를 겪었다. 최우와 홍주의 수령이 금지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했다.

용봉산은 산 전체가 바위로 뒤덮였다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 기암괴석이 많다. 이 석굴은 최향이 최후에 몸을 숨기며 은거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석굴 안에 숨어 주변을 살피 가며 시원한 물로 타는 목을 축였을 것이다.

3. 가마발골과 주변 유적

가마발골은 산제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상하리 하산마을에서 올라다보이는 솔숲 속에 가마발골 절터가 자리잡고 있다. 가마발골은 골짜기에 가마를 닮은 큰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지명유래가 전해온다.



상산마을에서 올라다 본 가마발골 모습

가.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옮겨진 가마발골 목없는 여래입상¹²⁴⁾

용봉산 남쪽 기슭 상하리 하산마을 뒷산 골짜기에 가마발골 절터가 있다.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되어 나무만 우거진 골짜기가 되었다.

이곳 가마발골 사지에는 목 없는 여래입상이 땅에 반쯤 묻힌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옛시절 마을 아이들은 가마발골 절터를 놀이터처럼 사용했다. 절터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누워있는 여래입상 위로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기도 했다.

1980년대 어느날이었다.

상산마을이 고향인 한상숙씨(76세, 초등학교 교사로 퇴임)는 이웃마을

124) 김정현, 『내포 옛터 이야기 2』(홍성문인협회, 2018년), 166쪽~ 168쪽.

홍복을 내덕리 부근에 갈 일이 있었다. 내덕리 양계장 공터에 목 없는 여래입상이 놓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어린시절 가마밭골에서 보았던 여래입상이 떠올랐다. 전체적인 모습이 어린시절에 절터에서 보았던 여래입상과 비슷했다.

한상숙씨는 양계장 주인에게 여래입상이 여기에 놓여있는 이유를 물었다. 양계장 주인은 낯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잠깐 맡겨놓았다고 했다.

며칠 뒤에 양계장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여래입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양계장 주인에게 물었더니 처음 맡겨놓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론가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양계장 주인은 여래입상을 옮겨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서 간신히 알아낸 것은 여래입상을 옮겨간 차 번호였다.

한상숙씨는 부랴부랴 경찰서와 홍성군청에 연락했다. 차량을 수배하고 박물관에 연락하여 차를 수배하였다. 차를 수배하여 알아본 결과 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여래입상을 온양 부근의 돌공장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부랴부랴 돌공장으로 달려가 여래입상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여래입상은 원래 자리잡고 있던 가마밭골 사지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 여래입상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현재 목없는 여래입상은 국립공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서있다. 여래입상을 소개하는 안내판에는 ‘서계신 부처님, 홍성 상하리’라는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여래입상의 제작연대는 고려시대로 알려지고 있다.



4. 용방치기 절터와 주변 유적



용방치기 절터 주변 모습

홍북읍 상하리 하산 마을에서 말무덤 고개를 넘어가면 용방치기 마을과 만난다. 용방치기 마을에서 100미터쯤 북쪽 산기슭 안쪽으로 올라가면 절터가 자리잡고 있다. 용방치기 절터는 염불굴로 올라가는 초입에 해당된다.

가. 절터와 초석

현재 용방치기 절터 한쪽에는 민가 한 채가 있으며 주변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가 앞에는 절을 지을 때 사용한 초석이 한 개 놓여 있으며 원래 자리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 초석 가운데 둥글게 기둥을 올려놓은 홈이 파여있는데 지름이 성인 손으로 두 뼘 반쯤 된다. 초석의 규모로 보아 절의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시절부터 절터 부근에 살아온 주민에 의하면, 용방치기 절에서 빈절골 정상부에 자리잡은 절로 밥을 지어 날랐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빈절골은 지대가 높아서 밥을 지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이었다.

용방치기 절에서 쌀을 씻을 때 마을 아래 하천으로 싸라기가 하얗게 흘러내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용봉산 아래로 흐르는 하천 이름을 ‘싸라기내’로 불렀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밭으로 사용되는 절터 땅속에는 기와 파편이 많이 묻혀있다고 한다.

나. 용방치기 절터 입구에 놓여있던 미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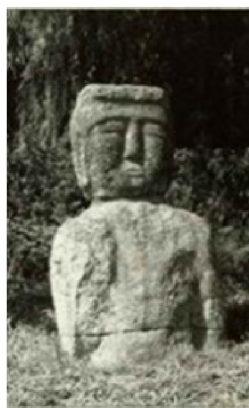
옛날부터 용방치기 절터 입구 길가에 오래된 미륵불이 서있었다. 미륵불은 상반신과 얼굴 부위만 조각된 모습이었다. 상하리 하산마을에 있다고 하여 ‘하산미륵’이라 불렀으며, 상산마을 미륵골에 있는 상하리 미륵보다 작다고 하여 ‘작은미륵’으로도 불렸다.

2005년 3월에 미륵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누군가 밤에 차를 세워놓고 몰래 옮겨간 것이다. 지금은 미륵불을 올려놓았던 받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미륵불은 마을에서 사라졌지만 사진이 전해오고 있다. 2001년 3월 19일자 홍성신문 문화면에 ‘홍성지역 미륵불 순례’라는 칼럼이 실려 있다. 이 당시에 사진작가 강태훈씨가 제공한 미륵상의 사진과 함께 설명 내용이 전해오고 있다.



미륵불을 올려놓았던 받침대



사라진 미륵불 모습(홍성신문 캡처)

5. 미륵굴과 주변 유적

용봉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용봉초등학교 옆으로 등산로가 있다. 용봉초등학교에서 용봉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 골짜기를 미륵굴이라고 부른다. 골짜기에 거대한 미륵불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큰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상하리 미륵불

미륵굴 등산로를 따라 300여미터 쯤 올라가면 넓은 공터가 조성되어 있다. 넓은 공터는 과거 암자와 대웅전이 서있던 자리이다. 넓은 공터 한쪽에 웅장한 고려시대에 제작된 상하리 미륵불이 서있다.

상하리 미륵불을 설명하는 안내판 내용 중에는 “가늘고 긴 눈, 넓적하고 큰 코, 작으면서도 얇게 새긴 은은한 입가의 미소에서 자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2001년 5월 7일자 홍성신문 ‘홍성지역 미륵불 순례’ 칼럼 내용이다. 칼럼 내용은 ‘국가 통치의 도구가 된 미륵’, ‘마치 위엄있는 군인을 보는 듯’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안내판 내용과 느낌이 다르다. 미륵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설명 내용도 서로 다른 느낌이다.



홍성지역 미륵불 순례⑤ / 충북편 상하리 미륵

국가통치의 도구가 된 미륵

마치 위엄있는 군인을 보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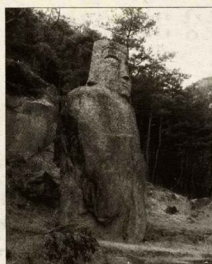
용봉산의 여러 미륵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상하리 미륵이다. 용봉초등학교에서 등산로를 따라 정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작은 암자 옆에 있는 미륵을 만날 수 있다.

상하리 미륵은 다른 미륵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크기가 마을 미륵과 비해 무척 크다.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가 위압적이어서 마치 군인만 군인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상하리 미륵이 이렇게 민중을 감싸는 친근한 모습이 아닌 것은 이 미륵이 민초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려초기 혼란한 통일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교적 이념이 필요하였다. 피폐한 민심을 가다듬고 중앙정부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미래불이 아닌 당래불(當來佛)로서의 미륵신앙이 적격이었고, 국가주도로 각지에 많은 미륵불상을 건립하게 되었다. 상하리 미륵과 같은 백제시대 불상으로 건립된 것이 관측사 미륵과 대조사 미륵이다. 이때부터 종교가 국가의 통치 도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볼 수 있다.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다보니 불상들은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불상의 얼굴 모습은 언제나 그 시대의 표정을 담고 있



다. 이 불상은 백성의 민심을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적인 표정보다는 딱딱한

장군의 모습으로 하려이 넓고 코의 선이 굵게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륵신앙은 사위기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내세주의와 자생신앙이다. 그러나 장군 담당자들은 본체가 곧 미륵정토이며 이상향이라는 국민 세뇌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며 그 방법으로 미륵신앙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의 시기이다. 그러나 위장자들은 희망찬 미래만을 강변한다. 고려초기 미륵을 이용하였던 위장자들과 오늘날의 위장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곰곰히 생각해 보며 상하리 미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글/사진: 강태훈 (세천대 교수·사건)

나. 철거된 용도사 대웅전

홍복읍지(2008년) 마을편에 보면, 옛날 미륵불 옆에 월명암(月明庵)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쯤에 개인이 월명암 자리에 용도사를 세웠고 미륵불 옆에 대웅전도 웅장하게 지었다.

하지만 대웅전 건물은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철거되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는 대웅전과 암자 자리에 넓은 공터가 조성되었다.



철거된 용도사 대웅전 옛모습

다. 미륵굴에 자리잡은 청송사

상하리 미륵불에서 50여 미터쯤 동쪽으로 청송사가 자리잡고 있다. 청송사는 용도사 자리에서 석불사라는 이름으로 불사를 시작했다가, 근래에 청송사로 이름을 바꿨다. 아직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선 것은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임시 건물을 설치하고 불사를 진행 중이다.

청송사를 안내하는 설명 내용 중에는, “홍주 출신 보우국사의 사리탑을 4곳에 모셨는데, 그 중 한 곳이 용봉산 청송사이다. 시굴을 통해 사철 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왕(王)’자 기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청송사 터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석불사를 청송사로 개칭하고 불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청송사 모습



청송사 설명 안내판

6. 천승골과 주변 유적

천승골은 흥북읍 중계리 동막마을에서 용봉산이 올려다보이는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천명의 스님이 기거하던 큰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천승골 동쪽으로는 삼등비얇이라고 부르는 산등성이 너머로 시묘골이 있다.



천승골 전경

가. 천승골 절터

천승골은 중계리 동막에서 용봉산 서쪽 기슭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천승골 입구에는 수백그루 배나무를 심어놓은 과수원이 자리잡고 있다. 배나무 과수원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절터가 있다.

천승골 절터는 계단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석축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밭으로 개간된 절터 주변에는 깨진 기와 파편이 다량으로 발견된다.

전설에 의하면 천승골에서 천 명의 스님이 먹을 쌀을 씻을 때 쌀뜨물이 작은 실개천을 이루며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고 한다. 쌀뜨물에 섞인 싸라기가 산 아래 하천으로 흘러가며 ‘싸라기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천승골 절터 모습



천승골 절터 축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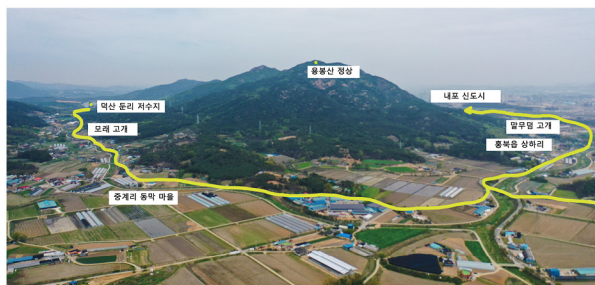


용봉산의 고개



용봉산에는 산을 가로지르며 홍성과 덕산 방향으로 넘나들던 고개가 남아있다. 현재는 사람들의 통행이 끊어진 고개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과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고개도 전해온다.

1. 옛시절 보부상들이 넘나들었던 모래고개¹²⁵⁾



모래고개와 말무덤고개

옛시절 덕산장과 홍성장을 오가려면 용봉산 기슭에 있는 고개를 이용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보부상들이 주로 이용하던 길은 용봉산과 홍동산 사이에 놓인 모래고개였다.

모래고개는 예산군 덕산면 둔리 가루실 마을과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동막 마을의 경계이다. 고개 양쪽으로 용봉산과 홍동산이 있으며, 두 산줄기가 만나는 가운데 잘록한 능선 부분을 통과한다. 모래고개는 양쪽 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가루고개’ 또는 ‘동막고개’로도 부른다.

옛 기록에는 모래고개로 전해오는데 고개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다. 흔히 주변에 모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개 어디를 봐도 모래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동막마을 모래고개 모습(모래고개→동막)



모래고갯마루 모습

125) 김정현, 『홍성의 고개』(내포구비문학연구소, 2022년), 61쪽 ~ 62쪽.

모래고개에 등장하는 ‘모래’는 옛말에서 산이나 높은 곳을 의미하는 ‘몰’의 변형이라고 한다. ‘몰’이 ‘고개’라는 낱말과 합쳐지며 ‘모래’로 변형되어 ‘모래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모래고개의 지명 유래는 높은 산 고개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가루실쪽 모래고개 모습(모래고개→가루실)

2. 말무덤고개¹²⁶⁾

용봉산 동쪽 기슭 용봉초등학교가 있는 상하리 상산마을에서 하산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름이 ‘말무덤고개’이다. 옛날에는 길옆에 말을 묻었다는 큰 무덤이 있었는데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흔적이 사라졌다.

말무덤고개는 『한국지명총람』에 ‘말무덤재’로 표기되었는데, 말을 묻어두었다는 의미보다는 큰 무덤이 있는 고개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옛날 최영장군이 타던 말을 묻었던 고개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 용봉산에서 무술 수련을 하던 소년 최영이 이십 리 밖에 있는 홍북읍 노은리 닭제산 봉우리에 앉은 닭을 활로 쏘서 맞혔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소년 최영이 무술 수련을 하던 말을 묻었다고 하여 붙여진 고개이름이라고 한다. 말무덤 자리에서 용봉산을 올라다보면 최영 장군이 무술 수련을 했다는 활터와 정자가 바로 뵈힌다.

126) 앞의 책, 63쪽 ~ 64쪽.

3. 옛시절 나무꾼들이 넘나들던 뽕나무 고개¹²⁷⁾



용봉산과 수암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뽕나무 고개

뽕나무 고개는 용봉산과 수암산의 경계 부근에 있는 고개이며 행정상으로는 예산군 관할이다. 내포신도시 보훈공원에서 뽕나무 고개로 올라간 후에 고갯마루에서 예산군 덕산면 둔리 저수지 방향으로 내려간다. 고갯마루에서 양쪽으로 용봉산과 수암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뽕나무 고개는 용봉산에서 수암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해 있다. 수암산 쪽 잘록한 능선 부분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넘나드는 고개이다.

지금은 내포신도시로 변했지만, 충청남도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예산군 삽교읍 목리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여러 마을이 뽕나무 고개를 이용했다. 주로 용봉산이나 수암산에서 나무를 하여 시장에 팔기도 하고 가정의 땔감으로 사용했다. 덕산장이나 수덕사를 갈 때도 뽕나무고개를 넘어 다녔다.

홍성군 홍북초등학교와 산수초등학교 출신 원로들 중에는 뽕나무 고개를 넘어 수덕사로 1박 2일 수학여행을 다니던 추억이 남아있다. 금마면과 홍북면에 위치한 산수초등학교와 홍북초등학교에서 수덕사로 가려면 뽕나무 고개가 지름길이였다. 학교에서부터 쌀을 보자기에 싸들고 뽕나무 고개를 넘고 둔리저수지와 가루실 골짜기와 수덕고개를 넘어서 수덕사까지

127) 앞의 책, 57쪽 ~ 60쪽.

수학여행 갔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용봉산과 수암산 동쪽으로 삽교읍 목리와 흥북읍 신경리와 주변 마을에서는 용봉산과 수암산이 땀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다. 동네 주민들이 우르르 어울려서 땀감을 구하기 위해 뒤편이 고개를 넘어 다녔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을에서 바라보면 아침·저녁으로 지계를 짚어진 사람들이 십여 명씩 줄을 지어 뒤편이 고개로 향했다. 빈 지계에 도시락을 걸치고 산으로 올라가는 행렬은 축제 때에 가장행렬을 보는 듯했다. 저녁 무렵에는 지계에 나무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행렬이 이어졌다.

옛날 용봉산 뒤편이 고개 아래쪽에 살던 연로한 주민들은 뒤편이 고개를 넘나들며 용봉산으로 나무를 다니던 추억이 남아있다.

금도 뒤편이 고개를 넘는 산길은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다만 옛날처럼 고개 양쪽 동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넘나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등산로 역할을 하고 있다.



뒤편이고갯마루(왼쪽은 용봉산, 오른쪽은 수암산 방향)



보훈공원에서 뒤편이고개로 향하는 등산로

4. 용봉사에서 수덕사로 넘어가던 소고개

용봉산 악귀봉 동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이다. 용봉산 아래에서 염불골을 따라 올라가면 맨 위쪽에서 만나는 능선 줄기이다. 고개 모습이 소의 등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고개는 용봉사에서 수덕사로 넘어가던 고개이다. 옛시절 스님들이 용봉사와 수덕사를 오가며 넘나들었을 것이다. 또한 양쪽 산너머에 사는 마을 주민들도 소고개를 넘나들었을 것이다.

현재는 소고개 주변에 임간휴게소가 설치되어 등산객들이 많이 쉬어간다.

악귀봉 능선을 따라 내려온 등산객들이 소개를 통해 염불골로 내려오는 코스이기도 하다. 또한 소고개는 옛날 용봉산에 있던 용봉산성의 북문지에 해당한다.



염불골 북문지 모습



북문지 주변 옛 성터 흔적

* 참고문헌 : 김정현, 『홍성의 고개』, 홍성문화원, 2022.



용봉산의 바위



용봉산에는 기암괴석이 많아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다. 용봉산의 기암괴석 이외에 마을 주변에 전해오는 의미있는 바위들을 살펴보았다.

1. 하산마을 산제바위

하산마을 뒤쪽으로 산제바위골에 있는 바위이다. 해마다 산제를 지내는 바위이며 산제당으로도 부른다. 하산마을 산제는 역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마을 제의이다. 산제바위가 있는 골짜기 지명은 산제바위골로 부르며 하산마을과 쥐산이 뺨히 내려다 보인다.



산제바위

2. 부엉배

용봉산 남쪽 기슭 상하리 상산 마을 뒷산에 부엉배로 부르는 큰 바위가 있다. 옛날 바위에서 부엉이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시절 부엉바위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다. 마을사람들의 휴식터는 물론이고 처녀총각의 데이트 장소 역할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엉바위는 부엉배로 불렸고 주변 골짜기도 부엉배로 통한다.



부엉바위

3. 여수바위

상하리 하산마을 쥐산 북쪽 끝 지점에 고인돌 2기가 나란히 마주보고 서있다. 상하리 하산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50미터 지점에 있다. 옛날 고인돌 주변은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으나 현재는 밭으로 변했다.

이 고인돌은 옛날부터 마을에서 여수바위로 부르고 있다. 여수바위라는 명칭의 유래는 불확실하나 여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옛날 용봉산 기슭 으스스한 산고랑이었으며 주변 골짜기에 여우가 살았으므로 붙여진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마주보고 있는 여수바위 모습



고인돌 1



* 참고문헌

김정현, 『지명과 전설을 품은 홍성의 바위 이야기』, 2023. 홍성문화원
김정현, 『내포옛터이야기 1,2,3,4』. 내포구비문학연구소. 2017~2020.
홍북면지편찬위원회, 『홍북면지』, 2008.



용봉산의 등산로



용봉산을 등산하는 길은 다양하다. 등산로마다 특색있는 이야기와 기암괴석들이 자리잡고 있다.

홍성군에서 제공한 등산로는 크게 세 방향이다. 이 길들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제시된 등산로를 참고삼아 각각 시간과 체력에 맞게 응용하여 오르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홍성군에서 제시한 등산로 3곳 이외에 염불골과 내포사색길도 함께 살펴보겠다.



1. 바위포탄을 던지며 사랑을 쟁취하던 봉우리 (제1코스)¹²⁸⁾

- 상하리 미륵골과 투석봉으로 오르는 길 -

제1코스는 용봉초등학교 - 미륵골 - 투석봉 - 최고봉(정상) - 노적봉 - 악귀봉 - 임간휴게소 - 용바위 - 병풍바위 - 구룡대 매표소(3.4km, 2시간 30분)로 이어진다.

제1코스는 미륵골 입구인 용봉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용봉초등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골짜기가 미륵골이다. 용봉초등학교는 용봉산의 남쪽 기슭 홍북읍 상하리에 위치해 있다.

미륵골 입구에서 미륵불이 서있는 곳까지 거리는 300m 정도이다. 보통 걸음으로 쉬엄쉬엄 오르면 대략 20분 정도 걸린다. 미륵골 초입에서

128) 김정현, 『월산과 용봉산의 술바람길 이야기』(홍성문화원, 2011년), 126쪽~ 151쪽.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넓은 공터와 함께 자연석을 깎아 조성한 거대한 미륵불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이 미륵불을 ‘상하리 미륵불’이라고 부른다. 상하리 미륵불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7호이며,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온다.

미륵불은 전체적으로 몸체와 얼굴이 거대하다. 얼핏 보기에는 얼굴에 웃음을 띤 마음씨 넉넉한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이 위압적이라는 인상도 주고 있다.

옛날 상하리 미륵불 옆으로는 폐사 직전의 암자가 있었다. 2000년대 초에 암자 자리에 원웅종 계통의 용도사가 세워졌다. 하지만 용도사 대웅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철거되었다.



상하리 미륵불 모습

요즘에는 청송사라는 절 이름의 가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청송사는 비닐하우스를 지어놓은 임시 건물을 지어놓고 불사중이다. 청송사와 절터의 유래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서있다.



철거된 용도사 대웅전 옛모습



청송사 안내판 모습

필자는 미륵불을 바라보며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50여 년 전에 이곳을 처음 방문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이곳 암자 골방에서 공부했다.

우리들은 그 친구의 자취 도구와 책과 이부자리를 하나씩 들고 이곳까지 함께 왔다. 마당 한쪽에 자리잡은 넓은 바위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놀다 간 기억이 새로웠다.

지금 이곳에서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미륵불과 함께 절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넓은 바위뿐이다. 옛 생각에 잠겨 주변을 서성이다가 잠깐 바위 한쪽에 걸터앉았다. 재수와 삼수를 하면서 열심히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친구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상하리 미륵불을 뒤로하고 투석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절벽처럼 가파르다. 숨을 헐떡거리며 소나무 숲속 사이로 걸어가는 길은 고즈넉한 정적이 흐른다. 어쩌다 불어오는 바람 한 점이 소나무 향내를 진하게 전해주며 가쁜 숨을 다독여준다.



옛 추억이 깃든 바위



미륵불에서 투석봉으로 오르는 등산로와 봄꽃 모습

필자는 이 길을 오를 때마다 머리 위로 큰 바위가 숨숨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곤 한다. 건너편 백월산에서 날아오는 바위가 쿵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로 떨어질 것만 같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용봉산과 백월산에 살았다는 두 장수의 사랑싸움이 전설로 전해오기 때문이다.

옛날, 백월산과 용봉산에 힘이 센 장수가 살았단다. 두 산의 가운데 마을에는 아주 예쁜 소향아가씨가 살았다.

두 장수는 소향아가씨를 짝사랑했다. 어떻게든지 소향아가씨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맞은편 장수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 두 장수는 서로 미워하다가 큰 싸움이 벌어졌다.

두 장수는 바위를 들어서 상대편 산으로 집어 던졌다. 두 장수가 던지는 바위는 마치 포탄처럼 날아다녔다. 몇날 며칠동안 집어던진 바위는 용봉산에 더욱 많이 쌓였다. 백월산 장수가 바위를 더 많이 던졌기 때문이다.

결국 두 장수의 싸움은 백월산 장수의 승리로 끝났다. 소향아가씨도 백월산 장수의 차지가 되었다. 소향 아가씨가 살았던 마을은 소향리가 되었다. 두 산 가운데에 자리잡은 소향리는 백월산이 속해있는 홍성읍으로 편입되었다는 전설이다.

용봉산이 남한의 작은 금강산이라는 애칭이 붙은 것은 수많은 바위와 기암괴석 덕분이다. 전설대로라면, 용봉산의 수많은 바위와 기암괴석들은 백월산에서 옮겨온 것이 되는 셈이다.

어떤이들은 용봉산장수와 백월산장수의 싸움을 왕건과 견훤의 전투에 비유하기도 한다.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놓고 고려와 후백제는 이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 이 전투에서 왕건이 대승을 거두었고, 결국 후삼국통일의 주도권은 왕건에게로 넘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용봉산장수와 백월산장수의 사랑싸움 전설로 형상화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바위 위로 지나다니는 등산로 모습

등산길은 온통 바위투성이다. 바위를 등산로 삼아서 올라가야 하는 길이다. 바위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잠깐 쉬고 싶은 딱 그 자리에 정자가 한 채 서있다. 정자에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기분은 딴 세상에 온 것 같다. 자연스레 “물맛이 참 꿀맛이다.”는 중얼거림이 튀어나온다.

정자에 앉아서 바라보는 맞은편은 백월산이다. 백월산과 용봉산 사이에

펼쳐진 들판이 그림 같다.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다랑이 논이 산골짜기의 운치를 더해준다. 백월산과 용봉산을 오가는 중간지점에, 세계적인 예술가 고암 이용노 화백의 생가와 기념관도 아스라이 건너다보인다.

정자에서 잠깐 가쁜 숨을 가다듬고 나면 다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한다. 숨을 헐떡거리며 20여분 쯤 오르면 ‘투석봉’이라고 부르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투석봉은 용봉산의 최정상은 아니지만, 이곳까지만 오르면 앞으로는 비교적 쉬운 길이다.

투석봉(投石峰)이라!

봉우리 이름이 참으로 특이하다. 한자말대로 해석하면 돌을 던지는 봉우리라는 뜻이다. 전설 속의 용봉산장수가 백월산장수와 싸우면서 돌을 던지던 봉우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투석봉에서 백월산을 건너다보며 서 있으면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갈 것만 같다. 이곳에서 펄쩍 뛰면 백월산까지 가볍게 건너갈 것만 같다. 백월산 쪽으로 온 힘을 다하여 바위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붓던 피끓는 젊은 장수가 되어보고 싶다.

용봉산 투석봉에서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최고봉으로 향하는 길은 평탄하다. 최고봉까지는 23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옆드리면 코 당을 만큼 가깝다.

투석봉에서 최고봉으로 가다 보면 최영 장군 활터가 건너다보인다. 투석봉과 최영장군 활터 사이에 있는 골짜기는 빈절골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빈 절터만 남아있다.



투석봉에서 건너다 본 백월산 모습



투석봉 이정표 모습



투석봉에서 건너다 본 최영 장군 활터 모습

투석봉에서 최고봉까지는 쉬엄쉬엄 걸어가도 20여 분이면 충분하다. 주변에 흩어진 기암괴석과 산계곡을 둘러보며 쉬엄쉬엄 등산하는 기분이 일품이다.

기암괴석 사이를 뚫고 터널 같은 길을 벗어나면 용봉산 최고봉이다. 최고봉에는 각양각색의 바위들이 돌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이 돌무더기들을 기단 삼아서 최고봉 표석이 우뚝 솟아 있다. 용봉산 최고봉의 높이는 해발 381m이다.



터널처럼 늘어진 기암괴석 모습



최고봉 주변의 기암괴석 모습



용봉산 정상 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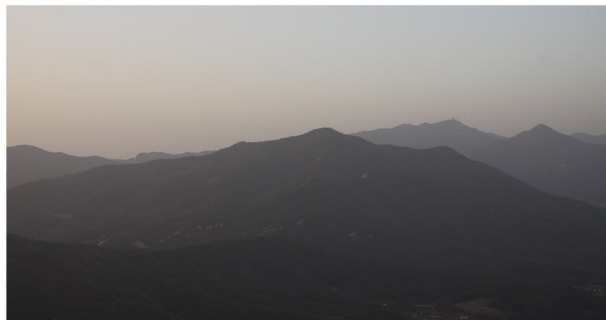
용봉산 최고봉에 서있으면 주변 경관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서해안 천수만 모습도 볼 수 있고, 동쪽으로 충청남도청이 자리잡은 내포신도시도 한눈에 들어온다. 최고봉에서 서해안 천수만과 서쪽 산봉우리로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장관이다. 북쪽으로 이어진 악귀봉도 보이고 멀리 수덕사 덕숭산과 가야산도 건너다.



최고봉에서 바라본 석양 모습



최고봉에서 바라본 천수만 모습



최고봉에서 바라본 덕송산과 가야산 모습

등산길은 계속 이어진다. 최고봉에서 노적봉과 악귀봉을 거쳐서 임간휴게소와 용바위까지 갈 수 있다. 용바위에서 수암산 방향으로 계속 넘어갈 수도 있고 병풍바위 쪽으로 하산할 수도 있다. 또한 임간휴게소에서 마애석불과 용봉사쪽으로 하산할 수도 있다. 최고봉에서 최영장군 활터 쪽으로 하산할 수도 있고 염불골로 통하는 소고개에서 하산할 수도 있다.

용봉산 최고봉에서 이어지는 노적봉은 해발 350m이고 봉우리 전체가 바위로 뒤덮여 있다. 멀리서 쳐다보면 봉우리 전체가 벚단을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런 모습 때문에 노적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노적봉 모습

노적봉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릴 적 고향마을의 가을 모습이 떠오른다. 벼 타작을 위해 논에서 날라 온 벼단을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노적가리는 아이들의 아주 좋은 놀이터였다. 벼를 타작하고 옆으로 제쳐놓은 짚단도 아주 좋은 놀잇감이었다. 짚단으로 우산 모양의 집을 지어놓고 또래 아이들이 들락거리며 놀던 추억이 새롭다.



노적봉 주변 기암괴석



노적봉 주변 기암괴석

또한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짚단을 쌓아놓은 짚누리는 시골 마을의 공통된 풍경이었다. 집집마다 마당 한쪽에 수북하게 쌓아놓은 짚누리는, 겨우 내내 소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땀감으로도 사용되었다. 지금은 논에서 직접 추수하여 짚을 사료감으로 포장하고 있어서 짚누리를 구경하는 것도 어렵다.

노적봉은 이름처럼 바위들이 벼단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벼타작을 하고 벼단을 옆으로 무질서하게 던져놓은 모습이다. 집체보다도 더 큰 바위는 벼단을 쌓아올린 노적가리 같기도 하다. 좌우지간 노적봉 여기저기에는 갖가지 형상의 기암괴석들이 즐비하다.



노적봉 주변 기암괴석



노적봉 주변 기암괴석

옛날에는 노적봉 꼭대기까지 올라갈 엄두를 못내고 봉우리를 우회해서 지나갔다. 지금은 노적봉 꼭대기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곳에 테크

계단을 설치해 놓아서 등산객들이 더욱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적봉에서 한참 머물며 주변 경관을 살펴보는 기분이 참으로 시원하다.

노적봉의 꼭대기로 발길을 옮기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풍경과 마주친다. 거대한 바위 절벽 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옆으로 누워서 사는 소나무’ 한그루가 눈에 띈다.



옆으로 누워서 사는 소나무

아마도 저 정도 나이를 먹은 소나무라면 평지에서는 벌써 아름답드리가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기에 어린아이 손목만 한 굵기밖에 자라지 못했을까.

어디 옆으로 누운 소나무 뿐이라. 용봉산은 전체가 돌산이어서 바위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식물들이 참으로 많다. 돌 틈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저 진달래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계절 내내 자연과 싸우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나무들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옆으로 누운 소나무나 진달래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경외스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작은 어려움에 짜증 내고 힘들어하는 내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노적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까마득한 절벽이다. 이곳에도 테크 계단을 설치해 놓았지만 발을 헛딛지 않도록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길이다.



돌틈에서 피어난 진달래 꽃 모습



노적봉 테크 계단 모습

노적봉 아래로 내려가는 절벽 길옆에는 촛대바위와 행운바위가 있다.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게 솟아 있는 모습이 신비하다. 행운바위 상단에 조그만 돌들이 올망졸망 얹혀 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행운을 빌며 던져놓은 돌들이다.



행운바위 모습



촛대바위 모습



삼살개바위 모습



성터 흔적

노적봉에서 악귀봉으로 가는 중간에는 정거장처럼 또 하나의 바위 봉우리를 넘어가야 한다. 그 사이에 옛성터가 두세군데 남아 있다. 중간 봉우리 역시 거대한 바위 절벽을 지나가야 한다. 이곳 역시 옛날에는 우회했는데, 지금은 바위를 올라갈 수 있도록 데크 계단을 설치해 놓았다.

중간 봉우리에는 삼살개 모양의 바위가 등산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중간 바위 봉우리에서 악귀봉으로 건너기 위해 구름다리를 설치해 놓았다. 구름다리를 건너서면 곧바로 악귀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중간 봉우리 모습



구름다리 모습

노적봉에서 악귀봉까지는 대략 200여 미터 거리가 된다. 악귀봉은 해발 369미터이다. 악귀봉에 올라가면 데크 시설을 해서 전망대로 통하게 되어 있다. 산 중간에 설치한 전망대는 주변 경관을 살펴보기에 안성맞춤이다. 서쪽으로 수덕사 덕숭산과 가야산이 뻗히 건너다 보인다. 노적봉과 병풍바위들이 건너편에서 손짓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해의 낙조가 일품이다.



악귀봉 전망대 모습

악귀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위들은 자연이 빚어놓은 걸작품들이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서있는 줄바위들은, 일부러 줄을 맞춰서 세워놓은 듯하다.

옛사람들은 이곳의 기기묘묘한 바위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산 정약용은 용봉산의 기암괴석을 ‘별난 귀신의 모습’ ‘아침하는 간신이 참소 올리는 듯한 모습’ ‘경만한 아녀자가 독기 품은 듯한 모습’ 등으로 표현했다.

바위들의 특이한 생김새에 눈이 휘둥그레진다고 했다. 바위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재치있고 해학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개바위 모습

사진 한 장씩 찍고 내려가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이다.

악귀봉에서 데크로 만든 수십 계단을 밟고 내려오면, 평지처럼 편안한 길이 이어진다. 여기에서 임간휴게소까지는 대략 400여미터쯤 된다. 임간휴게소로 향하는 길은 비교적 흙을 많이 밟을 수 있는 등산로이다. 길옆으로 평상을 만들어 놓아서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많다.

임간휴게소에서 갈림길이 나온다. 이곳 갈림길에서 곧바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과 용봉사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용바위를 지나서 병풍바위 쪽으로 갈 수도 있다.

홍성군에서 제시한 등산로 1코스는 용바위까지 가서 병풍바위를 경유하여

악귀봉의 최고 절작은 두꺼비 바위이다. 줄지어 서있는 바위 맨 뒷자리에 두꺼비가 몸을 세우고 서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그럴듯하고 신기하기만 하다.

악귀봉에는 물개바위도 볼거리이다. 물개바위 등에 올라 앉아서

구룡대 매표소로 하산하는 길이다. 제1코스는 용봉산 전체 능선을 한바퀴 비잉 돌아오는 길이다. 하지만 중간중간 응용하여 여러 길을 따라 하산할 수 있다.



임간휴게소 모습

2. 신랑각시바위 결혼식을 구경하는 길(제2코스)¹²⁹⁾

- 병풍바위로 오르는 길 -

구룡대 매표소 - 병풍바위 - 용바위 - 임간휴게소 - 악귀봉 - 노적봉 - 최고봉(정상) - 투석봉 - 상하리미륵불 - 용봉폭포 - 야영장 - 산림휴양관 - 구룡대 매표소(4.6km, 3시간 30분)

제2코스는 제1코스과 정 반대 방향에서 출발한다. 제2코스는 용봉산의 명물인 병풍바위부터 찾는 이들의 눈을 호강시키고 있다. 병풍바위 쪽으로 오르는 등산 코스는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길이다.

용봉산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구룡대 매표소가 나온다. 구룡대를 건너서 골짜기 안으로 직진하면 용봉사쪽이고, 오른쪽 산등성으로 올라가면 병풍바위쪽이다. 구룡대를 지나자마자 병풍바위로 향하는 이정표가 있다.

구룡대에서 600미터 정도만 올라가면 병풍바위이다. 대략 30여 분이면 오를 수 있는 거리이다. 병풍바위를 향해 오르는 길은 온통 바위길이다. 큰 바위를 길 삼아서 오르는 곳이 많다.

때로는 옛성터의 흔적들을 밟고 지나가기도 한다. 용봉산은 산등성이마다 산골짜기를 에워싼 포곡식 산성터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용봉산성 터는

129) 앞의 책, 212쪽 ~ 224쪽.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병풍바위로 올라가는 산언덕에는 거북바위도 있고 신랑각시바위도 있다. 신랑각시바위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얼굴 부위에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키 작은 각시바위는 다소곳한 표정으로 얼굴을 약간 숙이고 신랑의 가슴에 기대고 서있는 모습이다.



바위사이로 오르는 등산로 모습



산성터와 등산로 모습



병풍바위 모습



신랑각시 바위 모습



거북바위 모습

이들 바위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온다. 병풍바위는 12폭짜리가 3겹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신랑각시가 결혼식을 올리는 중이란다. 거북이 한 쌍도 결혼식을 구경하러 산등성이를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다. 앞서가던 수놈이 뒤에 올라오는 암놈에게 조심하라고 살펴보는 중이라고 한다. 누군가 평범해 보이는 바위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름을 지은 솜씨도 훌륭하거니와 만들어 낸 이야기도 흥미롭다.

용봉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기기묘묘한 기암괴석들로 인해서, 찾는 이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랑각시 바위와 거북바위 역시, 산 주변의 여러 기암괴석들과 함께 훌륭한 볼거리와 애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병풍바위에 올라서면 더욱 더 흥미로운 모습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룬다. 병풍바위 주변에 있는 모든 바위들이 걸작품이다.

병풍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분주하다. 산아래로는 용봉사가 내려다보이고, 건너편으로는 노적봉과 악귀봉도 한눈에 들어온다.



병풍바위에서 내려다 본 용봉사



기암괴석 모습



병풍바위 기암괴석 모습



병풍바위 기암괴석 모습



병풍바위 정상에서 바라본 건너편 산줄기 모습

병풍바위에서 계속 위쪽으로 300여 미터만 올라가면 용바위가 있다. 용바위에서 왼쪽으로 가면 악귀봉과 노적봉과 최고봉으로 향한다. 오른쪽으로 가면 수암산 방향인데 덕산온천으로 통하는 길이다.



용바위 모습



용바위 이정표 모습

용바위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등산길을 걷다 보면 임간휴게소와 악귀봉과 노적봉을 경유하여 최고봉으로 향한다. 최고봉에서 투석봉을 경유하여 미륵골로 하산한다. 투석봉에서 가파른 등산로를 조심조심 내려오면 미륵골 중턱에 자리잡은 옛 암자터와 상하리미륵불과 만난다.

여기까지는 제1코스와 반대 방향에서 출발하여 똑같은 길을 거꾸로 지나온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1코스에서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향한다.



용봉산 둘레길 등산로



용봉산 둘레길 등산로

상하리미륵불에서 곧바로 하산하면 용봉초등학교에 도착한다. 하지만 상하리미륵불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돌리면 용봉산 허리를 감싸고 도는 다정한 둘레길이다. 옛시절 이 둘레길은 산아래 마을 선남선녀들의 사랑이야기가 넘쳐나던 길이다.

이 길은 산아래 마을 처녀총각들이 은밀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흔적이 남아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아남은 쥐들의 전설도 전해온다. 또한 산계곡을 흐르는 용봉폭포도 있고, 조상들이 산제를 지내던 산제바위도 있다.

미륵불에서 용봉사쪽으로 길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바닥이 넓고 평평짐한 바위가 있다. 마을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찾기 어려운 장소에 숨은듯이 자리잡고 있다. 이 바위 이름은 ‘부엉바위’ 또는 ‘부엉배’라고 부른다.

옛날 시골마을마다 처녀총각들이 많던 시절에 용봉산 뒷길은 아주 좋은 밀회 장소였다. 특히 널찍한 부엉바위는 처녀총각들에게 더없는 만남의 장소였다.

부엉바위는 교실만큼 넓어서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의 훌륭한 휴식처 역할도 했다. 특히 조용한 밤에는 마을의 처녀총각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다. 산속에서 만날 때는 부엉이 소리를 내며 신호를 보내기도 했단다. 부엉바위는 옛날 시골 정서가 물씬 풍기는 추억어린 장소이다.

산길을 휘돌아서 용봉사 쪽으로 향하다 보면, 하산마을이 내려다 보인다. 하산마을 한가운데에는 앙증스럽게 작고 예쁜 솔밭이 있다. 이 솔밭 이름이 ‘쥐산’이다. 쥐산 앞으로는 싸라기내가 흘러가고 있다. 쥐산과 싸라기내에도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둘레길을 따라 쉬엄쉬엄 걷다 보면 빈절골 용봉폭포를 지나간다.



용봉꼭대 모습



쥬산 모습

그리고 산제당골을 지나면 어느새 염불골 입구 운동장에 도착한다. 운동장 끝머리에 자리잡은 용봉산 휴양관에서 등성을 넘어 구룡대 매표소로 도착할 수 있다.

3. 최영 장군과 애마의 전설이 서려있는 바위길(제3코스)¹³⁰⁾

- 최영 장군 활터로 올라가는 길 -

휴양림 관리소 - 야영장 - 최영장군 활터 - 최고봉(정상) - 노적봉 - 악귀봉 - 임간휴게소 - 신경리마여래입상 - 용봉사 - 구룡대 매표소(2.9km, 2시간)

제3코스 최영 장군이 활을 쏘며 무술훈련을 했다는 장군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이다. 최영 장군 활터 쪽으로 등산하려면 염불골 입구에서 길이 갈라진다. 용봉산 산림 전시관과 용봉산 휴양림과 운동장을 지나면 염불골 입구가 나온다. 염불골 입구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꺾으며 산등성이 쪽으로 올라가면 최영 장군 활터로 올라가는 등산로이다. 염불골 입구에 최영장군 활터로 향하는 이정표가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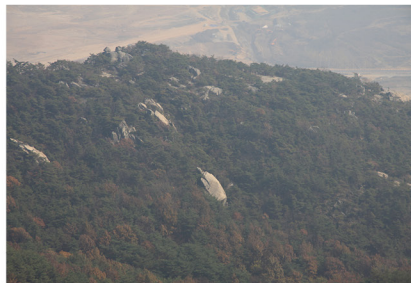


야영장에서 최영 장군 활터로 올라가는 입구

130) 앞의 책, 190쪽 ~ 2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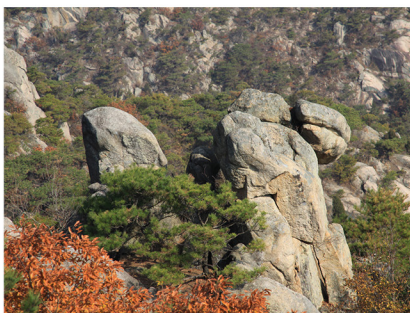
최영장군 활터 오르는 길



건너편 골짜기 거북바위 모습

최영 장군 활터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온통 암벽이어서 험준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수도 있다. 잠깐잠깐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면, 병풍바위와 노적봉과 악귀봉이 저 앞에 있다. 건너편 골짜기 병풍바위 아래로는 느릿느릿 산을 오르는 거북바위도 보인다.

이 등산로는 용봉산의 여러 길 중에서 주변 골짜기의 기암괴석들을 가장 많이 살펴볼 수 있다. 등산로에서 바라보는 건너편 골짜기와 봉우리들은 이세상 모든 기암괴석들의 전시장 같다.





최영 장군 활터 길을 술하게 올라 다니지만, 그때마다 색다른 바위들과 마주치곤 한다. 매번 새롭고 낯선 바위가 길옆이나 건너편 골짜기에 서있곤 한다.

어느날 최영장군 활터를 오르다가 깜짝 놀랐다. 등산로 바로 옆에 낯선 바위 하나가 앉아있는 것이었다. 생김새가 특이해서 눈에 익었을 법도 한데, 처음 보는 바위모습이었다.

바위를 바라보는 첫 느낌이 꼭 자라 형상이었다. 등딱지는 울퉁불퉁 덕지덕지 세상살이의 모진 풍파를 술하게 겪은 모습이다. 무슨 볼일을 보려는지 목을 쪽 빼고 산위로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아마도 저 아래 어디에서 출발하여 힘겹게 산을 오르다가 이곳에서 잠시 쉬고 있는 듯했다.



자라바위 모습

때마침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바위를 가리키며 무슨 모습 같으냐고 물었다. 등산객들은 첫마디에 자라 모습 같다고 했다. 바위 등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며 신기한 표정들을 지었다.

기기묘묘한 모습으로 서있는 바위는 자라모습 뿐만이 아니다. 건너편 산

계곡에는 위태위태하게 벼랑에 버티고 서있는 바위도 있다.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투신을 하려는지, 금방 뛰어내릴 듯한 모습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서있으면 짜릿짜릿 소름이 돋는다. 또다른 바위는 누가 일부러 힘자랑을 하느라고 바윗돌 하나를 올려놓은 듯했다.



최영 장군 활터 부근 기암괴석 모습



최영 장군 활터 부근 기암괴석 모습



최영장군 활터 정자 모습

최영 장군 활터로 오르는 길은, 이처럼 시시각각 나타나는 바위들과 숨바꼭질 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조심조심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면 육각형의 정자가 반갑게 맞이한다. 이곳 역시 최영 장군과 관련한 전설이 전하고 있다.

옛날에 소년 최영은 용봉산에서 무술수업을 했다고 한다. 이곳 봉우리에서 활을 쏘면 흥북면 노은리에 있는 먼 산봉우리까지 화살이 날아갔단다. 그 화살은 산봉우리에 앉아있는 암탉을 맞히곤 했다. 그리하여 그 산 이름은 닭재산이다. 이 닭재산은 최영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생가마을 뒷산이다. 닭재산 상봉 부근에는 최영 장군을 기리는 사당도 있다.

최영 장군 활터에서 가파른 길을 200여 미터 정도 올라가면 정상부 능선에 도달한다. 정상부 능선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최정상이 나오고,

우측으로 돌아가면 노적봉과 악귀봉으로 향하는 길이다.

악귀봉에서 내려오면 임간휴게소가 있다. 임간휴게소에서 용봉사쪽으로 완만한 길을 걸으며 하산하면 제일 먼저 신경리마애여래입상을 만날 수 있다.

신경리마애여래입상은 고려시대 작품이며 보물 제 355호이다. 마애불은 자연암반 앞면에 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 돌을새김 형태로 제작하였다. 마애불의 머리 위로는 지붕 모습을 한 덮개석이 얹혀 있으며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마애불은 전체적인 얼굴 모습이 살 오른 여인의 통통하고 복스런 인상을 준다. 얼굴 전체에 잔잔하게 흐르는 미소는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눈과 입가의 미소, 목 부근까지 내려온 긴 귀가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다. 햇빛을 받으며 밝게 웃고 있는 표정은 세상의 번뇌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듯하다.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산 불교문화유적의 백미이기도 하다.



신경리마애여래입상과 제단

신경리마애석불입상 아래로는 큰 마당이 있다. 오가는 등산객들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마애불의 자애로운 모습은 등산객들의 모든 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눈웃음으로 화답하는 것만 같다.

신경리마애여래입상에서 200여 개 돌계단을 내려오면 옛날 공조참판을 지낸 묘가 있다. 이 묘가 있는 자리는 원래 용봉사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세력이었던 모씨 집안에서 절을 현 자리로 옮기게 하고, 그 자리에 조상의 묘를 썼다고 한다. 그 바람에 절이 현재 위치로 내려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봉사를 설명하는 안내 현판에도 절의 위치를 옮기게 된 사연이 적혀있다.

후손들의 입장에서 조상들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야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조상의 묘를 좋은 곳에 잘 모셔서 후손들이 그 은덕으로 잘되고 싶은 욕망도 십분 이해가는 일이다. 하지만 권력으로 절을 옮기게 한 것은 좀 지나친 처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용봉사는 용봉사의 골짜기마다 자리잡았던 암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년고찰이다. 용봉사의 창건년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용봉사에는 보물 제1262호인 영산회상괘불탱화(靈山會上掛佛幀畵)가 있다. 괘불탱화의 크기는 가로가 593cm이고 세로가 550cm이다. 해마다 석가탄신일에 한 번 씩 공개하고 있다.

‘영산회상괘불탱화(靈山會上掛佛幀畵)’라는 명칭이 낯설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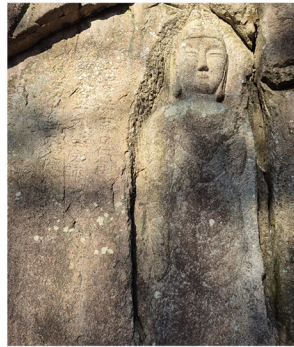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날 용봉사 모습

탱화란,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 액자나 족자형태로 만든 불화(佛畵)란 뜻이다. 또한 괘불이란, 야외법회를 할 때 모시는 거대한 불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영산회상이란, 부처님이 법화경의 무대인 영축산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법회의 모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영산회상괘불탱화라는 명칭은, 야외법회를 할 때 모셔놓기 위해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천에 그려놓은 불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용봉사 괘불은 1690년에 제작되었고, 1725년에 1차 중수한 기록이 있다. 1997년 8월 8일에 보물 제1262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괘불탱화에 있는 ‘팔봉산 용봉사(八峯山 龍鳳寺)’라는 표기는, 용봉산의 옛 이름이 팔봉산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용봉사 주변에는 석구와 석조 및 부도 등의 유적들이 전해오고 있다.

용봉사에서 200여미터쯤 내려오면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 바로 위쪽 서쪽으로 바위면에 조각된 마애불이 있다.



일주문 위쪽 마애불

특히 마애불의 왼편에는 세로형식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은 마애불이 신라 소성왕 원년인 79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마애불을 감상하고 일주문을 빠져 나와서 계곡길을 따라 500여 미터쯤 내려오면 구룡대 매표소와 만난다.



일주문

4. 염불하며 소원성취를 갈구하는 길¹³¹⁾

- 염불골로 오르는 길 -



염불골 모습

염불골은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등산코스에 나타나지 않는다. 옛날부터 유명하게 전해오는 골짜기인데 많이 소개되지 않은 편이다. 염불골로 등산하려면 용봉산 산림전시관 아래쪽에 조성된 주차장까지 차로 곧장 올라가면 된다. 산림전시관 아래쪽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용봉산 산림전시관’과 ‘용봉산 자연휴양림’과 운동장을 지나간다.

운동장을 막 벗어나면 돌계단을 밟으며 계곡 사이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다. 산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인데 잘 다듬어진 돌계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등산로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산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다.

용봉산 주변 마을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염불골이라고 부른다.



용봉산 산림 전시관



용봉산 자연휴양림

131) 앞의 책, 152쪽 ~ 189쪽

염불을 하며 산꼭대기까지 오르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길이다. 또다른 이야기로는 염불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걸으면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길이다.

염불골은 산계곡과 나무숲에 가려서 주변의 번잡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바위와 나무와 나 혼자이다. 돌계단을 오르는 길은 침묵뿐이다. 참으로 고요하고 명상하기에 좋은 길이다.



염불골 입구 모습

염불골에 오르면서 혼자서 자문자답해 본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만족하고 살았느냐? 항상 한 두 가지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잖느냐?’

혼자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본다. 만족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았던 것 같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심이 내 맘에 들어와 앉곤 했다. 정말이지,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다.

내가 나에게 또 물었다.

‘너는 걱정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없었더냐?’

혼자서 또 조용히 생각해 본다. 산다는 것 역시 걱정거리의 연속인 것 같았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곧바로 나타나며 나를 근심 속으로 빠뜨리곤 했다.

‘그것 보라. 너는 필요 이상의 욕심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거란다.’

내가 나에게 또다시 한마디 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지 않는단다. 지금 네 앞에 없고 부족한 것은 스스로 극복하고 채워가라는 뜻이란다. 너는 지금 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잖느냐? 너무 위쪽만 바라보지 말거라. 주변과 아래를 살펴보며 살거라.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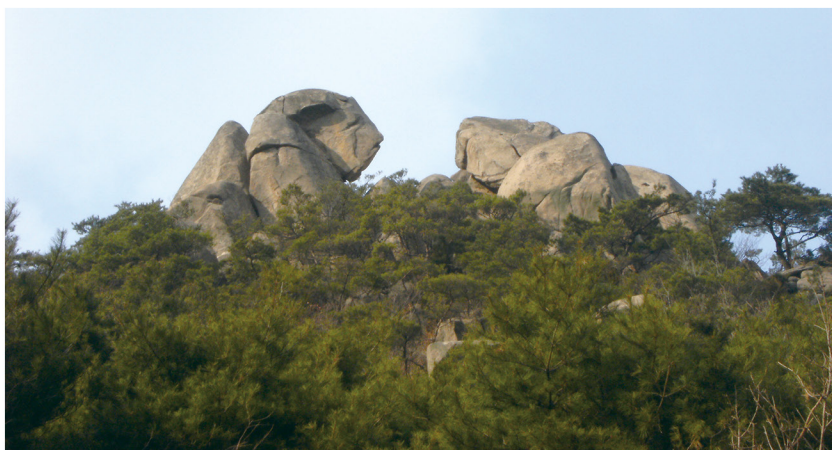
정말로 그렇구나!

하느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인 것이구나.

나는 지금 무슨 염치로 주변을 향해 불평불만을 한단 말인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다. 허리를 펴고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아! 사자바위!

저 꼭대기 산등성이에서 사자 두 마리가 편안한 자세로 마주보고 앉아있다. 이세상 온갖 욕심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린 아주아주 편안한 모습이다. 그 아래 용봉산은 온통 고요한 침묵 뿐이다.



염불굴에서 올려다 본 사자바위 모습

어느새 나는 염불굴 막바지 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정말로 나는 이 길을 걸으면서 깨달음을 얻기는 얻은 것일까?

염불굴을 모두 올라가면 산능선 좌우로 갈림길이다. 이곳은 옛시절 용봉사에서 수덕사로 통하던 고개이기도 하다. 염불굴 주변 능선이 소의 등처럼 생겼다고 하여 소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용봉산성의 북문지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소고개 주변으로도 옛 성터 흔적이 남아있다.



소고개에서 노적봉 사이 성터 흔적

염불골 소고개에서 좌측은 최고봉으로 가는 방향이고, 우측으로는 노적봉과으로 가는 방향이다.



염불골 정상 능선(소고개) 모습

※용봉산의 등산로 1코스~4코스는 『월산과 용봉산의 솔바람길 이야기』, ‘용봉산의 등산로’ 내용 일부를 재수록 했습니다.

5. 용봉산 능선을 따라 조성된 내포 사색길

-사색하며 걷는 힐링의 숲길-

내포사색길은 용봉산 능선 아래를 중심으로 구룡대 안내소에서 출발하여 흥예공원까지 장애물 없이 쉽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다. 홍성군이

보행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여에 걸쳐서 낮은 쪽 능선을 따라 조성해 놓았다.

홍성군은 지난 2016년에 홍예공원에서 보훈공원을 연결하는 1km의 트레일을 조성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에 용봉산 구룡대 안내소에서 출발하여 홍예공원까지 총 2.2km 규모의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숲길로 조성했다.

내포사색길은 최대한 계단을 없애고 경사도를 낮춰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보행 약자층이 숲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숲길이다. 낮은 계곡 사이는 데크 계단을 설치했고 평평한 길은 자연 그대로 흙길로 건도록 했다.

내포사색길은 정상 등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편히 걸으며 사색할 수 있는 보행 약자들을 배려한 착한 길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중간중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었다. 내포사색길을 걸으며 충청남도청이 자리잡은 내포신도시를 내려다보며 걷는 기분이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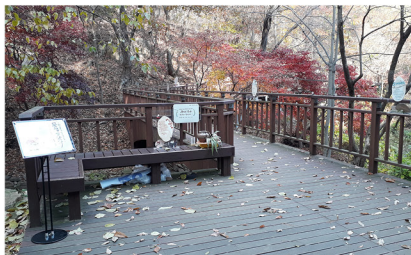
내포사색길 입구에는 홍성군 문화단체들이 수시로 그림과 시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야간 등반 대회도 개최할 정도로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내포사색길에서 바라본 내포신도시



내포사색길 모습



내포사색길 입구 전시회 모습



내포사색길

* 참고문헌 : 김정현, 『월산과 용봉산의 솔바람길 이야기』, 홍성문화원, 2011.

홍성의 산하 — 용봉산편 ❶

초판 1쇄 인쇄 2024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26일

집 필 조원찬·김정현

발행인 유환동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Tel. 041-632-3613 Fax. 041-633-1199

인 쇄 주식회사 디앤피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11-1

Tel. 041-631-3391 Fax. 050-4489-0413


ISBN 979-11-984634-1-8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혹은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와 홍성문화원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충청남도,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T. 041-632-3613 F. 041-633-1199



9 791198 463418
ISBN 979-11-984634-1-8

